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2005년 4월 2~3일 동안 열린 175차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회복은 175년 전인 1830년의 이 주에 교회를 조직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계시를 통해 교회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교회였습니까? 요셉 스미스의 교회였습니까? 올리버 카우드리의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일의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대관장단

대관장단에서 함께 봉사한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가운데), 제1보좌인 토머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왼쪽), 그리고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오른쪽)이 새로 사진을 찍었다. 현 대관장단은 1995년 3월 12일에 성별되었다.



조셉 브리키, 아이오와 메이드

요셉 스미스가 아이오와 메이드호 증기선을 타고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해 미시시피 강을 따라 일리노이 주 나부까지 여행해 온 영국 개종자들을 반기고 있다. 활기찬 말일상도였던 웰쉬먼 덴 존슨이 함장을 맡았던 아이오와 메이드호는 성도들이 1842년에서 1845년까지 사용했다.

리아호나

2 175차 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4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6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10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13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콜린 케이 멘러브 자매

16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19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23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4 **2004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형제

25 **2004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

26 **친절의 미덕**

조셉 비 워스린 장로

29 **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2 **인간의 가치**

해들드 지 힐렘 장로

34 **십일조-가난한 자에게도 계명입니다**

린 지 로빈스 장로

36 **첫번째 시험의 결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39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신권 모임

43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46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닐 엘 앤더슨 장로

48 **누가 주의 편이나?**

로버트 시 옥스 장로

51 **인내심**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54 **봉사, 신성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58 **도박**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62 **거룩한 곳에 섬**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69 **한 사람만 더**

엠 러셀 벨라드 장로

72 **신앙이 해답입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74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닮은 우리 친구들**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77 **하나로 묶인 마음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80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84 **무엇을 구하느냐**

엘 톰 페리 장로

87 **외설물**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91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

94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데마 다미아니

96 **연로하여 허리가 굽은 분들의 권고에 감사함**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

99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102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청녀 총회

104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107 **내게 시키실 일**

줄리 비 벅 자매

109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112 **모범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116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117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118 **아론 신권 및 청녀 참고 지도서**

121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121 **교회 소식**



175차 연차 대회 요약

2005년 4월 2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얼 시 텅기 장로. 폐회 기도: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존 롱허스트. 찬송가 12장 “예언자의 음성”, 찬송가 27장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109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송가 1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92장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찬송가 35장 “굳ود다 그 기조”.

2005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존 엠 매드슨 장로. 폐회 기도: 더블류 폴크 가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옥드과 로건 종교 교육원 연합 합창단. 지휘: 조나단 지 우드스탁, 제럴드 에프 시몬, 브렌트 티 코틀.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찬송가 97장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143장 “거룩하신 경전으로”,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16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2005년 4월 2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폐회 기도: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음악 제공: 브리감영 대학교 신권 합창단. 지휘: 로널드 제이 스타헬리.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틴슨. 찬송가 43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28장 “하늘에서 온 천사”, 찬송가 2장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60장 “거룩함도 더욱”.

2005년 4월 3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와 사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개회 기도: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폐회 기도: 셸리 디 크리스틴슨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존 롱허스트, 클레이 크리스틴슨. 찬송가 32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24장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11장(영문) “What Was Witnessed in the Heavens?”, 찬송가 63장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25장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위하여”, 찬송가 18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2005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폐회 기도: 윌리엄 더블류 팜리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린다 마기즈. 찬송가 56장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62장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177장 “의의 일하세”, 찬송가 82장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 하세”.

2005년 3월 26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수잔 더블류 태너. 개회 기도: 에이미 인지브릿슨. 폐회 기도: 앤 엠 디브. 음악 제공: 유타 스페니시 포크와 살렘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크리스티 프레이. 반주: 린다 마기즈. 찬송가 15장 “와서 기쁜 노래하라”, 찬송가 28장 “하늘에서 온 천사”, 찬송가 24장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256장(영문)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연차 대회 녹화 기록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기록은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1830년에 조직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진 촬영: 조셉 브리키, 복제 금지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한국의 이민희, 크레이그 다이몬드, 웰든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레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켈리 라슨, 탐러 에이치 라티에타, 스코트 데이비스, 레이 닐슨과 로버트 페인, 벨기에의 알렉산더 스트루방트, 멕시코의 세어조우 말도나도, 뉴질랜드의 리처드 스티븐즈, 필리핀의 제이미 앤 리베라, 스페인의 세어조우 디에즈가 촬영했습니다.



리아호나 2005년 5월 호, 제5호

25985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라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비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탭: 클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버, 라렌 포터 곤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래넷, 샬리 제이 오데카크, 이담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라, 비비안 폴슨, 돈 엘 셉, 레베카 앤 테일러,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킴벌리 웹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앤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탭: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카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70호, 제 42권, 제 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에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May 2005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4, 58, 80,
 102
 닐 엘 앤더슨, 46
 맬린 에이치 옥스, 8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9
 데이비드 이 소랜슨, 72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36
 러셀 엠 넬슨, 16
 로버트 디 헤일즈, 39
 로버트 시 옥스, 48
 로버트 제이 웨트, 91
 리처드 시 에즐리, 10
 리처드 지 스크트, 29
 린 지 로빈슨, 34
 보이드 케이 페커, 6
 수잔 더블류 태너, 104
 스티븐 비 오브슨, 96
 아테마 다미아니, 94
 엘 톰 페리, 84
 엠 러셀 벨라드, 69
 일레인 에스 돌튼, 109
 제임스 이 파우스트, 51, 62
 제프리 알 홀런드, 43
 조셉 비 위스린, 26
 줄리 비 벡, 107
 캐서린 에이치 휴즈, 74
 콜린 케이 멘러브, 13
 토마스 에스 몬슨, 19, 23,
 54, 112
 해롤드 지 힐람, 32
 헨리 비 아이어링, 77

주제별 색인

가르침, 13, 29, 51, 69
 가정, 62
 가정의 밤, 19
 가족 역사, 19, 77
 간증, 10, 13, 36, 69, 96,
 107, 109, 112
 감사, 4
 개인적인 가치, 32, 104
 개종, 77, 84, 91
 거룩함, 62
 경전 공부, 6, 29
 교회 성장, 4, 91
 구원의 계획, 6, 29
 기도, 6, 46, 109
 낱기, 5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9
 도덕성, 48, 58
 도박, 58
 모범, 39, 112
 물몬경, 6, 10, 80
 봉사, 39, 51, 54, 74, 91,
 107
 부부 선교사, 39
 빛, 19
 사랑, 91, 94
 선교 사업, 29, 39, 69, 84,
 107
 선택의지, 16, 46
 성신, 6, 10, 13, 36, 46,
 99
 성약, 48, 54, 77, 104
 성전 및 성전 사업, 62, 77,
 102
 소망, 94
 속죄, 10, 26
 순종, 16, 32, 46, 48, 72,
 99
 신권, 43, 48, 54, 80

신뢰, 72
 신성한 본성, 109
 신앙, 4, 6, 34, 39, 72,
 94, 99, 102, 109
 십일조, 34, 58
 어린이, 13, 19
 역경, 72, 94
 연로한 분, 96
 영구 교육 기금, 4
 영적 은사, 99
 예수 그리스도, 6, 10, 26
 예언자, 96, 104
 외설물, 87
 요셉 스미스, 36, 80, 104,
 107, 109
 용서, 32
 우정, 74
 위선, 87
 유산, 112
 유희, 46, 112
 의무, 54
 인도주의 봉사, 102
 자비, 99
 자신감, 94, 99
 죽음, 16
 준비, 16, 69
 중독, 58, 87
 지혜, 96
 진리, 19, 102, 112
 첫번째 시현, 36, 80
 축복, 34, 99
 친절, 26, 74, 91
 평화, 13, 62, 72, 94, 99
 하나님 아버지, 80
 활동 축진, 32, 54, 91
 회개, 16, 87, 94
 회복, 10, 43, 84, 109
 희생, 34, 39, 58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우리의 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전세계 회원들을 대신해, 지금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톨릭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독교 정신의 대의를 진척시키며,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고, 도덕적인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변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며 일해 오셨습니다. 특히 교황의 지도력에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못내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관한 책임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3월 12일, 우리에게는 대관장단

의 높고 성스러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대회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좀더 당당하게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행해야 할 원대한 복천년의 사명을 보다 잘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명의 의미와 그 폭과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주저 없이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로에게 사려 깊고, 선하며,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좀더 그리스도 다워져야 합니다.”(“This Is the Work of the Master”, *Ensign*, 1995년 5월호, 71쪽)

여러분은 10년 전에 받은 이 권유를 우리가 얼마만큼 실현했는가에 대한 판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은 교회 역사에서 실로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이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의미 있는 업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급진적인 발전은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혹은 감리 감독단만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스테이크장단이나 고등평의회, 모든 감독단과 정원회 회장단,



모든 보조 조직 회장단,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충실하고 활동적인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기도,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 각자에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을 전하며 여러분의 훌륭하고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훌륭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위엄과 훌륭함은 오늘날 눈부시게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정상에 서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북미 지역 밖에 있는 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말씀을 전할 때 컨퍼런스 센터의 큰 영상 화면에 비친 모습

원의 수가 북미 지역에 있는 수보다 많아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160개국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국제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500개 이상의 새로운 스테이크와 4,000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새로이 증가된 회원의 수는 3백만 명에 달합니다.

교회 교육 기구에 등록된 수는 약 200,000명으로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대부분이 더 강하고 충실해졌습니다.

영구 교육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소망과 신앙만 갖고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18,000명의 젊은이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27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 받고 있고, 조상 대대

로 물려받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은 향상되고 수입은 배가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5년에는 47개의 성전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금년에 헌납할 세 개의 성전을 포함하여 119개가 있습니다.

물문경은 1995년에 87개국어로 출판되었는데 오늘날에는 106개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배부된 물문경의 수는 5천 백만 부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전역에 문자 그대로 수천 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들은 질적인 면이나 효율 면에서 전에 지은 것들보다 우리의 필요

에 더 잘 맞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이 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훌륭하고 독특하며 아름다운 건물인 컨퍼런스 센터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과 더불어 더 많이,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 절망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미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여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관해 간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7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수백만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반자는 1년 전 4월 6일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 이래로 적적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원대하며 신앙은 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끝만 만졌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95세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제 삶은 텍사스 주의 한 낡은 철조망에 녹슨 철쇠로 걸려 있는 표지판의 글을 저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뭄으로 다 말라 버렸구나
홍수에 다 씻겨 갔구나
산토끼들이 다 먹어 치우고
보안관은 나의 땅을
다 팔았구나
그래도 나 여기 머물러 있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봉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신권을 받은 자들의 손으로 회복된 거룩한 신권의 권능이 여기 있습니다. 휘장이 열렸으며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말일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소년 예언자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우리의 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좀더 당당하게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행해야 할 원대한 복천년의 사명을 보다 잘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전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몰몬경은 지혜와 영감, 조언과 훈계의 무한한 보고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몰몬경 소개: *History of the Church*, 4:461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의 초판이 1830년 3월 뉴욕 주 팔마이아에서

인쇄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소년 요셉 스미스는 스물네 번째 생일을 막 보냈습니다. 그 전해에 요셉이 판을 번역하는 데는 총 65일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은 그가 신권을 받고 난 이후에 번역했습니다. 인쇄를 하는 데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저는 만일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읽은 기록들에] 혹 참된 것[인지 간구하되]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나에게]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4)는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시를 이해했을 때, 이 지시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강렬한 경험으로써 즉시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느낌을 받았으며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성구에는 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5) 몰몬경에

서는 여러 번에 걸쳐 성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공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도다.” 또 물문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그 약속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이서 32:3)

물문경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것이다.”(니파이이서 32:4)

저는 다음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니파이이서 32:5) 제가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신앙개조 1:4)에 의해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미 주의 길에 임했습니다.

순진하고 어린 소년으로서의 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기대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말씀과 공과를 듣고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파이는 형들로부터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니파이일서 17:45) 성신이 우리의 느낌을 통해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저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약전서로나 물문경로나 다른 경전으로 그러한 좋은 느낌을 전달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경전이 제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응답해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이를 너희와 만민에게 비유하여 상고할 지어다.”(니파이이서 11:8; 또한 니파이일서 19:23~24; 니파이이서 6:5; 11:2 참조) 저는 경전의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며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나쳤던 성구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구절을 누가 기록했든 그는 제 삶과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언자 리하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말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 열매가 다른 어느 열매보다 먹을 만하다는 것을 알았던 나는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열매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졌느니라.”(니파이일서 8:12) 저는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그리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 니파이도 “나의 영으로 느끼는 일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 (니파이이서 4:15)라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으나 역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우리가 자녀들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가 자녀와 손자녀들에 대해 느끼는 것만큼 리하이와 니파이도 그들의 자녀에 대해 깊이 느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전의 말씀이 간결하고 진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셉이 것처럼 심오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판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을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처럼 간결하고 진귀한 통찰력은 물문경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통찰력은 스물세 살의 청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혜와 경험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저는 누구든, 어디서든, 물문경을 읽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통찰력은 두 번, 심지어 세 번 읽은 후에 왔으며, 일상 생활에서 제가 직면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문경을 처음 읽었을 때 갖지 못했던 다른 간결하고 진귀한 통찰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여덟 살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저는 그 답을 물문경에서 찾았습니다.

“이들 [니파이 백성]은 권세나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다만 저들의 가정과 자유와 처자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저들의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었더라.”

“저들이 이렇게 행함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라고 느낀 때문이었으니, 주께서 저들의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첫 번이나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함에 죄가 되지 않거든, 원수의 손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라 하시었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희는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가족을 보호하라 하였으니,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웠음은 먼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고, 가족과 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며, 권리와 종교를 지키기 위함이었다.”(앨마서 43:45~47)

이 사실을 알고,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도 확신이 없었을 때, 저는 해롤드 비리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진행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물몬경에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6)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 움직이면, 빛이 나타나 형제님 앞을 비출 것입니다.” 그것은 물몬경의 단 한 구절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다음과 같이 말한 니파이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 갔느니라.”(니파이일서 4:6) 여러분은 때로 매우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로나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조롱하지 않을지” 하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이 조롱할 것이나, 저희가 애통해 하리로다. 나의 사랑이 온유한 자들에게는 흡족할 것이요 저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은혜는]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 흡족할지니, 저들이 겸손

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리로다.”(이더서 12:25~27)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낙담, 우울함, 또는 두려움을 느낄 때, 물몬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시간이 더 많이 지나기 전에 한 구절, 한 말씀, 또는 한 장을 읽으십시오.

저는 경험을 통해, 간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간증은 앨마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씨앗에서 자랍니다. “...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강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좋은 씨앗임을 안다고 말하리니, 이는 씨가 부풀고 싹이 터서 자라나기 시작하였음이라.”(앨마서 32:30)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가꾸면, 그것은 자랄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그것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앨마서 32:37~41 참조)

물몬경을 반복해서 읽었지만 아직 강력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물몬경에서, 크신 영광 중에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찼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니파이삼서 9:20)다고 한 제자들과 어떤 면에서는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의 성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 사람이 제 힘에 겨우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 상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지라, 만사가 질서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라.”(모사이야서 4:27)

물몬경에서 기술된 영적인 은사는 오늘날 교회에 현존하며, 그것은 속삭임, 느낌, 계시, 꿈, 시현, 방문,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크신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며 때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의 날이 다한 것이라 하겠느냐?”

“혹 천사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를 그쳤느냐? 혹 주가 저들에게서 성신의 권세를 거두시었느냐? 또한 시간이 지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 위의 단 하나라도 구원 받을 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느니라].”(모로나이서 7:35~37)

늘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마서 41:10)와 같은 몇 개의 단어나 구절은 악마의 실재와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나이서 7:17)

예언자들의 세대들은 “화평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모로나이서 7:3)를 보호하기 위해 영원한 복음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물몬은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가 이 백성들을 고난으로 징계하시며 사망과 공포와 기근과 온갖 역병으로 저들을 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결코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나니.”(힐라맨서 12:3)

주님께서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를 어찌 부르느냐 하는 일로 다툼이 [있었은즉] [저들이] 이 교회를 어찌 일컬어야 [하는지]”를 여쭙었습니다.

“... 주가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 백성들이 어찌 이 일로 서로 논란하며 다투느냐?

“경전에 그리스도라는 나의 이름을 취하러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어지리로다.”(니파이삼서 27:3~5)

물몬경의 주된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입니다. 물몬경에 기록된 6,000개 이상의 구절 중 절반 이상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이서 25:26)

몰몬경은 “연약한 자와 [우리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교리와 성약 89:3) 지혜와 영감, 조연과 혼계의 무한한 보고입니다. 또한 몰몬경은 자신을 낮추는 가장 학식 있는 자들에게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합니다.(니파이이서 9:28~29 참조)

몰몬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웁니다.

구원의 계획 곧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 또한 앨마서 42:5, 8, 12, 30 참조)

그리스도와 속죄의 교리.(니파이이서 31:2~21; 32:1~6; 니파이삼서 11:31~40; 27:13~21 참조)

사망이 필요한 이유.(니파이이서 9:4~6; 모사이야서 16:8~9; 앨마서 12:25~27 참조)

죽음 이후의 영의 세계에서의 삶.(앨마서 40:11~14 참조)

악마가 하는 일.(니파이이서 2:27; 앨마서 28:13; 니파이이서 2:2 참조)

신권의 반차.(모사이야서 29:42; 앨마서 4:20; 5:3, 44; 앨마서 13:1~10 참조)

성찬 기도.(모로나이서 4:3; 5:2 참조)

선악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모로나이서 7:16 참조)

죄 사함을 받는 방법.(모사이야서 4:26 참조)

명백한 예언의 경고와 인간의 구속과 우리의 삶에 관한 많은 다른 것들. 모든 것은 총명한 복음의 일부입니다.(교리와 성약 20:9 참조)

몰몬경은 구약전서의 가르침을 확증합니다. 몰몬경은 또한 신약전서의 가르침이 참됨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은 신약전서와 구약전서에서 없었거나 삭제된(니파이일서 13:20~42; 14:23 참조)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니파이일서 13:28)을 회복해 줍니다. 몰몬경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 조직 175주년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탄생 200주년을 경축합니다. 교회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글과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그리고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늘 그랬던 것처럼, 그를 불신하는 말과 글도 많을 것입니다. 요셉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그가 말하고 행한 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년 된 먼지를 휘젓는 자들은 항상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계시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걷어차는 자는 모두 저주 받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내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나 보기에 합당한 일과 내가 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죄를 범하였다 부르짖는 자들은 모두 저주 받을지어다.”(교리와 성약 121:16) 그들은 참으로 매우 엄격한 형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변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이 우리 대신 그를 변호할 것입니다. 예언자요, 계시자로서 요셉 스미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몰몬경에 대해 뭔가 그 구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를 변호할 두 번째로 강력한 것은 교리와 성약이며, 세 번째는 값진 진주입니다. 합본으로 출판된 이 경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성약과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저는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회복의 기적에 대해 간증하는 것은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19 95년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아동 영양을 주제로 열린 과학 세미나의 환영사와 개회사를 부탁 받았습니다. 24개국에서 96명의 과학자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하는 동안 참석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복장과 피부색, 언어 및 다른 특징들을 통해 참으로 많은 나라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너 달 후에 저는 미국 동부에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신권 지도자 모임을 준비하면서 단상에 앉아 있는 동안 한 아프리카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통로쪽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지만 제가 어디서 그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구부려 스테이크장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스테이크장은 “그는 회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교환 교수인데 그 지역의 유명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어떤 과학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교회에 관한 소책자를 보았는데 그 소책자가 계기가 되어 교회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읽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라고 스테이크장이 농담을 했습니다.

신권 지도자 모임 후에 저는 그 교환 교수에게 다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새로이 찾은 진리의 근원에 대한 자신의 흥분된 심정을 이야기했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의 가족이 선교사들과 공부하고 있으며 4주 후에는 미국에서 자기와 합류하여 그 때에 모두가 함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모임이 끝나자 그 교수는 연단 쪽으로 급히 나와서 자신의 가슴을 쿵쿵치며 흥분되어 외쳤습니다. “제 가슴이 이처럼 두근

거리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제 가족이 침례 받을 때까지 4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아가 베니게 출신의 사악한 이세벨 공주에게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피신했을 때 주님은 그를 높은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그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산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아는 “크고 강한 바람”을 느꼈지만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열왕기상 19:11~12)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비회원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회원 수와 활동에 있어서 모두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말해 처음에는 세미한 소리이며 그 후에는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분주하고 소란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그 답은 바람 같은 것도, 불 같은 것도, 지진 같은 것도 아니고, 다만 세미하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음성이며, 그것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어둠과 혼동 속에서 잃어버렸던 교리, 신권, 성약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불타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기적에 대해 간증하는 것은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수백만 명의 회원들에게 말과 행동과 봉사를 통해 예수의 생애를 본받으라고 동기를 주는 것은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은퇴한 수천의 부부들에게 보통 18개월 이상을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동기를 주는 것도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커다란 희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따뜻한 물로 하는 샤워나 편안한 침대가 그저 추억 속의 사치품일 수 있는



세상의 오지에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젊은 남녀가 전도 유망한 직업을 뒤로하고, 학업을 연기하고(때로는 운동과 다른 장학금을 포기하고) 또는 사랑을 나중으로 미루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복음의 회복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순수성과 정직, 윌리를 수호하겠다는 소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조롱 받고 배척당하는 것을 무릅쓰게 하는 것은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짐을 나누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엘마는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에 관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엘마서 5:14)라고 물었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너희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많은 것 중에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개인적인 구세주이며,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상상조차 못할 고통과 나아가 죽음까지 겪으실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가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구속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이미 치르신 값, 즉 저의 죄와 범법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에서 저를 구하시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둘째, 겨우 열네 살 된 어린 소년이 숲으로 들어가서 드린 겸손하고 간단한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내려왔음을 알기에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은 신권, 성약, 순수한 교리와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가져오기 위해 이 소년 예언자가 견디어 낸 일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오고 있을 때 사탄의 사자들 또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시작되었고, 고대 예언자들의 생애처럼 요셉의 삶도 순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젊은 예언자는 확고했고 각오를 새로이 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 인해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대성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으로 인해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뿐 아니라 고통, 결점, 시련과 비극으로 인한 우리의 개인적인 역경을 짊어지셨던 큰 고난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최대 최후의 희생에 담긴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을 이해합니다. 구세주께서 마지막 구속 행위를 통해 본보기로 보여 주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합니다. 요셉 스미스로 인해 구세주에 대한 저의 사랑과 감사는 더욱 커지고 제 예배는 더욱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쓴 많

은 찬송가 중에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친숙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열의와 기쁨으로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더욱 큰 경건과 감정과 감사로 구세주에 대해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시리”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하고 노래합니다. 구세주의 속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예언자 요셉이 제 삶에 가져다준 깨우침 때문에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셋째, 성경을 보완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증거하는 몰몬경의 거룩한 성구를 공부하고 상고할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성경의 이 성스러운 동반자로 인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저의 이해는 더 커졌으며, 따라서 성경에서 대답을 얻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제가 충분한 만족을 얻을 정도로 설명됩니다. 몰몬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복음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몰몬경이 실재하게 된 기적, 즉 금속 판에 힘들게 새기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가 수세기 동안 이를 보관하고, 기적적으로 번역한 일 등에 관해 생각할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정말 거룩한 경전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숙독하고, 공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요셉 스미스가 참된 예언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몰몬경의 참됨에 관해 개인적인 계시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룩한 지식에 관해 말하면서 몰몬경의 예언자 엘마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



지 않느냐? 보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이는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 (앨마서 5:45~46)

고대의 엘마처럼 우리 각 사람, 즉 회원들과 진지한 구도자들 모두 이런 것들이 참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것은 특권 이상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특권이 주어

질 때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몬경의 예언자 야곱은 “온 정성을 다하여”(야곱서 6:5) 나오라고 말합니다. 지성이나 신체적 감각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고대의 엘마처럼 금식할 수도 있으며, 바로 그럴 때에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개인적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클린 케이 멘러브 자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된 전 본부 초동회 회장

어린이들은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계 도처에서 일어난 최근의 재난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무죄한 희생자인 어린이들의 고통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부양하고, 보호해 주며, 사랑해 줄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삶에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을 찾기 위해 멀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나쳐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보통 자녀들의 육체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되는지는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인 필요 사항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평안을 알고 있습니까? 경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네 자녀를 심히 평안하게 할 것이요.”¹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세상에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압으로써 오는 평안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평안과 빛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은 우리 성인들의 몫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영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덴마크의 화가 칼 블로흐의 그림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훌륭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자이며 위안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병자인 한 남자가 쓰고 있는 천 조각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의 못에서 치유될 기적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를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남자가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를 고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계십니다.

그림의 배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를 주님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며, 예수님의 위대한 권세와 그들의 면전에서 일어날 기적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이 보입니다. 한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여자가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은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세주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 여인은 그 어린이를 구세주께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친 적은 없을까요? 일상 생활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영적인 시력이 무디어져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에 대해 배울 기회와 그분의 사랑을 느낄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군중 속에서 혼란에 빠진 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다리며 서성거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애타게 부르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인데, 그 가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높으신 주님께 기도하며
올바른 일들을 깨닫도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²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권세와 기적을 알고 느끼며 기뻐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에 대



해서 가르칩시다. 자녀들에게 복음의 위대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칩시다.”³ 어린이들은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서반구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물론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동안, 어린이들을 가까이에 모으셨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하시며 기뻐하셨고 그들이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늘을 여셨습니다.

저녁 식탁에 아이들과 함께하며, 매일 하는 가족 기도와 가족 경전 읽기, 그리고 가정의 밤에 그들을 참여시킬 때,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

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계명을 지키고 영원한 가족이 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 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을 하나씩 하는 동안에 영이 우리에게 자녀들이 주님의 빛을 알고 느끼도록 돕는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옳은 것을 말하도록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기만 하면, 영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훌륭하고 유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평안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빛을 선택하고 어둠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변형되어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기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영광과 사업을 본 후에 사탄이 어둠과 혼돈으로써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사탄

에게 담대히 맞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 한 아들이니라.”⁴

유혹이 다가올 때 아이들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으며 계명을 지킬 거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채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난 의로운 청년가 될 수 있어.” 또는 “난 의로운 청년이 되고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수 있어.” 이렇듯 지식과 빛으로 찬 아이들은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을 새겨 둔 아이들은 살면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합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우리의 추측 이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빛을 가진 아이들이 신앙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한 살인 사만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세 살짜리 벤자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복음의 빛을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샘은 성신에게서 오는 느낌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샘의 엄마가 “성신이 뭐지?”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안의 따뜻한 느낌이에요.” 샘은 또한 생후 2주 된 어린 남동생이 아팠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격려해 준 것이 성신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소망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지런함이 필요함



세 분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왼쪽으로부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 함께 대회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대관장단(오른쪽)

니다. 앞서 저는 클라라 맥매스터가 쓴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라는 노래를 언급했습니다. 맥매스터 자매님은 본부 초등학교 임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할 노래를 만들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임무가 정말 굉장한 일임을 깨닫고 이 임무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 완성된 노래를 제출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수정하라는 말도 없이 알맞은 노래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른 채 영적으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구했고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으며, 마침내 노래가 완벽하므로 더 이상 어떤 것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맥매스터 자매님은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이 하도록 요청 받았고 아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리라고 희망했던 그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인들과 아이들은 다양한 언어로 그녀의 영감 받은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배워 그 빛 안에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제 마음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 노래는 “사랑의 빛 안에 걸어

가고”라는 한 아이의 기원으로 시작하여 “우리 기쁘게 걸어가리”라는 결심으로 끝납니다.⁵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네 자녀들을 심히 평안하게 할 것이요”⁶ 어떤 아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지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지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복음의 빛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서 몇 명의 어린이들을 만났으며 또 어떤 어린이들은 아프리카, 필리핀, 한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나 심지어는 어린이 병원에서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곳에 결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복장과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행동에서 보여지는 표준들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마음과 초등학교 지도자들, 특별히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가져다준 기쁨과 소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빛과 평안이 깃들 것이며,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삼서 22:13.
2.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어린이 노래책*, 70쪽.
3. “Messages of Inspiration from President Hinckley”, *Church News*, 1999년 9월 4일자, 2쪽.
4. 모세서 1:13.
5. *어린이 노래책*, 70쪽.
6. 니파이삼서 22:13.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연차 대회 후에 제가 59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교회 일에서 벗어나 집에 있던 좀처럼 드문 토요일에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옷을 세탁했고 저는 옷들을 가져다가 접어서 제자리에 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중 저의 소중한 아내인 댄츨이 평화롭게 영원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불과 4일 전만 해도 정기 검진 때의 의사의 보고에 따르면 아내의 건강이 양호했습니다. 그녀를 살리려는 제 노력은 아무 성과가

없었으며 저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열 자녀의 천사 같은 어머니이며 56명의 손자녀들의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댄츨은 사랑 받고 사랑을 주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교사였습니다. 고결한 모범으로 신앙과 미덕과 순종과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귀기울이며 사랑하는지를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저는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도처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찬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편지, 전화, 카드 및 기타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보내는 온갖 사랑의 찬사와 그녀가 남겨 둔 우리들에 대해 동정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메시지들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답해드릴 수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의 크나큰 친절에 대해 여러분 각각에게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것들은 우리 가족이 가슴 아파하는 이 시기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댄츨을 사랑합니다. 그녀가 보고 싶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대에 예언자들은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고 외쳤습니다.¹

지금 준비해야 할 필요성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루고 있습니다.² 어느 한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으리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니,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³ 또 다른 예언자는 “더러운 자는 더러운 것으로 의로운 자는 의로움으로 남을 때가 올 것임에”라고 덧붙였습니다.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지식은 위대합니다.⁵ 우리는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이런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의중에는 따로 정해 놓으신 한 시기가 있으며, 그때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지시를 따른 모든 종들을 해의 왕국에 있는 안식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이 안식처는⁶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곳이므로,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이곳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으려는 자는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이 안식처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⁷ 넬슨 자매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세상적인 고통이나 슬픔으로 낙담한 사람에게 그 영광스런 목표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던 한 친구가 “아,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고 외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갖고 현세의 시련을 경험합니다.(자녀들과 인생의 시련을 동시에 언급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된

이 지상 위에 교회가 회복되었고, 이로써 가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⁸

우리는 시련을 겪고 시험 받고 선택하기 위해 왔습니다.⁹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¹⁰ 주님의 길을 택한 자들은 아마 박해를 견뎌낼 것입니다.¹¹ 그러나 그들의 보상은 확실합니다. 충실함을 증명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받으리니, 저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가득” 찰 것입니다.¹² 벨슨 자매는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점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수년 전에 저는 매우 부유한 남자의 수술을 담당했었습니다. 외과적인 세포 검사를 통해 그의 몸 전체에 말기 암이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자신의 부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들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재산을 얼마나 남겼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물론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순위를 세상의 것들에 두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사다리는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라 너희들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어 마침내 영원토록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라는 성구를 읽으면서 그를 생각해 봅니다.¹³

이와 정말 대조적으로 벨슨 자매는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대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매일을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의 시간이 귀중함을 알고는 매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무력한 두려움이나 어제의 실수에 사로잡혀 마비된



채 오늘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 각자는 해 시계에 붙어 있는 어느 한 시인의 다음 글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손가락으로 드리워진 그림자
과거와 미래를 가르네
어둠 속에서 그대의 권세 너머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간이 잠자네
돌아가지 못할 선 뒤로
터는 그대의 것이 아닌 사라진 시간이며
그대 손에 있는 오직 한 시간
그림자가 서 있는 현재라네.¹⁴*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이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합니까?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경전은 “너희가 시험의 날들을 완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

의 마당에서 불결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불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¹⁵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간단한 규정을 주셨습니다.¹⁶

지금은 인간의 육신에 경건한 존경을 보일 때입니다. 육신은 영원토록 영이 거하는 장막의 역할을 합니다. 육체적 욕망은 인간의 영의 의지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¹⁷ 우리는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굳게 붙들[고] …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이]” 합니다.¹⁸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서운 재난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분은 우리를 도우려 애쓰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니다. “내가 나의 종의 입으로, 천사들의 성역으로, 내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로, ... 폭풍우 소리로, 지진과 큰 우박 소리로, 기근과 각종 질병의 소리로 ... 불러서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하였으나 너희는 응하지 아니하였도다.”¹⁹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조상을 위해 성전의 성약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에 대한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²⁰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는 길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들이 근거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²¹

하나님의 계획은 공평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²²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자비롭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²³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올릴 때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십일조를 내게 하셨습니다.²⁴ 넬슨 자매는 우리 가족에게 그 교훈을 거듭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²⁵

지금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에 맞출 때입니다. 그분의 사업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²⁶ 성전 결

혼에 관해 구세주께서는 “어느 사람이 나의 율법이 되는 나의 말씀과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으로써 ... 아내를 맞이하고 ... [저들이] 왕위와, 왕국과 주권, 그리고 여러 권능과 영토와 ...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리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²⁷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하신 대로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대로 기도하고, 그분이 하신 대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²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의 죽음의

중요성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도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있어 필수적입니다.²⁹ 주님의 속죄 덕분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모든 인간에게 영생이 가능해졌습니다.³⁰ 그 가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¹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고³² 우리 아버지의 하늘 집에 마련된 우리의 처소로 갈 것입니다.³³ 해의 왕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관대한 계명에 충실해 온 사람들에게 기다립니다.³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살고 다른 세계에서 살기 위해 죽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죽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너무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해의 왕국의 영광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한편 저나 우리 가족처럼 뒤에 남아 슬퍼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쏘는 것이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깊은 소망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나아갈 때 누그러집니다.³⁵ 그러한 신앙과 희망과 사랑은 우리가 하

나님의 거룩한 면전으로 가서 영원한 동반자와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격을 얻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앨머서 34:32~33; 또한 앨머서13:27 참조.
2. 경전은 우리 각자에게 “다시는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기를 바라노니, 보라 지금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날이라. 너희가 회개하면 ...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즉시 너희에게 내려지리라.” (앨머서 34:31)라고 권고한다.
3. 앨머서 34:34.
4. 몰몬서 9:14; 또한 니파이서서 9:15~16; 교리와 성약 88:27~32, 34~35; 교리와 성약 130:2 참조.
5. 교리와 성약 130:18.
6. 신약전서에서 안식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 하늘의 축복”을 뜻하는 희랍어의 여성 명사 *katapausis*에서 번역되었다. 그래서 안식은 영광의 요소라는 뜻을 담고 있다.
7.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2쪽.
8. 교리와 성약 2:1~3; 138:48; 요셉 스미스서 2:39 참조.
9. 니파이서서 9:27; 교리와 성약 98:12; 아브라함서 3:24~26 참조.
10. 니파이서서 2:27.
11. 디모테후서 3:12 참조.
12. 니파이서서 9:18.
13. 힐라멘서 13:38.
14. 헬리 반 다이크, “The Sun-Dial at Wells College”, in *The Poems of Henry Van dyke*(1911년), 345쪽. 뉴욕 주 오로라의 웰스 대학에 전시된 해시계와 시.
15. 니파이서서 10:21.
16. 교리와 성약 132:21; 또한 교리와 성약 88:36~39 참조.
17. 모로나이서 10:32; 또한 니파이서서 2:21; 몰몬서 9:28 참조.
18. 교리와 성약 98:11.
19. 교리와 성약 43:25.
20. 교리와 성약 128:15, 18 참조.
21.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22. 교리와 성약 137:7.
23. 교리와 성약 137:9.
24. 말라기 3:10; 니파이삼서 24:10 참조. 십일조는 또한 응징과 불타는 날에 대비해 백성들을 준비시킨다.(교리와 성약 85:3 참조)
25. Spencer J. Condie, *Russell M. Nelson: Father, Surgeon, Apostle*(2003년), 104쪽 참조.
26. 모세서 1:39; 또한 모세서 6:59; 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6:62 참조.
27. 교리와 성약 132:19; 또한 교리와 성약 75:5; 101:65 참조.
28. 니파이서서 33:4; 니파이삼서 15:9; 27:21~22; 교리와 성약 14:7 참조.
29. 앨머서 42:8~9 참조.
30. 고린도전서 15:50~54; 요한1서 5:11, 20; 앨머서 12:25; 몰몬서 9:13; 교리와 성약 46:14; 76:40~42, 50~59; 133:62 참조.
31. 니파이삼서 12:20.
32. 니파이서서 10:20; 니파이서서 9:41~46; 앨머서 12:27 참조.
33. 요한복음 14:2; 교리와 성약 98:18 참조.
34. 교리와 성약 78:7; 131:1~3 참조.
35. 니파이서서 31:20; 모사이서서 16:7~8; 모로나이서서 7:38~48 참조.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거나 세계 전역에서 함께 모이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라는 임무 지명과 특권을 받고 수행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의 말을 함으로써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전적인 세상에서 교회의 청소년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우수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며,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봅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물론경에서 니파이이서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

겠습니다.

“그 날에 악마가 ... [저들을] 육육의 안식처를 쫓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이리라.”¹

자기 만족이라는 나무는 가지가 많으며 매년 봄에 더 많은 봉오리가 꽃을 피운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으며, 그 표적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을 대적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세력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텔레비전과 영화는 세속적이고 부도덕한 영웅과 여걸을 묘사하여 모범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몇 명의 남녀 배우들을 역할 모델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눈먼 안내자를 따라야 합니까? 라디오에서는 노골적인 가사, 위험한 권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악을 묘사하고 있는 매우 유해한 음악이 시끄럽게 흘러 나옵니다.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결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 자신의 삶에서 몇 가지 예를 전함과 동시에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

늘로부터 영감 받은 이 프로그램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 각 구성원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고 도처에 있는 유혹에 저항하도록 도와 줍니다. 가정에서 배운 교훈은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과 그 이전의 대관장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기구도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²

주목 받는 저자이자 의학 권위자인 글렌 제이 도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이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나 어린이는 컴퓨터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어린이의 [두뇌]에 처음 8년간 입력되는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에 잘못된 정보를 [두뇌]에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을 지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잘 받아들이는 나이는 두 살 내지 세 살입니다.”³

저는 이런 명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찬장이며, 여러분은 그 찬장의 선반을 채워 넣는다.” 우리의 찬장 선반과 우리 가족 구성원의 선반에 우리의 영혼에 안전을 공급해 주고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채웁시다. 그러한 선반들은 복음 공부, 신앙, 기도, 사랑, 봉사, 순종, 모범과 친절함으로 잘 채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부채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빌리는 시대이며, 매주 우리의 우체통에 다양한 신용카드 신청서가 도착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이후에는 이자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잘 모릅니다. 저는 수년 전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참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빌린 돈에 대해 이자



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재정 및 경제의 규칙입니다 ...

“이자는 잠을 자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으며, 병원에 가는 일도 없으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는 일도 없으며, 어디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지도 않으며 놀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또 일을 중단하지도, 그 일을 그만두지도 않고, 작업 시간을 줄이는 일도 없습니다. ... 일단 부채를 얻게 되면 이자는 여러분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동반자가 되어 그로부터 해방되거나 도망치거나 떨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자는 여러분에게 애원도 명령도 주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를 방해하거나 앞길을 가로 막거나 또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여러분을 파멸시켜 버립니다.”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주택 담보 대출을 부추기는 몇 개의 광고를 보고 들으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들은 집에 대한 두 번째 저당입니다. 그러한 대출금을 위한 광고는 우리를 부추겨서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빌리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결코 언급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대출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

의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철학과 변명을 피하십시오. 사치품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필수품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젊은 부부들이 여러 대의 자동차와 그들의 부모가 평생 동안 일해서 구입한 것과 같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그 결과로 두 사람의 봉급을 담보로 하는 장기 부채를 지게 됩니다. 변화가 생기고, 여성이 자녀를 갖고, 몇몇 가족에게 질병이 생기고, 직장을 잃으며, 자연 재해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두 사람의 수입으로 대출금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아마 너무 늦을 것입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훌륭한 경청자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대화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들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똑 같은 도전 속에서 살아 오셨습니다. 종종 부모들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큰 그림을 더 분명하게 봅니다. 그들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조언과 충고를 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집안 일을 함께 나누어 하십시오. 종종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와 달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더 쉽지만, 자녀들이 자신의 몫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 보이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내하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자녀 곁에 있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서 고든의 “해변에서의 하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발췌한 다음의 실례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세 살, 동생이 열 살이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께서 서커스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점심 때 전화가 걸려 왔다. 시내에 아버지가 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했다. ‘서커스는 다음에 또 올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아버지가 말했다.”⁵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느덧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내일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의미한 어제들만 수없이 남게 될 것입니다.⁶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와 직업에 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의범절을 배우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세대를 가르친다면, 세상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세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돌아보십시오.”⁷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했던 다음의 말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⁸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르기 위한 합당한 모범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모든 가족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유산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상에 대하여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소년이었을 때 들었던 저의 집안 “밀러” 가문 조상들과 관련하여 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1848년 봄에 저의 고조부모님이신



찰스 스투어트 밀러와 매리 맥고언 밀러는 그들의 조국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에 가입하시고, 스코틀랜드의 루더글렌에 있던 그들의 집을 떠나 대서양을 가로질러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뉴올리언스의 항구에 도착해서 미시시피 강 위쪽으로 여행하여 미주리 주의 세인트 루이스까지 갔는데, 한 무리의 성도들과 함께 1849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열한 명의 자녀들 중 하나인 마가렛은 저의 증조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 가족이 세인트 루이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할 충분한 돈을 벌기로 계획했으나 콜레라가 그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밀러 가족은 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2주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와 그들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의 증조할머니 마가렛 밀러는 그 당시 열세 살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도처에 시체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가격으로도 관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한 사람 중 좀더 장성한 아들들은 죽은 가족들의 조출한 관을 만들기 위해 황소 우리를 부수었습니다.

고아로 남은 아홉 명의 밀러 자녀들과 큰딸들 중 한 명의 남편은 1850년 봄에 네 마리의 황소와 하나의 마차를 가지고 세인트 루이스를 떠나 같은 해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



지역 집회소에서 대회 모임에 참석한 필리핀 마카티 스테이크의 한 가족

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그들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던 저의 조상들과 다른 순교한 선조들에게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 묶어 주는 성전 의식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꼭 두 달 전 오늘, 저의 가족들은 돌아가신 조상들 중 몇 분을 인봉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우리의 유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가장 영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오래 전 막내 아들 클라크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한번은 교수님이 클라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부친에게서 받은 모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후에 교수님은 클라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대답을 편지로 제게 알려 주셨습니다. 클라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론 신권 집사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이다호 주 멜러드 근처로 핑 사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로, 사냥철의 마지막 날이었죠. 핑을 찾아서 들판을 한없이 걸었지만 단 몇 마리밖에 보지 못한데다, 그마저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때 아버지께서 시계를 보시더니 제게 그러셨어요. “클라크, 총에서 총알을 뺀 후 총을 이 도

랑에 내려두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전 아버지께서 핑을 더 많이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이 위독하신데, 그 월요일 정오가 되면 어디에 있는지 간에 십이사도 정원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에반스 장로님을 위해 짧게라도 함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자를 벗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때 일을 잘 기억하지만, 정말이지 제 아들이 지켜보면서 배우고 있었고, 자신의 간증을 쌓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항상 제대로 신문을 배달하지 않던 어린 신문 배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현관에 놓는 대신에 때때로 그것을 수풀이나 길 가까운 곳에 던졌습니다. 그의 신문 배달을 받던 일부 사람들은 진정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표가 우리 집에 와서 제 아내 프란시스에게 진정서에 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단지 어린 소년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배달하기엔 신문들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절대로 그 아이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깐요.” 그러나 그의 신문 구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서에 서명을 해서 그 소년의 관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저는 프란시스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어린 신문

배달 소년의 시체가 그 아이의 차고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가 그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막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난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항상 있어 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 얼마나 생생한 교훈입니까.

구세주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 관해 기록된 대로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⁹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¹⁰

종종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항상 옳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완전히 보여 주신 평강의 왕을 항상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 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계획은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주님의 모범은 그 길을 가리킵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세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으셨을 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목숨을 요구 받으셨을 때 그것을 바치셨습니다.

지금 이 그 때입니다.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서서 28:20(21).
2. 대관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자;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3. *How to Teach Your Baby to Read*(1963년, 1964년), 43~45쪽.
4. Conference Report, 1938년 4월, 102(103쪽).
5. *A Touch of Wonder*(1974년), 77~78쪽 참조.
6. Meredith Willson and Franklin Lacey, *The Music Man*(1957년) 참조.
7.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2쪽.
8. 디모데전서 4:12.
9. 누가복음 2:52 참조.
10. 사도행전 10:38.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문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앨런 베드나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형제님들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에서 5월 1일부터 해임합니다.

조오지 오 아바드, 카를로스 이 아구에로, 마르코스 에이 아이구가이티스, 구스타보 에이 바리오스, 르네 제이 카브레라, 에디슨 엠 카브리토, 타드 알 칼리스터, 갈 비 쿡, 레이날도 엘 쿠용, 조오지 엘 텔 카스틸로, 벤하민 데이 오요스, 린드세이 티 딜, 프레드 시 디야마, 엔리쿠 알 팔라벨라, 로베르토 가르시아, 레리 더블류 기본스, 시 스코트 그로우, 존 에이 헤리스, 메릴 에프 하이엄, 알 랜달 허프, 마이클 엘 켄슨, 폴 브이 존슨, 고원용, 윌프레도 알 로페즈, 로날드 엘 러브랜드, 제프리 제이 머천트, 한스 에이치 멧슨, 이 이스라엘 페레즈, 홀거 디 라코우, 알폰소 라모스, 카를로스 시 레빌로 일세, 맨프레드 에이치 슈츠, 제이 마이클 스코트, 호세 에이 테이세이라 다 실바, 로웰 엠

스노우, 굴레르모 토레스, 로날드 엔 워커.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감사의 표시를 전하며 콜린 케이 맨러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게일 엠 클레그 자매님을 본부 초등회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의 뜻을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린 케이 켄슨 장로를 교회 역사가이자 기록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하민 데이 오요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시 스코트 그로우, 리처드 지 힝클리, 폴 브이 존슨, 폴 이 컬리커, 폴 브이 파이퍼, 울리세스 소아레스 형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고원용, 볼프강 에이치 폴, 로웰 엠 스노우, 폴 브이 시브로스키 형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들을 칠십인 지역 관리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넬슨 엘 알타미라노우, 마스웰 알라이즈,



세어조우 이 아벨라, 마세이로우 피 볼파리니, 웨인 엠 보우인, 데이비드 알 브라운, 페어난 도우 이 칼데이런, 밀턴 더 러셔 카마고우, 다넬 엠 카놀스, 아이 폴로스키 코든, 페이테리 코우 에프 코스테일즈 2세, 존 시 돌튼, 히버 오 디아스, 루이스 지 드와티, 프레리치 고츠, 로널드 제이 해먼드, 미겔 히델고우, 패트릭 키런, 도널드 제이 키즈, 크리스티안 에이치 클레이제그, 래리 알 로런스, 로버트 더블류 리스, 에프 러네이 로울리, 글렌든 라이언즈, 후안 에이 마츄카, 라이문두 모우랄레이스, 브렌트 에이치 닐슨, 카를로스 에스 오바타, 알리한드로우 엠 로우블레이스, 헤이라도우 엘 루보, 비도 센칸스, 파비안 엘 시남반, 덕 스마이버트, 한스 티 소렌슨, 에이빈드 스테리, 미겔 알 벨디즈, 게리 더블류 워커, 리차드 시 챔브라노.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셴넬 클라크 랜트 자매를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마거릿 수웬슨 리퍼스 자매를 제1보좌로, 비키 후지이 마쭈리 자매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직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계속된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부름받은 총관리 직원들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은 연단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존 경하는 대관장단께: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지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의 자산 보호에서 관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부



직원들은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리고 그 외 자격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교회 자금 지출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집행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04년 동안의 현금 영수, 지출 및 교회 자산이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적합한 회계 업무와 승인된 예산 그리고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관리 책임자 ■

2004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형 제 자매 여러분, 대관장단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다음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단위 조직 수

스테이크2,665
선교부338
지방부646
와드 및 지부26,670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수12,275,822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98,870명
침례 받은 개종자241,239

선교사

전임 선교사51,067

성전

2004년 동안 헌납된 성전3
(가나 아크라, 덴마크 코펜하겐,
뉴욕 맨해튼)
2004년 동안 재헌납된 성전2

(알래스카 앵커리지,
브라질 상파울로)

현재 운영 중인 성전119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교회 대관장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부인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의 미망인 루비 올슨 헤이트 자매; 십이사
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부인 덴즐
화이트 넬슨 자매; 전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보
좌인 사라 멜리사 브로드벤트 폴슨 소렌슨 자
매와 전 칠십인의 일원인 린 에이 소렌슨 장
로; 전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나오미 맥스필드
섬웨이 자매; 전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인
올리브 에이린 로빈슨 둔온 자매; 전 상호부조
회 본부 서기인 조안 블랙허스트 스펜서 자매.



대관장단의 애도의 말씀

토 요일 오후 모임 개최 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의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앙과 비전과 지성을 갖춘 훌륭한 분
이었으며, 용기 있는 행동으로 후 세대에
계속 영향을 미칠 만큼 전 세계에 감동을
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서거에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자유와 가족과 기독교계를 수호하고자
했던 그분의 목소리는 늘 변함이 없었습니
다. 원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는 결코 타협하
지 않으셨습니다. 전세계의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친절의 미덕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친절은 해의 왕국에서 삶의 핵심입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래 전,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저는 감독단이 교회의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에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열의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오십대의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는 평판이 좋은 기계공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이 교회에 마지막으로 나갔던 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반에서 소란을 피우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 때 화가 난 교사가 그를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그 불친절한 말 한 마디가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형제는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그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내뱉어진 말 한 마디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의 가족을 교회 활동에서 오는 축복으로부터 배제시켰다는 사실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40년이 지났고, 이제는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을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환영 받는, 필요한 사람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형제와 그의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와 충실하고 강한 회원이 되었을 때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특히 불친절한 말 한 마디와 같은 작은 것이 어떻게 평생에 걸쳐, 어쩌면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 훌륭한 형제는 그 덕분에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사가 되었습니다.

친절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고귀한 남녀의 위대함의 정수이며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친절은 문을 열고 친구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친절한 말들은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게 됩니다. 대학에 다니던 어느 날, 저보다 일곱 살 위인 선배가 미식 축구 경기에서 제 실력을 보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경기

에서 제가 잘 했다고 칭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훌륭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대화가 있던 지 60년도 더 넘었고, 저를 칭찬했던 분이 이 대화를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도 없지만, 저는 그날 고든 비 힝클리 형제님이 제게 해 주었던 그 친절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되셨습니다.

사려 깊음과 친절은 힝클리 대관장님에게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속성입니다. 1963년 저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저의 집을 제일 먼저 찾아 주신 분이 힝클리 대관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결코 그분의 친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어머니에게 기대해도 좋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삶이 어머니에게 감미로운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저의 어머니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분의 친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친절은 해의 왕국에서 삶의 핵심입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친절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친절과 자비의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든 그들을 섬기는 데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이 그분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지시 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 모두에게 친절하셨으며 다만 죄를 미워하실 뿐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천 명의 니파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와 그분의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위대한 친절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생애 동안 어리거나 연로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언자의 친절로 도움을 받았던 한 어린이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의 형과 나는 요셉의 벽돌 가게로 알려진 건물 가까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날에 비가 내려 땅이 몹시 질퍽거렸고 특히 그 거리는 더했습니다. 형 윌러스와 나는 진흙에 발이 빠져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꼼짝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는 어린아이들이 그렇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들고 올려다 보니 어린이들의 사랑하는 친구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곧 우리를 좀 높은 마른 땅으로 데려다 준 뒤 옆드려서 진흙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작은 신발에 묻은 진흙을 털어 주고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로 얼룩진 우리 얼굴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유쾌한 말을 해 주며 우리가 즐겁게 학교에 가도록 해 주었습니다.”¹

가정에서 친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저의 부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제 모친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욱 훌륭하고 현명하며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고 제 아내의 의

견에 귀기울이려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라고 말을 시작하면 저는 즉시 집중하여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말을 마치고도 전에 자주 저는 진지한 사과를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 아내는 친절과 관대함과 자비의 본보기입니다. 아내의 통찰력, 권고와 지지는 제게 더없이 귀중한 것이 되어 왔습니다. 아내 덕분에 저 역시 좀더 현명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 여러분의 어조, 여러분의 말에 담긴 분노나 조용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감지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의 친절과 불친절을 우리에게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보다 우리의 참모습을 더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왜 남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려서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매가 음악을 지휘하는 방법이나 어떤 형제가 공과를 가르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말이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종종 결과는 있게 마련입니다. 현금 봉투를 감독에게 건네면서 그것이 감독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던 소년이 기억납니다. 그 감독은 그 순간을 가르칠 기회라 생각하고 그것이 십일조인지, 금식 현금인지 명세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소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돈이 감독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독이 이유를 묻자 소년은 “감독님은 지금까지의 감독님들 중 가장 가난한 감독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것을 말하고 완전한 생각을 하고 완전한 느낌을 얻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봉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서로 다른 길을 여행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괴롭히는 유혹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
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덜 완전한 자를 결코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만큼이나 바느질
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만큼 잘 던
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만큼 노를 젓지 못
하거나 꿰이질을 못하거나 외향적이지 못하
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
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
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배우러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²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에 도달하
도록 어떻게 잘 돕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비
판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
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
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기억되는 분인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고통에 빠진 한 이웃의 가족
에게 큰 친절을 보였습니다. 그 가족은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
젊은 아버지였던 그는 디프테리아란 무서운 전
염병에 걸린 이웃의 큰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
습니다. 그 가족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그
는 개의치 않고 친절과 자비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 가족을 도울 사
람을 찾으려 애썼으나 전염병에 걸린 그 가족
을 도우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임스 형제가 도착했을 때는 한 명의 유아도 이
미 죽었고, 두 명의 다른 어린 자녀들이 병으
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을
시작하여 오염된 집을 깨끗이 하고 어린아이를
문을 준비를 하고 다른 아픈 아이들을 씻기고



돌보면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
침에 다시 온 그는 간밤에 자녀 한 명이 더 사
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여
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지
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애는 내 목에 매달
려 때로는 내 얼굴과 옷에 대고 [병균으로 가
득찬] 기침을 했다. ... 하지만 난 그 애를 떼어
낼 수 없었다. 죽어가는 30분 동안 나는 그
어린 생명을 안고 마루를 오갔다. 그 애는 오
전 10시에 고통 속에서 죽었다.” 세 자녀들도
24시간 내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 뒤 그는
가족을 도와 장례 준비를 하고 장례식에서 말
씀을 했습니다.³ 그가 했던 이 모든 것은 낮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위대한 친절의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친절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
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
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
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⁴ 그분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⁵

“그러나 사람들이 무례하다면?” 하고 여러

분은 묻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불쾌감을 자아낸다면?”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화를 낸다면? 그때는 확실히
무언가 해야겠지요?”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제멋대로 한다면?”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십시오. 그들
을 사랑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경전에서 유다는 “어떤 의
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
다.⁶ 우리가 친절하지만 해도 얼마나 큰 영향
을 끼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상 생활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곳에서의 우리의 일은 더욱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의 단지 조그마한 그림자에 불과
합니다.

히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열렸습니
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인 고든 비 헝클리 대
관장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 시대를 위한 지시
를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
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
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⁷ 하신 구
세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진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Margarette McIntire Burgess, *Juvenile Instructor*, 1892년 1월 15일, 66~67쪽.
2. 마가복음 12:30~31 참조.
3. John R. Talmage, *The Talmage Story: Life of James E. Talmage—Educator, Scientist, Apostle*(1972), 112~114쪽 참조.
4. 누가복음 6:37.
5. 마태복음 7:2.
6. 유다서 1:22.
7. 요한복음 13:3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범한 자료가 어떻게 여러분의 선교 사업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관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보다 쉽게 전하도록 해 줄 고무적인 발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과 정신에 불을 붙였는데, 이는 그들의 메시지를 권세로 가르치고 정해진 토론의 대화에 구애 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 간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전임 선교사가 사용하도록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도록 준비시키는 부모들에게도 정말 유익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청남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부들도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권 지도자들은 이 자료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의 선교 사업 준비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도구는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새로운 회원들의 간증과 순종심을 강화시키도록 돕는 데도 매우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와 그에 부속된 선교사 일일 계획서와 같은 계획 도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관해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전례 없이 선교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저마다 상당히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명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도서의 첫 페이지는 이런 참된 목적에 선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뎌를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한다." 그 내용에는 영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의 선교사 자료는 당시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세상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사회의 기

초를 구성하는 가치관이 사탄과 그 세력에 의해 공격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다시 주신 충만한 진리를 나누기 위해 향상된 방법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과 그것이 그분의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어떻게 지상에 회복되었는가에 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 권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한 번 완전하게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 표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방법은 너무 많은 경우에 암기하여 발표했으므로 영과 개인적인 확신이 결여되었습니다 ..."

"[선교사들의] 토론의 개념을 완전히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념들을 영의 인도 하에 자신의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¹

이 원리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근간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 구원의 계획, 필수적인 계명,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로 이런 내용들을 영의 인도에 따라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된 결과 선교 사업의 성과가 급격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영의 인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 지극히 귀중한 정보를 주는 장이 몇 개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개인 토론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성구도 있습니다. 한 장은 물론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 되는 이유, 그 책이 영혼에서 나오는 심오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경이 어떻게 우리 메시지의 참됨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가 되는지를 보여 주는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소망, 자애, 사랑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는 사랑이 가장 뜻깊은 선교 사업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제언도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가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명확하고 매우 효과적인 시간 계획 도구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개인을 찾고 준비시키는 검증된 방법들도 들어 있습니다. 침례, 확인,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결심을 하고 지키도록 돕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도 들어 있습니다. 이 지도서에는 전임 선교사들,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 회원들의 노력을 통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신회원은 보다 확고하게 교회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침례 및 확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인생 내내 그분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보다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영감에 찬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선교사들이 확신을 갖고 가르치고 성신의 확인과 증거를 불러오는 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두 명의 선교부장 보조에게 저를 구도자로 생각하고 요셉 스미스의 시현에 관해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연습이었지만 그들의 진지한 메시지, 그 순수한 의도, 전하는 기술이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

다. 여러분도 이런 향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토론 1을 가르치게 해 보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아 그들은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의 계획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각 시대마다 어떻게 예언자들을 활용하셨는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신성한 시현에 대해 간증할 때 그들의 간증을 느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지상에 다시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켰던 그 후의 사건들을 능숙하게 펼쳐 보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선교사들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영감에 찬 진리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면 이런 소중한 진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다른 총관리役員들과 매우 헌신적이고 경험 많은 유능한 실무 팀이 각각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와 계획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기획하고 체계를 잡고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성신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영감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14개 선교부에서 광범위한 시험을 거친 끝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편집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검토하고 수정하고 승인했습니다. 2004년 10월 15일에 전세계 위성 방송을 통해 선교부장들과 선교사 지도자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모든 선교사들이 영문판을 받았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몰랐지만 그들은 선교 사업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 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부 선교사들이 영어를 배우겠다는 동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에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배부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선교사들이 쓰는 대부분의 언어로 이 지도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선교사들만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 한 선교부장의 아내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모든 참조 성구를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용기가 부족해 하지 못했었던 일을 했으며, 가까운 친척에게 물문경을 읽고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 다른 가족은 자녀들의 선교 사업 준비를 돕기 위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열일곱 살 된 자녀가 제일 먼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아이는 그 책에서 가장 짧은 부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0분 동안 성구와 간증을 완벽하게 곁들여 그 원리에 관해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공과를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 아들을 선교사로 준비시키던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세계 인생의 목적, 교회 회원이자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통찰과 보다 명확한 이해를 주었습니다. ... 이 책은 또한 그런 일들을 더 잘하도록 하는 확실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소개된 지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별한 선교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가장 훌륭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 성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교회 회원이라는 충만한 열매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장단에서,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워드 평의회에서 이 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침례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발전 기록부를 사용하여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원리를 사용하여 함께 일할 때 보다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활동적으로 남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성취하기가 보다 쉬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



뉴질랜드 오클랜드 허버 스테이크 센터에서 대회 방송을 시청하기 전에 구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의 선교사들

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다음과 같은 대관장단 메시지는 선교사들에게 보다 큰 동기를 주고 또 여러분의 선교 사업에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칭찬할 만하거나 ... 일은 없습니다.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선교사가 되고, 더욱 설득력 있는 교사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돕겠다는 각오를 한층 더 새롭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 주님은 여러분이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에게 보상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²

여러분은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선교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할 때 저처럼 여러분도 흥분될 것입니다. 종전의 전임 선교사 자료와는 달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모든 지도자와 회원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영감 받은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오는 성장 때문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가장 큰 혜택을 앞으로 더 강한 부모, 더 유능한 교회 지도자, 그리고 더 훌륭한

직업인이 될 귀환 선교사들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우리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준비, 인쇄, 배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효과적인 사용을 터득하고 있는 선교 부장과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을 주신 주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시키는 부모이든, 새로운 개종자를 돕는 교회 지도자이든, 복음을 나누는 회원이나 봉사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범한 자료가 어떻게 여러분의 선교 사업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 구세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선교 사업",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19쪽.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v쪽.

인간의 가치

해롤드 지 힐럼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한 사람이 ...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다음의 말씀은 어쩌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수년 전 어느 스테이크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들었던 한 말씀이 저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젊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조부의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조부와 그분의 많은 자녀들은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저의 증조부는 어느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를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저는 증조부의 후손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한 말은 제가 잊을 수 없

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그 천 명의 후손들 중에서 저만이 유일한 교회 활동 회원입니다.”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1,000명이라고? 더 되지 않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가족이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미쳤을 영적인 영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 중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간증으로 감동 받아 침례를 받은 자들이 없을 것이고, 그 침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조부의 결정으로 인해 오늘날 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며 오늘이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필시 수천명 있습니다.

그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내가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들의 가족과 그 뒤를 이을 수많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그러한 불행이 닥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말을 그 아버지와 그 가족과 신권 지도자들에게 했을 텐데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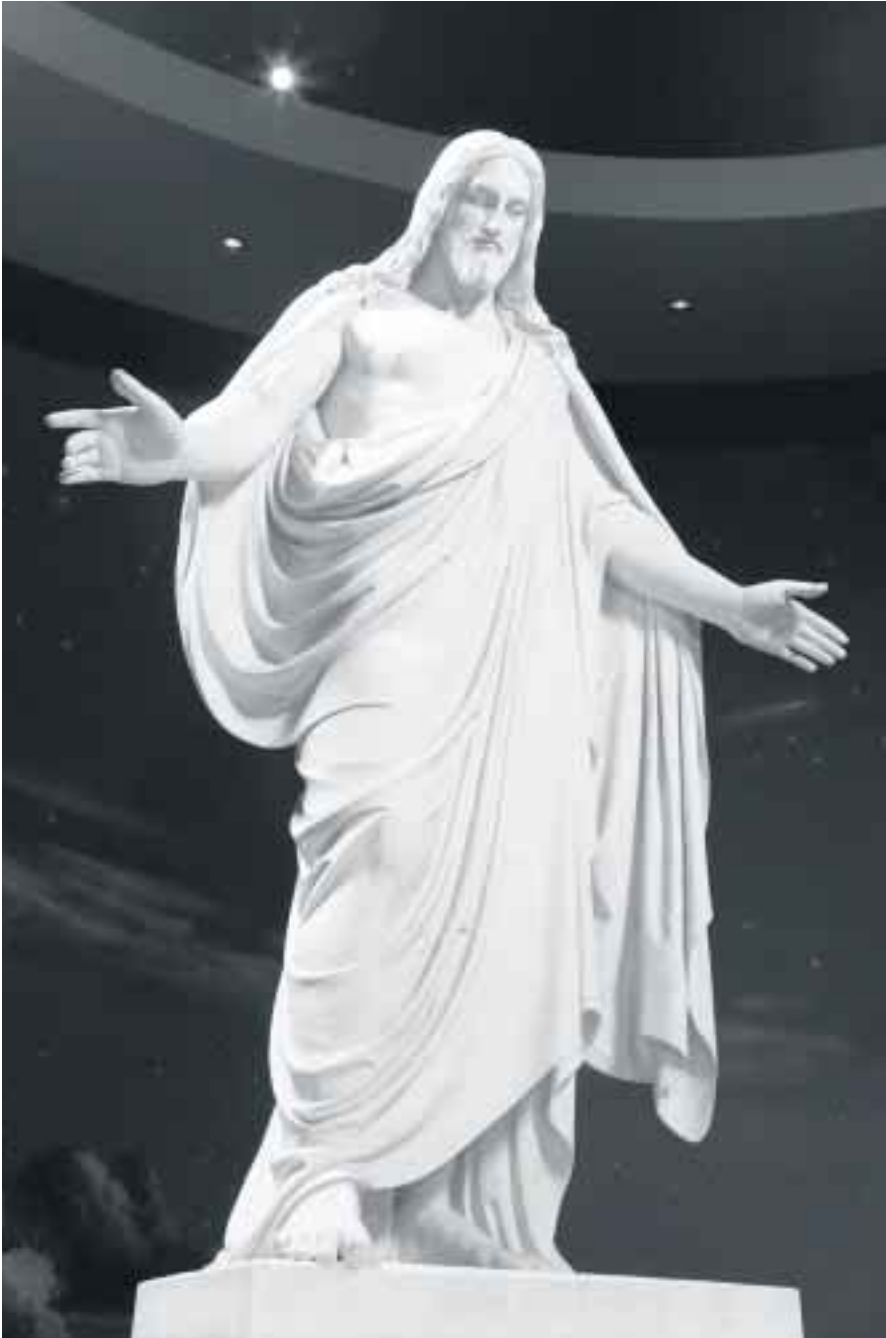
그러한 과거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증조부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른 결과를 숙고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교리에 관심이 없다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

이 지난해 프랑스의 파리에서 2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한 큰 모임을 통해 하신 권고의 말씀을 숙고해보십시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교리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이유에 서건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감독 및 스테이크장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언젠가 증조부와 증조모가 되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의 영원한 축복은 여러분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이 중요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어떤 교만한 이유보다 훨씬 더 중대합니다. 물문경에서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다음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욱더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모사이야서 2:41)

미래에 잘못된 길을 갈지도 모를 증조부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해서 충실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과도 함께 화평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문경에서 아버지 리하이가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사람은 의로운 아들 니파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많은 경우에 사나운 파도 속을 항해하는 동안 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감독님과 스테이크장 여러분, 제가 소수의 지역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던 모임에 여러분도 참석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 톰 페리 장로님이 수련 장로들과 저활동 회원들과 미래의 증조부들을 온도계에 비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단지 격려해 주고 길을 보여 준다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참석하도록 지명 받은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크장과 그의 보좌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장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장은 젊었으며, 거의 10년 동안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일에서도 거인이었습니다. 그와 개인 접견을 하는 동안 그는 어떻게 스테이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그의 보좌들과 고등 평의원들에게 위임하고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개인들과

부부들을 그의 사무실에 오도록 초대했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조언했으며, 그들이 더 잘하도록 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을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유능한 지도자이자 교사의 관심 속에 돕으로써 그들이 교리의 좋은 점을 알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저에게 그러한 접견에서 축복을 받고 싶은지 종종 물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의 수많은 회원들의 머리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스테이크 대회의 총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테이크장이 해임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축복했던 젊은 스테이크장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스테이크장의 안수로 축복을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라고 물어 보라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손을 든 사람들의 엄청난 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칭송할까,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말이다. 그래, 이 사람들은 그 애정 깊은 지도자 때문에 수천 세대에 그를 복이 있다 일컫는 유산을 남기는 증조부가 될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다음의 말씀은 어찌하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10)

비록 현재 어린 아이이건, 십대이건 또는 성인이건 관계없이 장래에 증조부들이 될 이 사람들을 도와 그들 각자가 주님을 알고 사랑 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의로운 유산을 남기도록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십일조—가난한 자에게도 계명입니다

린 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정원희

진정한 희생은 태초부터 충실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찰 스 디킨스의 불후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봄 크래켓은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용주인 스크루지에게 말했다. ‘주인님, 괜찮으시다면,’

“‘괜찮지 않아’ 하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건 공정하지 않아. 자네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화 절반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자네에게 야박하게 굴었다고 생각할 걸’, ...

“그러나, 하고 스크루지는 말했다. ‘일 안 해도 하루치 급여를 주면, 내가 야박하게 굴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

“그 점원은 크리스마스가 일 년에 한 번뿐이라고 말했다.

“그건 12월 25일마다 사람의 호주머니 속을 털려는 구차한 변명이지! 라고 스크루지는 말했다.”¹

스크루지와 같이 이기적이거나 “육으로 난 인간”에게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인간은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하여 다른 누구도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일조차 드뭅니다. 육으로 난 인간에게 희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늘 자신의 수입보다 많아서 “충분하게” 갖는다는 것이 구두쇠 스크루지의 경우처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은 모든 것을 쌓아 두거나 아니면 소비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명하게 고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것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수확 후 들에 남은 것이 아닌 첫 수확을 희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신명기 26:2; 모사 이야기 2:3; 모세서 5:5 참조) 진정한 희생은 태초부터 충실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극단

적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부자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할 수 없다고 믿는 궁핍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적게 먹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 요구될 수 없을 만큼 빈곤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너무 가난해서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종종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사용해서 가르칩니다. 사르밧의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는 자비가 공의를 도둑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생을 도둑질할 수 없다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극도의 빈곤 상황에 대한 실례입니다. 사실 희생에 대한 진정한 척도는 희생하기 위해 무엇을 주느냐보다는 오히려 주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있습니다.(마가복음 12:43 참조) 신앙은 찬장이 가득 차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것이 비어 있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분명한 순간에, 위기는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위기는 시험입니다.

사르밧의 미망인은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살았는데, 주님은 엘리야의 말에 따라 3년 6개월간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누가복음 4:25 참조) 기근이 극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미망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열왕기상 17:9) 그 미망인과 아들이 죽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녀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굶어 죽게 된 이 극도의 순간에 찾아 왔습니다.

엘리야는 성으로 들어오면서 미망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봅니다.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10~12절)

가루 한 움큼은 실로 매우 적은 양일 것이며 아마 겨우 한 사람 먹기에 족할 정도인데, 엘리야의 반응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13절)

첫 번째 떡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떡을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도록, 특히 남자들에게 굶주린 미망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이 먼저 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녀의 선택은, 그것을 먹느냐, 아니면 마지막 음식을 희생하고 죽음을 재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음식은 희생할 수 있겠지만, 굶주린 아들의 음식까지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 축복이 온다는 교리를 알았습니다.(이더서 12:6; 교리와 성약 132:5 참조)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엘리야는 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그 곳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먼저 [첫 산물]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이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13~16절)

주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교리를 설명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변명을 없애기 위



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조차 그녀가 가진 두 푼을 바칠 것을 기대하신다면 형편이 좋지 않거나 희생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떠한 감독이나 선교사도 가난한 자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기를 주저하거나 가르칠 신앙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낼 여유가 없어”라는 생각은 “그들은 십일조를 바칠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망인처럼, 가난한 가족이 십일조를 내야 할지 아니면 양식을 사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그 가족은 먼저 십일조를 내야 하며, 감독은 음식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998년 10월에 허리케인 “미치”는 중앙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을 황폐케 했습니다. 고

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 재난의 희생자들에 대해 몹시 염려하셨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모든 것—음식 및 옷과 가정 용품을 잃었습니다. 대관장님은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와 테구시갈파, 그리고 니카라과의 마나과 등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굶주린 미망인에게 준 사랑 많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처럼, 각 도시에서 이 현대의 예언자의 메시지는 희생하고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빈곤한 사람에게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힝클리 대관장님은 배로 실어 온 음식과 옷이 그들을 해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우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염려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인도 주의적 원조가 중요한 만큼, 대관장님은 가장 중요한 도움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대관장님은 말라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들이 하늘의 문을 열도록 돕고 싶어하신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만일 그들이 십일조를 낸다면, 먹을 음식이 항상 있을 것이고, 입을 옷이 항상 있을 것이며, 그들이 거할 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식사를 차릴 때, 식사가 끝나고 음식이 제공된 후에 늦게 온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것보다 식사 초반에 접시를 하나 더 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남는 것'이 충분히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처음 것, 즉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실제로 더 쉽지 않습니까? 잔치를 마련하신 주님께서 먼저 대접 받아야 할 존중 받는 손님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사랑하는 모친 에벌린 로빈스는 제가 네 살 때 십일조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딸깍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는 뚜껑이 달린 양철 반창고 상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일조 동전을 그 안에 보관하여 감독님께 갖다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그 반창고 상자와 십일조를 뽐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해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는 자신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스크루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영이 우리의 삶에서 희생의 법에 더욱 완전히 순종하라고 속삭인다면 오늘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젓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바치셨고, 리하이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셨으며(나파이서 2:7, 9),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구세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그분의 이러한 교리들에 대해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The Annotated Christmas Carol* by Charles Dickens, Michael Patrick Hearn, Avon Books, 1977년 9월, 69쪽.

첫번째 시현의 결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진자들 가운데 구세주에 대한 제 자신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요셉 스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저를 십이사도 정원희의 일원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 부름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특히 제 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손자들은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 저 보통 사람이고 함께 놀아 주시고 우리 머리를 깎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10월 연차 대회를 마친 후, 아내와 저는 자녀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 한 손자가 “우리 너무 멀리 있어 솔트레이크시티에 갈 수가 없었어요. 대회 말씀을 하실 때 손이라도 한 번 흔들어 주셔야 해요.”라고 말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가 있는 오늘까지도 아직 자녀와 손녀녀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저와 아내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고마운 기도와 사랑을 보내 주신 훌륭한 회원 여러분에게도 손을 흔들어 드립니다.

어린 시절 독일에서 성장할 때 저는 여러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초라한 뒷방, 멋진 별장,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현대식 예배당 등 이 모든 건물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한 지부나 와드 가족들이 모일 때 구세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리카우 예배당에는 낮은 풍금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론 신권 소년들은 풍금이 제대로 소리를 내도록 주름관을 작동시키는 뾰뾰한 손잡이를 아래 위로 움직이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기도 전에 가끔씩 이 중요한 일에 지명되는 커다란 특권을 가졌습니다.

회중이 회복에 관한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저는 공기를 충분히 들여 보내 풍금이 소리를 잘 내도록 있는 힘을 다해 펌프질을 했습니다. 반주자의 눈은 제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더 힘을 들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늘 이 임무의 중요성과 반주자의 신뢰를 깊이 느꼈습니다. 책임을 갖고 있고 이 일에서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훌륭한 성취감이었습니다.

이 임무 지명에는 다른 혜택도 있었는데, 주름관을 움직이는 사람은 반주자와 화중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전면을 아름답게 장식한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차색 유리]가 보이는 특별석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요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빛 기둥을 바라보는 첫번째 시현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고 회원들이 말씀과 간증을 하는 동안, 저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을 묘사한 이 그림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눈으로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축복된 도구가 되어 지식과 간증과 신성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창문의 그림에 그려져 있는 장면, 곧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기도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믿음에 찬 소년의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영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소년으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팔마이러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독일의

폐허가 된 도시에서,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 백 년 이상이나 지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성신의 보편적인 권세를 통해 저는 마음과 생각으로 요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돌이 굴러 ...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교리와 성약 65:2) 될 세계적인 움직임을 초래한 이 거룩한 순간이 실재라는 확신으로 어린 나이에 제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제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도와 주신 많은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그들의 간증을 믿는 단순한 신앙을 행사했으며,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으로 영의 거룩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진 자들 가운데 구세주에 대한 제 자신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요셉 스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제게 증거하는 영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 제 어린 마음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친구였고, 당연히 제게도 친구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전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을 사랑하

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교리와 성약 46:9 참조)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니,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46:11~12)

저는 오늘 어린 시절의 제 간증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친구들의 간증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얻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성신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교리와 성약 46:13) 알았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모범과 관심 어린 사랑과 도움의 손길은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갈구하는 제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영의 은사를 받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어 계속하여 충실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교리와 성약 46:14)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값진 은사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참된 것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은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앨마서 32:21 참조)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과 살아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시험하고,

적어도 믿고자 하는 의욕만이라도 갖고 주님의 영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커지고 우리의 이해력은 밝아질 것입니다.(엘마서 32:26~28 참조)

구세주께서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심지어 오늘날 어디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드린 그 위대한 중보의 기도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에 찬 이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0~21)

이것이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 우리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류의 삶을 축복해 주는 방법이며,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요셉의 경우처럼 신성한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며 자신이 “독생자와 닮은”(모세서 1:1~6 참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었다고 간증했습니다.(사도행전 26:9~23 참조) 막강한 아그립바 왕은 가이사랴에서 재판도중 하늘의 시현에 관한 바울의 간증을 듣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사도행전 26:28)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고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을 했습니다. 고대와 현대에 있었던 이 모든 나타나심은 믿는 자들을 모든 의와 소망의 신성한 근원,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불확실과 불안전, 전쟁과 전쟁의



소문, 자연과 개인적인 재해가 가득 찬 시대에도 자비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실 목적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에게로 뻗쳐져 있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영접하[리라].”(니파이삼서 9:14) 이 권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한량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게”(엘마서 26:15)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의 개인적인 간증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예언자 요셉의 개인적인 간증과 첫번째 시현의 실재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깊고 진지한 연구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개인 어느 날 아침”(요셉 스미스서 2:14 참조)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과 그분의 보편적인 속죄에 대한 간증은 위대한 신학적 가치만을 지닌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이 지구의 모든 문화권에서 영광스럽고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이성의 힘으로 이 은사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을 가장 깊게 느끼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그것은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의 길을 따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친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5 참조)

그의 업적과 희생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요 구세주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성신의 권세를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제게 있어 이것들은 참으로 첫번째 시현의 결과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과 그가 시현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물몬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믿는 단순한 신앙으로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간증은 거듭해서 제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저는 참으로 그분이 살아 계시며,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인류의 구세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권세를 통해 저는 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제가 마음과 생각으로 소망하는 것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순수하고 충실하게 그분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그분의 사업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4년 전 연차대회에서 저는 전임 부부 선교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기도는 “성신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배우자가 동반자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것과 같은 일, [즉 결정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 자매님이 그런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연차대회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으며 남편 역시 저를 보았습

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선교사로 나갈 나이가 되거나 곧 될 경우라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축복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그분의 사업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선교사 경험에는 신앙, 희생 및 봉사를 요하며 그것에는 항상 풍성한 축복이 따릅니다.

이 축복을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은 당연히 제가 제시한 “네 가지 이유”, 즉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선교 사업의 때를 찾는 일, 재정 문제를 생각할 것입니다.²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하고 강력한 또 다른 이유인 신앙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³—“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지라.”⁴는 하나님의 권고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추구하는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시지 못하실 것이라. 저들이 신앙을 행하여 보이시지 못하실 것이라. 저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친히 나타내어 보이지도 아니하

[실]”⁵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에 걸쳐 받은 편지와 기록으로부터 이러한 기적적인 축복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다호 출신의 한 겸손한 부부는 주님이 그들을 러시아로 부르셨을 때 신앙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승낙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 직분에 부름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걱정과 신앙으로 이 부름을 받아들이는 했지만,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봉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가 우리가 봉사해야 할 지역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후 어렵게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 아이다호 출신 부부의 인도를 받아 러시아의 어느 작은 지부의 30명의 성도들은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⁶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그분의 자녀들이 수행합니다.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며 …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됩니다”⁷

또 다른 부부는 신앙으로 가족에 대한 걱정을 극복했습니다. 한 충실한 자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세인 어머니는 우리가 떠나는 것을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봉사할 때 가족이 축복 받으리라는 말을 듣고 큰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한 충실한 형제님은 노부모를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비슷한 염려를 나타냈는데 그의 아버지는 “네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로 나와 네 엄마를 이용하지 마라. 그에 대해 기도하고 영의 인도를 따르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라는 부름을 받은 초기의 선교사 세대들에게 주님은 “만일 저들이 마음을 낮추며 … 이 일을 하면 나 주는 저희 가족을 부양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⁸

물론 가족에 대한 염려는 실제적인 것이며



가버이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축복 없이 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며, 전임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희생할 때 그러한 축복들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부는 교회에서 저활동이 된 막내 딸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충실한 아버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딸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 뒤 연차대회 동안에 영은 ‘네가 봉사를 한다면 네 딸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라.’라고 속삭여 주었으며, 우리는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부름을 받고 난 다음주에 딸은 남자 친구와 약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딸의 결혼식을 집에서 가졌습니다. [그런 후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평의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과 요셉 스미스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런 후 나는 가족 개개인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새로운 사위를 포함하여] 딸이들부터 며느리와 막내까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평의회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으며,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는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가 없을 때 그들을 도와 달라는 신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적

절한 경우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신권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충실한 아버지는 그의 가족과 사위가 성령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축복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첫 해가 끝날 즈음 사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딸과 사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가방 안에는 안식일에 입을 정장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으며, 우리가 귀환한 후 사위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년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⁹

이 이야기의 내용이 독특할지도 모르나 그 원리는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¹⁰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적절한 선교 사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¹¹

선교 사업의 기회를 고려함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큰 소망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교사 임지가 생소한 이름의 먼 외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한 적절한 임지는 여러분의 지역이나 스테이크일지도 모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¹² 여러분의 확대 가족과 감독 또는 지부장과 상의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대하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봉사할 수 없다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희생은 선교사들과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 직접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걸쳐 후회하는 마음으로 부담을 가졌거나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선교 사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뢰를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젠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혼 51주년을 보낸 후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고 싶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주님의 위대한 선교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의 소감은 제 자신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우리의 결정은 새로운 활력, 새로운 감정, 새 친구, 새로운 곳,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더 가까워졌으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실질적인 협력을 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영적인 은퇴 대신에 영적으로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은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감독과 지부장에게 목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여러분 각자가 현재 봉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 외에 한 쌍 이상의 부부를 선교사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 목표를 충족시키는 가장 큰 자원은 이미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는 연로한 와드 회원들입니다. 제가 속한 와드에서 영감 받은 감독님은 예비 선교사 부부와 귀환 선교사 부부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희생과 봉사에 대해 간증했을 때 봉사하라는 요청은 참으로 “풍성한 주 축복 넘치도록 응답 받으리”¹³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예비 선교사 부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부부 선교사 반을 마련한 어느 스테이크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신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 봉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고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가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은 세상 도처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 피어날 봉사의 씨앗을 가족 안에 심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저의 부모님의 영향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비 선교사 부부 여러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감독이 여러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십시오. 선교사 봉사에 관한 한, 주님은 우리가 소망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교사 부름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 바로 그 영이 예언자에게 영감을 주어 우리를 그 임무에 부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름은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교육 기구의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부름, 복지 및 인도주의 봉사, 성전, 가족 역사 센터, 선교부 사무실, 교회 사적지에서 일하는 부름, [여러분의]

동포에게 가장 훌륭한 선을 베풀며 [여러분의] 주 되시는 이의 영광을 증진시키[는]¹⁴ 부름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부부는 하와이에서 20 명이 참석하던 작은 지부를 200명의 회원으로 키웠으며 70명의 회원들이 함께 성전에 참여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한 부부는 러시아에서 농부들의 감자 수확량을 정부 농지의 것보다 11배로 늘이도록 도왔습니다. 한 부부는 펜실베이니아에서 60명이 자신들의 가족 역사 기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부부는 가나에서 우물을 파고 정비하여 마을과 난민 수용소의 190,000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활동 결과가 이처럼 눈에 보이든 그렇지 않든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기”¹⁵때문입니다. 부부 선교사들



은 전임 선교사들과 신권 지도자들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힘을 주는 모범입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선교사들과 수많은 부름에서 봉사하면서 수백만의 시간을 들여 이웃에게 공헌하는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중요한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면 봉사 할 날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이며, 부름을 받을 때이며, 희생할 때이며,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나눌 때이며,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핑클리 대관장님께서 “더 많은 부부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¹⁶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진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

을 때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풍성한 경험과 원숙함,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 일어섭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통해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가족에게 베푸신 선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 충실한 형제가 설명했듯이, “아내와 저는 선교 사업을 다섯 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아름다운 자녀 한 명당 한 번씩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우리가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¹⁷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시며 …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¹⁸ 저는 특별히 그분의 속죄의 희생이 그 사랑의 최종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봉사와 희생을 통해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으리니 곧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분의 거룩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¹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부부 선교사: 봉사할 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8쪽.
2.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8쪽 참조.
3. *앨마서* 30:8.
4. *모세서* 6:33.
5. *이터서* 12:12.
6. *모사이아서* 8:18.
7. *교리와 성약* 1:21, 23.
8. *교리와 성약* 118:3.
9. *교리와 성약* 31:1~2, 5.
10. *찬송가* 146장.
11. *요한복음* 12:26.
12. *마태복음* 6:32; *니파이삼서* 13:32.
13. *찬송가* 145장.
14. *교리와 성약* 81:4.
15. *유다서* 1:22.
16. “교회의 감독들에게”,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6월 19일, 27.
17. *요한복음* 3:16.
18. *니파이서* 26:24.
19. *교리와 성약* 98:13.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신권은 ...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독특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의 70년 전, 당시 교회 대관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하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부대관장님은 연차대회에 참석한 회중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각자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해 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신성한 권능 ... 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¹

물론 그 신성한 권능은 거룩한 신권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신권은 신성한 권능의 위임이며 지상의 모든 다른 권능 및 권세와는 다릅니다 ... 신권은 죽음의 장막 저편까지 도달하는 지상의 유일한 권세입니다 ... 신권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권능이 없이, 그저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² 4주 전에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영적 모임에서 BYU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교회의 모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관리합니다. 신권의 열쇠와 권능이 없으면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³

저는 오늘 밤 단지 한 가지 사항, 즉 하나님의 신권은 그 열쇠, 의식, 신성한 기원, 그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그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독특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고, 신권이 없으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역설하기 위해(다른 많은 인용문도 덧붙일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의 간단한 인용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탄생 200주년과 교회 조직 175주년을 경축하는 이 기념비적인 해에 저는 거룩한 신권, 즉 이 신성한 특권, 이 최고의 은사, 장막의 양편에서 우리 삶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신권의 회복에 대해 저의 간증을 더하고 영원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시간과 영원을 연결하는 신권의 필수 기능이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교회를 조직하셨을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⁴ 옛세 후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으며 그 곳에서 그들 앞에서 영광 중에 변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적어도 모세와 엘리야를 포함하여 그 이전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또한 영광 중에 나타나 각자가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열쇠와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사도들은 곧 죽임을 당하거나 지상에서 사라졌으며 그들이 지녔던 신권 열쇠도 함께 사라졌고, 그 결과 1,400년 이상 세상에는 신권의 상실과 신성한 권능의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경축하는 현대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의 일부는 우리 시대에 그 하늘 사자들이 돌아왔다는 것과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그들이 지니고 있던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1829년 5월에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요셉 스미스는 침례에 관한 성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그 일을 논의했으며, 그 두 사람은 그 일에 관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침례와 성령의 은사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온 영혼을 다해 열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 우리는 부지런히 ...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그것으로 집행할 권세를 구했습니다.”⁶

그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침례 요한이 와서, 오늘 밤 이 청중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아론 신권의 열쇠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직분의 열쇠를 포함하여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와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능선은 끊임 없이 이어져 하늘에서 이 비할 데 없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오신 하늘 사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안의 개인들과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신권의 축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앞서 교회 역사에서 커틀랜드 시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836년과 1837년은 새로 시작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참으로 힘든 때였습니다. 그 같은 압박 가운데서도 요셉 스미스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몇 명(궁극적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전원을 해외로 선교 사업을 하러

곳에 하늘의 다른 사자들이 왔는지는 모르나, 그 옛날 변형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에 버금가는 사건이 1836년 4월 3일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구세주께서 친히,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일라이어스가 영광 중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각기 해당 경륜의 시대의 열쇠와 권세를 이 두 사람 위에 부여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계시가 쏟아져 내리는 “커틀랜드 폭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은 이런 우레 같은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⁷

예언자 요셉이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는 말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신앙개조에 포함시킨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⁸ 신성한 권능으로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단순한 사회적 계약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신성한 권능은 신학 교육이나 회중의 위임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인 받은 사업에는 예배당이나 거리에서 또는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지녔던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직한 종교 탐구자들은 이미 이 사실

을 알고 있었으며 회복을 이끄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성직자가 특별히 신성한 권능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성결케 된 신권을 간절히 바랐으며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좌절했습니다.⁹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 스미스를 통한 신권 권능의 회복은 그 유명한 찰스 웨슬리가 용기 있게 말한 것을 느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지니고 있던 변민을 털어주었을 것입니다. 성임하는 권능 없이 성임을 하겠다는 결정으로 더 유명하게 된 형 존과 함께 교회법을 어기게 된 찰스는 웃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변덕으로
주교 되기가 참 쉽구나.
웨슬리는 코크에게 안수했지만,
누가 웨슬리를 안수했는가?¹⁰*

그 같은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와드에서 가장 최근에 성임된 집사와 그를 감리하는 감독과 우리 모두를 감리하시는 예언자께서 행사하신 신권의 권능선을 추적해

보내라는 놀랄 만한 예언적 속삭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대담하고 영감적인 조치로서, 결국은 교회를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하게 되었지만, 근시안적으로 보면 성도들에게 커다란 짐이었으며,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고, 아마도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로버트 비 톰슨 장로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장로들이 영국으로 떠나기로 정해진 날이 다가오자 나는 그가 언제 [여행을] 떠날지를 알아보기 위해 [히버 시] 킴볼 형제의 집에 [들렀다]. 나는 그 계절에 캐나다에서 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3~4킬로미터를 동행하고 싶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간 나는 눈 앞에 나타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괜히 들어왔다 싶어 다시 나가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킴볼 형제는 ‘참새를 돌보고 어린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달라며 ...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축복사처럼 자신의 직분의 권능으로 개별적으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축복을 그들 위에 남



기고 ... 그가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에 맡겼다. [그러한 축복을] 하는 동안 그의 음성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흐느낌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다 ... 그는 계속 축복을 했으나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따금 중단해야 했는데 그러는 동안 ... 가슴 속을 지배하는 감정의 표시로 커다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마음은 울음을 참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울었다. 동시에 나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는 특권을 가진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¹¹

그 광경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두려움, 궁핍, 부름, 위험, 질병, 사고, 죽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천, 수만 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러한 순간들에 참여적이 있습니다. 저의 집에서 그리고 저의 봉사에서 저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악이 징계를 받고 모든 요소들이 통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산이 어렵

게 옮겨지고 험악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멸망의 천사가 “저들을 지나치느라”¹²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의¹³ 권능을 받고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제가 이 세상에서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권의 의미를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비할 데 없고, 무궁하며, 변치 않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저는 이 기념적인 해에 여러분과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로 구성된 합창대에 함께 하여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부릅니다.¹⁴ 그는 여호와 뿐 아니라 아담, 가브리엘, 모세와 모로나이, 엘리야, 일라이어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침례 요한, 그리고 다른 허다한 이들과도 대화했습니다.¹⁵ 참으로 “예수[께서는 그를] 기쁨부어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¹⁶ 나이에 관계없이 소년과 성인,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가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신권,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수단인 신권 열쇠와 의식을 소중히 하기를 기원합니다.¹⁷ 저는 신권의 회복 그리고 하

나님의 참된 교회의 필수적이며 “두드러진 특징”으로 항상 존재해 온 이 특징에 대해 신권을 지니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주

1. Conference Report, 1937년 4월, 121쪽.
2. “Priesthood Restoration”, *Ensign*, 1988년 10월호, 71쪽.
3. “Where Is the Church?”,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말씀, 2005년 3월1일, 8쪽.
4. 마태복음 16:19.
5. 마태복음 17:1~3 참조.
6. Richard Lloyd Anderson, “The Second Witness of Priesthood Restoration”, *Improvement Era*, 1968년 9월호, 20쪽에서 인용.
7. 교리와 성약 110:16; 또한 1~15절 참조.
8. 신앙개조 제5조.
9. David F. Holland, “Priest, Pastor, Power”, *Insight*, 1997년 가을호, 15~22쪽. 회복의 시대에 미국에서 제기된 신권 문제의 자세한 조사에 대한 자료.
10. C. Beaufort Moss, *The Divisions of Christendom: A Retrospect*, 22쪽에서 인용.
11. Orson F. Whitney, *The Life of Heber C. Kimball*(1945), 108~109쪽에서 인용.
12. 교리와 성약 89:21.
13. 교리와 성약 107:1~3 참조.
14. 찬송가, 18장.
15. 요셉 스미스는 장막 저편에서 온 많은 예언자 및 사자들과 교통을 했다. 경전에는 그들 중 몇 명만이 언급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128:20~21 참조.
16. 찬송가, 18장.
17.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닐 엘 앤더슨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구세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워갈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가장 훌륭한 세대”로 묘사하신 청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미덕을 봅니다. 제 말씀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구합니다.

저의 좋은 친구인 어느 충실한 말일성도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곧 이해하게 될 이유로 인해 그를 “제 친

구”로만 언급하겠습니다.

미연방수사국 특수요원으로서 일하는 제 친구는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수송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수사했습니다.

한번은 제 친구와 동료 요원이 마약 밀매자로 알려진 사람이 코카인을 배급하고 있다고 믿었던 한 아파트에 접근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약 밀매자의 문을 두드렸네. 그 용의자가 문을 열고 우리를 보더니 우리 시야를 가리려고 하더군. 하지만 이미 늦었지. 우리 탁자 위에 있는 코카인을 볼 수 있었네.

“탁자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즉시 코카인을 치우기 시작했네. 우리는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을 막아야 했지. 그래서 나는 문을 막고 서 있는 마약 용의자를 재빨리 옆으로 밀쳐냈네. 그를 밀 때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화가 나거나 두려워 하지 않았네. 그는 내게 미소를 지었지.

“그의 눈과 애교 섞인 미소는 악의가 없다는 인상을 주었네. 그래서 재빨리 그를 두고 탁자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네. 용의자는 내 뒤에 있었지.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뚜렷하고

강력한 느낌이 들었네.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나는 바로 그 용의자 쪽을 돌아 보았네. 그의 손이 커다란 앞 호주머니안에 있었지. 난 본능적으로 호주머니에서 그의 손을 잡아 빼냈네. 그 때 난 발사 준비가 되어 있는 반자동 권총이 그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네.”²

훗날 또 다른 상황에서 그 마약 밀매업자는 살인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는 제 친구가 바로 그 때 뒤돌아보지 않았더라면 그도 죽었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저는 종종 제 친구의 마음에 떠오른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은 악마에게서 옵니다.³ 하지만 그것들이 세상에서 서로 싸우는 힘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의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이 지구와 수많은 다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부활하셨으며 온전하십니다.⁴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반면에 악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합니다.⁵ “[그는]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한 지경에”⁶ 이르러 이제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⁷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패자입니다.⁸

구세주의 권세와 악마의 권세는 참으로 비교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⁹ 하지만 악은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도록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¹⁰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은 지상에서 우리의 경험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살피볼 때,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친구들이 있



는지 없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웃고, 재미있게 보내며, 춤추고, 노래하며, 많은 다른 경험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훌륭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¹¹ 악 대신 선을 택하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이 곳에 있는 이유입니다.¹²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악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를 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악은 미소 짓는 눈 뒤에 자주 숨어 있기 때문에 악 대신 선을 택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고를 들으십시오.

“간악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¹³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¹⁴

“사탄도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힘써 속이려 하였느니라.”¹⁵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저는 몇몇 청년이 구세주께 충심으로 굳게

머물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으나 그다지 해롭게 보이지 않는, 눈 뒤에 숨은 악을 보지 못해 길을 벗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미, 즐거움, 환영을 보았지만 그밖의 다른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으로 보이지 않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겠지만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심한 생각으로 들립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의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이 의를 선택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예언자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이 열다섯 분은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성한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히틀리 대관장님은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에 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¹⁶ 여러분은 영감 받은 지도서인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¹⁷ 라는 소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틀리 대관장님의 조언을 적용할 때 주님께서는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실!”¹⁸ 것이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볼 것이며, 그 매력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성신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할 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¹⁹ 여러분은 이 영향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²⁰

성신의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며, 예민하여 합당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성신을 거스르거나 무시하고서는 그 다음 날에는 성신이 여러분을 강화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의롭게 행한다면 성신은 여러분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성신은 제 친구에게 육체적인 위협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 성신이 영적인 위협을 여러분에게도 경고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얻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따로 내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 지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희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요셉 스미스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밤에 성경을 읽기 위해 초에 불을 붙인 것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숲에 들어 갔을 때 그는 혼자 갔습니다.²¹

우리가 구세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워갈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²²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 그분의 위엄과 장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보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주

1. "선택된 세대",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9쪽.
2. 개인 서한, 2005년 3월 7일.
3. 모로나이서 7:12 참조.
4. 누가복음 24:36~39; 요한복음 1:14; 니파이삼서 12:48; 교리와 성약 76:23~24 참조.
5. 모로나이서 7:17.
6. 니파이서 2:18.
7. 니파이서 2:27.
8. 교리와 성약 93:25 참조; 또한 Bible Dictionary, "Devil", 656쪽 참조.
9. 모세서 1:1~22 참조.
10. 니파이서 2:16.
11.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야호나, 2001년 4월호, 30쪽;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쪽;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49쪽.
12. 니파이서 2:27 참조.
13. 모로나이서 7:14 참조.
14. 니파이삼서 18:18.
15. 교리와 성약 50:3.
16. 리야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참조.
17. www.lds.org 참조. "Serving in the Church", "Aaronic Priesthood/Young Men", "For the Strength of Youth"를 클릭한다.
18. 교리와 성약 21:6.
19. 교리와 성약 8:2 참조.
20. 교리와 성약 18:36 참조.
21. 요셉 스미스서 2:11~20 참조.
22. 모세서 1:1~22 참조.

누가 주의 편이냐?

로버트 시 옥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봉사를 일깨워 주는, 제가 애창하는 찬송가, "누가 주의 편이냐 지금 보일 때"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영문 찬송가, 260장)

때가 찬 이 경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사탄의 세력과 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때, 매우 중요한 점은 누가 주의 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신권 소유자가 주님의 군대의 대열에 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헤아려질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는 약 3백만 명의 신권 소유자가 있으며, 아론 신

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반반입니다.

불행히도 이 중 많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 청소년들이 실종, 무단 결근 또는 무단 이탈과 같은 상태입니다. 한때 그들도 각자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신권을 부여해 주는 동안 겸손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날 그들은 모두 주님께 순종과 봉사의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 성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권이란 무엇인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민첩한 모든 집사는 신권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 교사, 제사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여러분은 성찬 전달, 준비 및 축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록에 따르면 최초로 성찬식을 집행한 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저녁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신 뒤,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때 우리는 실제로 구세주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 나는 ...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



신권 대회를 시청하기 위해 멕시코의 한 집회소에 모인 아버지들과 아들들

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3:1)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형제들에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가진 우리는 분명 주의 편에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리와 성약 84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19절) 이 신권은 관리하고 인도하며, 축복하고 병을 고치며, 가르치고 인봉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신권을 행사하는 형제들은 이런 신권 봉사 활동을 통해 분명히 주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신권의 인봉하는 권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한 가지 예는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느니라 …”(힐라맨서 10:7) 인봉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니파이는 어느 시대에서도 주님의 군대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가득 채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에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권세의 일부를 나누어 갖고 그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신뢰의 행동입니까!

신권의 권능을 부여하는 방법에 관해 우리가 얼마나 자세한 가르침을 받았는지 유의하십시오. 제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제 부친(찰스 옥스)과 조지 콜라드 감독님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한 다음 저를 집사에 성임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당시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하늘에서 주신 똑같은 절차를 통해 저를 칠십인에 성임했습니다. 성임될 때마다 주의 편에서 봉사하는 새로운 기회와 신성한 신뢰를 더욱 더 받습니다.

군대가 조직되면 일반적으로 넓은 전장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이 전쟁은 사뭇 다릅니다. 싸움은 각자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며, 주님의 군대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육욕적인 사탄의 세력과 맞섭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 강건한 힐라맨의 2,060명의 젊은 용사들은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커다란 신체적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결의에 찬 모든 영혼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앤드류라는 열한 살 된 손자가 있는데, 아마 평생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가을이면 집사에 성임되어 주님의 신권 군대에 입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싸움터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창이나 검이 아닌 선택이라는 무기이기 때문에, 앤드류의 신체적 결함은 이 전쟁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무기는 진리, 의로움, 신앙, 기도 및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에베소서 6:13~18 참조) 우리는 이 무기들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 이유로 앤드류는 이 전쟁에서 아무런 결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앤드류를



잘 가르쳤습니다. 앤드류는 신권 형제들의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릎 쓴 상의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바로 그 영혼이며 그들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들 영혼은 덕성과 깨끗함, 자비와 봉사, 신앙과 소망에 따라 싸움에서 이기거나 패할 것입니다.

앤드류는 와드에서 집사 정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회는 그에게 성찬을 전달하고 금식 헌물을 수집하는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신권 정원회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앤드류를 돌볼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주님의 신권 군대가 정원회로 조직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일생의 대부분을 미 공군 조종사로 보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비행 중대의 동료들은 거의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굳게 단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기 조종사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규칙의 하나는 “동료 조종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기가 그의 뒤를 노리지 않는지 끊임없이 6시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 중대에서 동료를 보호하는 것이 훌륭한 권고라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굳건히 서려고 노력할 때 정원회 회원과 가까이하며 그를 보호하는 것은 훌륭한 권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 열의를 갖고 나아가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주님의 편에 굳게 선다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정규적으로 지금이 말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적으로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압니다. 사탄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군대는 결코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세계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핑클리 대관장님께서는 세상의 부도덕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시며 “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지금보다 더 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도시들과 거주자들은 멸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상황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이 세상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멋대로 행하는 그분의 아들 딸들을 보시며 울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강하고 굳건하게 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저는 우리의 예언자가 얼마나 많은 말을 더 해야 우리가 경고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으며 빈도와 강도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 우리의 힘으로는 재림의 사실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정확한 시기도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준비를 강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비해 세상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9쪽)

이 경고의 말씀들은 전례 없는 허리케인이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하고 해일의 참상이 동아시아에 있기 얼마 전에 주어졌습니다.

찬송가, “누가 주의 편이냐”는 “지금도 보일 때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로나이 장군처럼 신앙과 원리 위에 굳건히 설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집사, 교사, 제사, 감독, 장로, 대제사 및 축복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감사를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지금은 순결의 법과 십일조의 법, 지혜의 말씀 및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은 이웃과 복음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지금은 품위와 겸소의 모범, 덕성과 깨끗함의 모범을 세상에 보일 때입니다. 부패하고 파괴적인 더러움과 외설물의 구덩이에서 버둥거리며 신권의 권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받을 때 맺은 성약,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살피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편에 있는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살아 계신 예언자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님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지상에 돌아오실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각자가 그분 앞에 서서 생각과 행위와 마음의 소망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인내심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인내는 하는 일이 힘들어질 때 계속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오늘 오후 칠십인 제일 및 제이 정 원회에 부름 받고 지지 받으신 형제님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신앙과 능력과 각오가 남다른 분들이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이런 직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전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위대한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충실함과 헌신을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아론 신권을 지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의 유일하게 확고한 목표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부름이

왔을 때 저는 봉사했으며, 선교 사업은 제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다른 것을 인도하는 북극 성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교회 부름에서 충실하게 인내할 경우, 주님은 길을 열어 주시고 제 꿈 이상으로 다른 기회와 축복을 통해 저를 인도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청소년에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선교사로서 그가 인내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경험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으로 기회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몇 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1. 시간을 현명하게 계획하고 사용하는 방법
2.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3. 지도력의 기술
4. 대인 관계 기술
5. 복음 공부의 가치
6. 권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존경심
7. 기도의 중요성
8. 겸손과 주님께 의지함

1930년대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레 나이트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제게는 운동, 연극, 음악 및 웅변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진하여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인내하지 못하여 가능성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학교에

서 눈에 잘 띄지 않던 몇몇 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 뛰어난 의사, 엔지니어, 교육자, 법조인, 과학자, 사업가, 예술가, 전기 기술자, 배관공 및 실업가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대개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인내하고 낙담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저명한 뉴스 분석가요 저자인 폴 하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²

인내에 대해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은, 프랑스 물리학자인 남편 피에르 퀴리와 공동으로, “날고 비가 새는 버려진 창고에서 자금도 없고 외부의 격려나 도움도 없이 역청 우라늄 광이라 불리는 저준위 우라늄 광석에서 라듐을 분리하려고 노력한” 마리 퀴리 부인입니다. “487번째 실험에 실패했을 때, 피에르는 절망하여 포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야. 앞으로 백 년쯤 지나면 모를까 지금은 결코 안 될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단호한 얼굴로 쳐다보며 ‘백 년이 걸린다면, 애석한 일이겠지만, 저는 살아 있는 한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³ 결국 그녀는 성공했으며, 암환자들은 그녀의 인내를 통해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인내는 하는 일이 힘들어질 때 계속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1864년에 대관장단은 사도인 에스라 티 벤슨과 로렌조 스노우를 앨마 스미스 장로 및 윌리엄 더블류 클러프 장로와 함께 하와이로 선교 사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호놀룰루에서 작은 배를 타고 라하이나라고 하는 작은 항구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항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파도가 높이 일어 큰 물결이 배에 부딪힘으로써 배를 약 46미터 가량 밀어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탄 배는 두 개의 큰 파도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두 번째 물결이 밀려왔



을 때, 배는 거품이 이는 바다 속으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명 보트를 타고 가, 전복된 배 근처로 헤엄쳐 가고 있던 형제들 중 세 사람을 건져 냈습니다. 그러나 스노우 형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익숙한 하와이 주민들이 수영을 하면서 사방으로 그를 찾아 다녔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물 밑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느꼈고 스노우 형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몸은 굳어 있었으며, 배로 끌어올렸을 때 그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미스 장로와 클리프 장로는 스노우 형제의 몸을 그들의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조용히 축복을 하면서 그가 살아나 가족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도착하여 스노우 형제를 바닷가에 있던 커다란 빈 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통 아래로 향하도록 누인 다음, 통을 이리저리 굴러 먹은 물을 토하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한동안 그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나서도 살아날 기미가 없자, 곁에 섰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에 찬 장로들은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조용한 확신을 갖

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스노우 형제의 입에다 그의 입을 대고 폐를 팽창시키려는 노력으로 공기를 불어넣은 뒤 그것을 빼내면서, 자연스럽게 호흡 과정을 흉내 내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폐를 부풀리려는 일이 성공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생명이 돌아오는 희미한 징후를 보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눈을 뜬 채 죽은 것 같던 그가 눈을 조금 깜빡였으며, 목에서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생명이 되 돌아온다는 첫 징조였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확실해졌으며 그러다가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자비로운 섭리의 미소로 네 명의 주님의 종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고 선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⁴ 스노우 장로는 그 후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그 직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회원들에게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권유하여 교회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엘마 스미스가 혼즈 밀에서 엉덩이에 총을 맞아 관절과 관절 마디가 부러졌던 그 소년이라는 것을 알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의 모친은 발삼 수지로 그 끔찍한 상처를 덮었으며 그런 다음 그를 5주 동안 엎드려 있게 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

다. 관절과 관절 마디가 없어진 자리에 연골이 자라나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도 하고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⁵

말일의 예언자들은 모두 신권과 기도와 일을 통해 결의를 나타내 보인 모범들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인내는 만유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첫번째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하던 때부터 유력한 종교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그는 평생토록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확고한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⁶

브리감 영의 생애 역시 인내심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늘 충실하고 단호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뒤, 그는 6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편만한 가정과 비옥한 땅에서 메마른 광야로 인도할 과감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대이주는 현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장마차로, 도보로, 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황무지를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했습니다.

1995년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대관장으로서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셨던 분들이 더욱 크게 이루셨던 위대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아가자는 것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⁷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주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이 재임 중 이루신 커다란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놀라운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분이 대관장이 되신 이래로 87개의 성전이 헌납 또는 재헌납되었거나 발표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보여진 이 놀라운 업적은 전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성전들은 위대한 선한 영향을 주어 왔으며 계속해서 세상을 크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조지 큐 캐논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에 놓여진 모든 초석과 주님께서 거룩한 성신권을 위해 계시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진 모든 성전은 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증가시키며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위해 하늘을 움직임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면전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불러 옵니다.”⁸

우리는 모두 삶이 끝날 때까지 신권 부름에서 충실하고 근면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복음 교사를 얼마 동안이나 해야 합니까?”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신권 부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라는 부름에서 봉사하는 것은 감독과 신권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저명한 변호사이며 감독, 스테이크장과 축복사로 봉사했던 조지 엘 넬슨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백 살에도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 복음 교사가 좋습니다. 항상 가정 복음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⁹ 그는 101세에 별세했으며,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섬길 결심을 나타내어라”¹⁰ 한다는 요구를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94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생의 끝까지 견디며 내세에서 충실한 성도들과 우정을 누릴 수 있기를 고대해 왔습니다.”¹¹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계속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¹² 주님은 교회 회원들의 충실함과 인내로 인해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와 그 회원들을 축복해오셨습니다. 거룩한 신권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주

1. Dan Kartchner와의 개인적 대화.
2.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134쪽에서 인용.
3. 스티어링 더블류 실, *Conference Report*, 1974년 10월, 86쪽; 또는 *Ensign*, 1974년 11월호, 62쪽.
4. 엘리자 알 스노우,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1884), 276~281쪽

참조.

5. “Amanda Smith”, Andrew Jensen 편, *Historical Record*, 9 vols.(1882~1890), 5:83~88 참조.
6. 요셉 스미스서 2:25.
7. 제프리 알 홀랜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굳세고 용감하게 서 계십니다”. *성도의 빛*, 1995년 6월호 특별 부록, 2쪽에서 인용.
8. “로건 성전”, *Millennial Star*, 1877년 11월12일, 743쪽.
9. Elinor G. Hyde, 처치 뉴스 기고자, “At 100 Years Old, He’s Faithful Home Teacher”, *Church News*, 1998년 6월 6일, 7쪽.
10. 교리와 성약 20:37.
11. Joseph Fielding Smith, *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92쪽; 또는 *Improvement Era*, 1970년 12월호, 27쪽.
12. 요한복음 8:31 참조.

봉사, 신성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행복과 평안을 느낍니다.



저 역시 이 대회에서 새로운 직분에 부름 받으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동안의 봉사로부터 명예롭게 해임되신 분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업은 전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에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형제들로 가득찬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주님의 영이 저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저의 말씀에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거룩한 신권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한 권능입니다 … 그것은 신성하여 사람들은 이를 거룩하게 지녀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지니든 간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¹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것은 충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우리가 받는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선언입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장래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지금 이 곳에서 준비를 하라는 선언입니다.

과거 대관장단에 계셨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그가 받은 이 맹세와 성약에 함축된 의미에 부지런하고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실망과 슬픔과 고통이 따릅니다.”²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계명을 어김으로써 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신권 성약은 깨집니다. 따라서 이 성약을 깨고자 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³

한 저명한 성직자는 “남자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업을 위해 헌신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 할 수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전에는 결코 그 의무를 합당하게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행복과 평안을 느낍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잠자다가 삶이 기쁨이라는 꿈을 꾸었지
깨어나 보니 삶은 의무였어
행하고 보니
의무가 곧 기쁨이었네⁵

의무라는 부름은 신권을 지닌 우리가 지명 받은 임무에 응할 때 조용히 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유능한 지도자였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이고, 성신권의 권세와 힘으로써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따르도록 이웃 앞에서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의무입니다.”⁶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위엄 있고 중요하게 부름을 수행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존중하고 훌륭하게 여기며, 확대하고 강화하며, 부름을 통해 하늘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단 순히 그것과 관련된 봉사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로는 장로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운 다음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장로의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장로의 경우처럼, 집사, 교사, 제사, 감독 등 신권 직분을 지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자 저술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즐거움인지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베냐민 왕의 권고를 기억합시다.⁷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어 그들을 보다 높은 곳과 더 좋은 길로 들어올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활동의 길

로부터 떨어진 신권 소유자와 그들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무언의 메시지에 귀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⁸

재활동은 게으른 사람이나 공상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자라고, 부모는 늙어가고, 시간은 어느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속삭임에 따라 행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종종 인내라는 훌륭한 덕성이 필요합니다. 감독이었을 때, 저는 어느 날 한 형제를 방문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은 다소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날, 저는 해롤드 지 갈라처 형제의 집 칸막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 갈라처 형제가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독입니다. 인사 좀 드리고 가족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난 많이 바빠요.” 하고 무시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말을 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갈라처 가족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비서가 전화로 “전에 장로님의



와드에 사셨던 갈라처 형제님이 뵈고 싶어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 템플 피프스 사우스의 비싱 플레이스에 살던 해롤드 지 갈라처 형제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그분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비서에게 들어오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에 관해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오래 전 그 여름 날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문간에 계시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회에서 활동적인지를 물었습니다. 웃으

면서 그는 “와드 감독단 보좌로 있습니다. 교회로 오라는 장로님의 권고와 저의 부정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는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라처 부부와 그 자녀들은 교회에서 많은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보좌로 봉사한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은 “신권은 통상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간단히 정의됩니다.”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볼 때 저는 신권을 봉사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종종 ‘완전한 봉사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봉사의 도구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 명백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⁹

지난 1월에 저는 오래 전 제가 감독이었을 때 우리 와드에 살았던 한 자매의 삶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목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성함은 애덜리였는데 그분과 장성한 두 딸은 솔트레이크 밸리의 로즈 파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며, 딸 하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제 미망인이 된 애덜리 자매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생활은 종종 어려웠습니다.

저는 진저브레드 하우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자원 봉사자로 일하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기업체에서 기증한 자재로 3일 밤낮에 걸쳐 새로 고친 애덜리 자매님의 집에 한 번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애덜리 자매님의 집이 개조되고 있는 동안 애덜리 자매님과 두 딸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에서 접대를 받았고 그 곳에서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애덜리 자매님과 두 딸을 태운 멋진 승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도 그 곳에 있었습니



다. 그들을 기다리던 사람들 속에는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이 일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기능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낸 일을 즐거워했으며, 애덜리 자매님과 두 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고 애덜리 자매님과 딸들이 돌아서서 새로운 집을 보았을 때 얼마나 흥분된 순간이었겠습니까! 건물 전면이 재설계되고 집이 확장되고 지붕이 새로워진 것을 포함해 이제 막 끝난 엄청난 공사를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외관은 새롭고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덜리 자매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으며 주위가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마루는 교체되었습니다. 새 가구, 새 커튼, 새 휘장이 있었습니다. 주방의 찬장도 바뀌었습니다. 조리대와 주방기구도 새 것이었습니다. 지붕부터 바닥까지 온 집이 새로워졌고 모든 방이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

름다웠습니다. 애덜리 자매와 딸들은 정말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집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들의 얼굴에도 몽클하고 감동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애덜리 자매와 그 딸들에게 가져다준 기쁨을 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미망인의 짐이 더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위대한 교사 중 한 분이신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신권에 관해 이해하기 쉬운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신권 소유자가 될 때 그는 주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는 마치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름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아십시오”¹⁰

성격상 수줍음을 타거나 부름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이나 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격적적인 교실이 딱딱하게 느껴지듯이 가장 효과적인 일부 가르침은 예배당이나 공과 교실 밖에서 일어납니다. 오래 전 어느 봄, 우리 와드와 이웃 와드에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아론 신권 회복을 기념하는 연례 소풍을 고대하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특별 행사에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150킬로미터 떨어진 유타 주 클라스턴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주변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물몬경의 세 목격자 중의 하나인 마틴 해리스의 무덤 주위로 청소년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의 무덤을 표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암 묘비 주위를 둘러싸는 동안, 당시 다른 와드의 감독이었던 글렌 엘 러드 장로가 마틴 해리스의 일생에 대해 설명을 하고, 물몬경에서 그의 간증과 올리버 카우드리 및 데이비드 휘트머의 간증을 읽어 주었습니다. 청남들은

한때 천사를 보았으며 직접 눈으로 금판을 보았던 사람의 무덤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귀 기울여 집중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표시하고 있는 화강암 비석을 만지고는 그들이 들었던 말씀과 그들이 가졌던 느낌에 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개척자의 무덤까지 걸었습니다. 묘비에는 존 피 말름버그라는 이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온 빛은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하던 음성도 사라졌네
우리 마음에 한 곳이 비었으니
결코 채워질 수 없네

우리는 소년들과 함께 희생에 관해, 진리에 대한 헌신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무, 명예, 봉사, 사랑, 이 모든 것을 그 묘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마음에 감동과 결심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각 청소년이 개척자, 즉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올 길을 보이며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함께 그 지역의 공원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아름다운 로건 성전 경내에 멈추었습니다.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년들에게 넓은 잔디밭에 쪽 뺨고 누워서 잔잔히 부는 바람을 따라 소용돌이치며 급히 흘러가는 하얀 구름이 드리운 파란 하늘을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엄하고 오래된 성전의 아름다움에 경탄했습니다. 신성한 의식과 영원한 성약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교훈을 배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약과 약속이 말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겠다는 소망이 소년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주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분의 권유가 느껴



지고, 들렸습니다.

봉사하라는 신성한 명령에 쾌히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¹¹

우리 모두가 이런 신성한 약속을 받을 자격을 지닐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Gospel Doctrine*, 5th ed.(1939), 140.
2. 대회 보고에서, 멕시코 멕시코 시티 지역 대회, 1972년, 73쪽.
3.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1982년), 497쪽.
4. Harry Emerson Fosdick, in *Vital Quotations*, comp. Emerson Roy West(1968), 38.
5. Rabindranath Tagore,(1861~1941)
6. 대회 보고, 1942년 4월 14일.
7. 모사이야서 2:17.
8. Naomi W Randall,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9. Conference Report, 1937년 4월, 46쪽.
10. Conference Report, 멕시코 멕시코 시티 지역 대회, 1972년, 77쪽.
11. 교리와 성약 76:5~6.

도박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포커 게임이나 어떤 형태의 도박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해 보았다면 그만둘 수 있는 지금 중단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해진 말씀을 지지하고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새로이 칠십인 정치회의 회원으로 지지 받은 분들에 관해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본부 역원으로 봉사하기에 합당하고 능력을 갖춘 형제들이 문자 그대로 수백 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런 분들을 봅니다. 오늘 지지 받은 분들은 특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름에는 희생이 따를 것이고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치러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지 받은 분들 가운데는 63세 된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할 권리를 지닌 다른 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친족 등용에 아주

민감합니다. 변호사들의 말처럼, 제 자신이 참여하는 것조차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아버지도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족 등용에 관해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와의 관계로 인해 제 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밤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제게 온 수많은 요청에 따라 우리 가운데서,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점점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어떤 관행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 형태의 도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한 때 미국 대통령이었으며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켈빈 쿨리지가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에게 목사가 무엇에 관해 설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죄에 관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라고 그녀가 묻자, 그는 “죄에 반대한대.”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도박은 거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또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커를 합니다. 경마와 개 경주에도 돈을 겁니다. 룰렛을 하고 슬롯 머신을 하기도 합니다. 주점, 술집, 카지노에 모여 도박을 하고, 너무나 자주 집에서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질 못합니다. 그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파괴적인 습관과 관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관련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돈을 덜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아내와 자녀에게서 재정적인 안정을 빼앗아 갑니다.

포커 게임은 대학과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뉴스 서비스에 있는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샌드버그는 친구들과 함께 몇 년 전부터 동전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가을에 그것은 수십만 달러를 버는 수입원이 되었으며, 법과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그는 말한다.

“22세인 샌드버그는 프린스턴 대학 4학년으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애들 랜틱시티로 가서 거액의 포커를 한다. ...

“샌드버그는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일고 있는 도박 열풍의 극단적인 한 예일 뿐이다. 샌드버그는 포커 대회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가 하면 온라인 포커 게임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확산되는 등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캠퍼스 내의 도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지난 12월에 컬럼비아 대학교 여학생 동아리는 최저 참가 금액을 10달러로 하여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포커 토너먼트를 실시한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10월에 175명이 참가하는 제1회 토너먼트를 실시했다. 두 게임 모두 참가자가 정원을 넘어 대기자 명단까지 갖고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는 매일 밤마다 캠퍼스 이 메일 명단에 사설 게임이 광고되고 있다.”(Jonathan Cheng, “Poker Is Major College Craze”, *Deseret Morning News*, 2005년 3월 14일, A2쪽)

이 곳 유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아홉 살 된 제 아들은 인터넷에서 포커



를 하는데, 게임 관계자는 이용자가 성인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이란 은행 구좌에 돈만 있으면 됩니다. 아들은 근 1년 동안 계속 포커를 해 왔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포커에 중독되어 하던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포커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있고, 돈을 딸 경우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삽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그저 앉아서 인터넷을 하는 일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여러 형태의 복권이나 도박이 불법인 유일한 두 곳은 유타와 하와이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면, 우리의 일부 젊은이들이 포커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로소득의 맛을 알아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주로 여행을 합니다.

한 작가는 제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최근 이 악이 너무나 많이 생활 속으로 파고 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TV를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ESPN 방송은 소위 유명인사 포커와 국내 포커 챔피언십이라는 것을 방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한 명이 제

남편에게 참가비를 내고 지역 포커 대회에 등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남편 친구는 ‘그건 도박이 아냐. 자네 돈은 이렇게 한 군데 모이고 경기에 이기는 사람이 그것을 다 갖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박 아닙니까? 물론 도박입니다. 도박이란 간단히 말해 돈을 받고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주 당국에서는 대규모 복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것은 거의 어디서나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어느 대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권의 열기는 최근에 뉴욕주에서 당첨된 세 사람이 4,100만 달러를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복권을 사려고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1등은 21명의 공장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으며, 778명이 2등에 당첨되었고 113,000명이 소액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매혹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은 사람은 35,998,956명이나 되었으며, 그들은 각기 당첨의 기회를 잡

아 보려고 돈을 쓴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5년 10월, 67쪽; 또는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57쪽)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세입원으로서 카지노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운영 회사 또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당첨자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복권을 산 나머지 모든 사람은 빈 손이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셨을 때 십일조의 법을 제정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의 한 역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 그 교회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빙고 게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십일조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빙고 게임 대신에 십일조의 법을 따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 평생에 이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지노는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돈을 땀이나 대부분은 잃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따고 카지노가 돈을 벌려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의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5달러를 내고 영화를 보는 거나, 5달러를 내고 포커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한쪽은 돈을 낸 것에 대해 뭔가를 얻지만, 다른 쪽은 오직 한 사람만 돈을 따고 나머지는 돈을 잃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들은 포커가 상습적인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도박을 비난해 왔습니다

18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 살고 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농장은 풍부한 수확을 거두었고, 동네와 그 주변이 다 평화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은 밤에 하는 불건전한 놀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나, 경마와 도박 등을 이웃들과 어울려 하지 않자, 처음에는 우리를 조롱하더니 핍박을 가하고 결국은 폭도를 조직하여 우리의 집들을 태우고 많은 형제들의 몸

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붙이고 매질을 했으며, 끝내는 법과 공의와 인도주의와는 정반대로 성도들을 그 곳에서 추방했습니다.”(James R. Clark편,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 1:139)

1844년 10월에 브리감 영은 나무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술집, 도박장 및 다른 모든 풍기 문란한 집이나 활동들을 우리 도시 가운데서 금하고, 무절제와 부도덕을 우리 가운데에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Message of the First Presidency*, 1:242)

교회의 대관장들과 그 보좌들은 이 악에 관해 거듭해서 언급했습니다. 세 분의 교회 대관장의 보좌였던 조지 큐 캐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젊은이들이 경계해야 할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박입니다. 이 악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나쁘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President George Q. Cannon*, sel. Jerreld L. Newquist, 2 vols. [1974], 2:223)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는 도박을 승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으로 강하게 비난 하며, 또한 도박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복권도 같은 부류로 간주하며, 회원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Editor’s Table”, *Improvement Era*, 1908년 8월호, 807쪽)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의 도박도 변함없이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서 돈을 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주지 않는 도박, 일, 또는 소위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교회는 또한 교회 회원, 크게는 지역 사회가 늘 유지해 온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저하시키거나 약화시키는 ... 경향이 있는 일체의 관행에 반대합니다.”(*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5:245)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아예 어떠한 종류라도 도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들어 왔습니다. 타락과 피해는 이진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노력 없이 물건을 얻거나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갖게 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5년 4월, 6쪽 또는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2쪽)

오늘 밤 우리와 함께하신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1987년에 당시 리스 대학교에서 이 주제에 대해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도박—도덕적으로 그릇되고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함”입니다.(*Ensign*, 1987년 6월호, 69~75쪽 참조)

교회의 입장에 관한 이 말씀에 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행운을 좇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무런 해가 없는 오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관행은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이 관행을 반대합니다. 포커 게임이나 어떤 형태의 도박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해 보았다면 그만둘 수 있는 지금 중단하십시오.

시간을 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더 좋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읽을거리들이 너무나 많아 그것들을 아무리 읽어도 다 읽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고 즐겨야 할 음악도 있습니다. 하이킹, 자전거 타기,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남녀가 서로 함께 건전한 방법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한 신간을 읽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 책에는 채플 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교수진들이 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미국 십대들의 종교 및 영적인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를 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과 전통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Christian Smith and Melinda Lundquist



Denton,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2005].)

그들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신앙에 따를 결의를 하고, 사회적 행동에 관한 가르침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일성도 교회는 십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그들은 대개 그에 따릅니다.”(Elaine Jarvik, “LDS Teens Rank Tops in Living Their Faith”, *Deseret News*, 2005년 3월 15일, A3쪽)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들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고, 금식이나 다른 형태의 극기 활동에 참여하고, 종교적 믿음에 대해 비교적 의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논평가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자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생들에게는 포커를 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회원과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무의미한 일에 시간이나 재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활동을 할 경우, 가치 있는 일을 할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교 공부에 대한 감각이 무뎠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실망할 것입니다.

신권을 가진 젊은이로서 여러분은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의 동반은 행운을 좇는 게임에 탐닉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의 일[을] 선택하여 생활하십시오!”(“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이 사업에 대한 제 간증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저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거룩한 곳에 섬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곳에서는 더 자주 거룩한 곳에 서도록 권고드립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쁨이요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수 많은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쏟아도 소화할 수 없는 정보들이 단 하루만에 생성됩니다. 삶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한숨 돌리는 공간과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¹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는 악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 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나의 영원한 복음에 따라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예배하

는 자는 모두 함께 모여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니라.”²

우리는 불가피하게 너무나 많은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서게 되며 저속하고, 불경스럽고 주님의 영을 파괴하는 것에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곳에서는 더 자주 거룩한 곳에 서도록 권고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거룩한 곳은 성스러운 성전입니다. 그 안에는 성스러운 위안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성전에 데리고 가 영원히 함께 인봉되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죽은 조상들의 기록을 탐구하여 그들도 성전에서 우리에게 인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됨으로써 거룩해져야 합니다.³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영혼의 힘입니다. 그것은 신앙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며, 그 마음은 불경스럽고 합당치 않은 것들로부터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써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고요함이 있을 때 거룩함이 나타나 선한 것을 격려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습니다.

거룩함은 또한 의로움의 표준이 됩니다. 1862년 2월 16일에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

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님께 거룩함”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3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의 매 순간을 자신의 모든 행동에서 평등, 정의, 자비, 고결함에서 나오는, 주님께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유지하게 합니다.”⁴

작년에 한 손자가 아름답고 새로운 맨해튼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뉴욕으로 갔습니다. 밖에 있는 수천 명이 내는 분주하고 비쁜 소리는 귀가 멀 정도였습니다. 택시가 성전 앞에 정차하자 손자 며느리인 캐더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밖에서조차 그녀는 성전의 거룩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뒤로 하고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집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소음과 요란스러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거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⁵ 참으로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요셉 스미스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의 집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권능을 느낄 수 있게 하시며 ... 이 집이 당신의 집, 곧 당신의 성소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하옵소서.”⁶

축복사 요셉 스미스 일세의 장례식에서 성전에 대한 그의 느낌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은 그의 일상적인 기쁨이었으며, 그 곳에서 많은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 아버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동편 하늘이 찬란히 밝아 오기 훨씬 전에 혼자 성전 안의 거룩한 통로를 걸었으며, 아직 자연이 잠자고 있는 동안 성전 안에서 마음의 소망을 털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2005년 4월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저 옥스



엠 러셀 홀터드



조셉 비 워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버드 에프 우흐트도르프



테이버드 에이 배드나

취임인 회장단



닐 시 앤더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테이버드 이 소원슨



제임스 디다이어



메릴 제이 베이트먼



존 에이저 그루버



로버트 시 우드

최신인 제일 정원회



김태호 에이저 아이도



장인복



크리스토퍼 웨딩 이세



라지 지 웅달리



오시영교 가부재



폴 비 피어미



폴리세스 소야레스



닐 영 웨딩슨



벤턴 영 목



월터 에프 콘라투스



에프 비틀 하워드



폴 이 칼라커



브루스 더 포터



포란시스코 게이 비니스



론트 게이 브라프



클라우디오 알 영 포스타



시 스크트 그로우



게이 이 전슨



존 영 웨딩슨



칼 비 프렛



펜스 비 워드먼



셉틴 에프 차원드



벤취민 테이 오오스



브루스 시 워번



밀린 케이 전슨



리차드 게이 에이만즈



로버트 에이 라스만드



더블류 크레이그 조야코



앨 워트니 클레버튼



로버트 게이 연버호



도널드 영 울스트롬



케냐스 존슨



린 에이 미랄스



린 지 포먼스



리차드 시 에틀리 제1포좌



게이리 데이 요플린



존 비 디슨



에프 앨빈 워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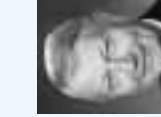
폴 브이 존슨



테니스 비 노오스만더



세실 오 사뮤엘슨 이세



에이저 데이비드 베든 감리 감독



스펜서 게이 콘디



데이비드 에프 에만즈



해럴드 지 힐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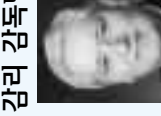
다블류 플로프 카



클린 엘 페이스



스티븐 이 스노우



에이저 데이비드 베든 감리 감독

최신인 제이 정원회



머빈 비 아널드



제임스 엠 던



스티븐서 브이 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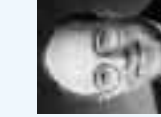
데이비드 비 오보슨



알 콘라드 솔츠



데이비드 엘 스톤



키스 비 덕얼만 제2포좌



더클러스 엘 콜라스터



대릴 에이저 간



최원용



월터윈 더블류 밀리



더블류 더클러스 삼웨이



에이저 브루스 스카키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디 레스 켄트



제임스 앤 민드



볼프강 에이저 풀



테니스 이 시먼즈



폴 케이 시브로스키



셉티 더 크리스티슨



에이저 엠도리저 칼레스피



플러브 더블류 미스드 이세



웨인 에스 피타슨



로우렐 엠 스노우



월라임 엠 웨커



다윈 비 크리스티슨



로버트 더 할버슨



데이비 이 밀러



에이저 브라이언 라차즈



도널드 엘 스카펠라



로버트 케이 웨튼



로버트 에스 우드



이태미 더미야니



키스 케이 웰버그



로버트 에프 오펜



네드 비 루에시



로버트 알 스투어



리차드 에이저 콘럴



에이저 폴스 워드먼



벨기에 안트워프의 집회소 밖에 모인 회원들



왼쪽: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방송 전에 스페인 마드리드 동 스테이크에서 위성 신호를 확인 중
위: 필리핀 마카티에서 대회 방송에 참석한 부부

놓았습니다.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하늘의 시현이 그 마음에 열리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⁷

저는 우리의 모든 성전에 “주님의 집,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곳을 상기시키는 이 말의 기원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가라는 우리에게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숲이 만군의 여호와와 성물이 될 것”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⁸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 문 손잡이들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들은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각각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65년 전에 남부 유타에 사는 한 소년으로서 저는 작은 마을에 있는 몇몇 건물에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타나면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황금 빛 말은 종종 협동 조합 상점과 감독의 창고 같은 정말 중요한 건물의 핵심 장식품이었습니다. 저는 개척자 상업 조직인 ZCMI의 증권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존 테일러, 브리감 영, 윌포드 우드럽, 조셉 에프 스미스, 로렌조 스노우, 허버제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및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증권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말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함이란 모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앙과 헌신을 상기시키는 다른 많은 것들과 더불어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주 성전에 가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배울 때 크게 축복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서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합니다. 성전 의식의 성약과 준수는 거룩한 성품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회원들에게 거룩한 성전 사업에 대해 더욱 굳은 결의를 하게 하려는 소망으로, 우리는 회원들이 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⁹

우리 시대에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 이 교회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성약을 엄숙하게 새로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줄어들거나 없게 될 것입니다. 이혼이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빈민과 비통함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더 많은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자녀들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더 많은 감사와 상호 존중심이 우러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쁘게 바라보시리라 고 확신합니다.”¹⁰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 탐구와 성전 참석을 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보다도 개인의 거룩함과 우리 가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과 더불어 지상에 있는 또 다른 거룩한 곳은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거룩한 느낌은 제가 성전에서 거룩함을 느끼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브라질로 첫 번째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전에, 모친은 제가 성전에 가서 입을 성전복을 정성껏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낡아 헤어졌지만, 거룩한 것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특별하고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루스 덕분에, 저는 우리 가정이 주님께 거룩함을 드리는 분위기를 추구해 온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



러나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인 다른 많은 책임을 지닌 젊은 아버지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내는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가정에서의 부모의 책임을 제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가정의 밤을 가져야 할 때를 제게 알려 주고는 거기서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부드럽게 제언해 주곤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일 및 활동과 같이 제 시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족 행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 주곤 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중요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

다.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주님의 영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로 주님께 헌납된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바쳐야 한다는 명을 받았습니다.¹¹ 성찬을 취하는 것은 엄숙하고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는 복음 원리를 배우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회원들이 확인과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텍사스에서 한 개종자는 예배당 문을 통과할 때 그녀가 살아오면서 결코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가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열쇠를 지니고 계신 히클리 대관장님의 위임과, 권능과 인도 아래 이 책임들을 수행하고, 보호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매일 모든 행동에서 개인적인 의로움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모든 영향력을 방어해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이 가르쳤듯이 “인생의 매 순간을 … 주님께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 그것만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자신에게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섬으로써 주님에 대한 거룩함을 찾는 특별한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그리고 각자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보호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음의 근원이 됩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은 우리 시대에 악한 영향력에 대항하고 우리가 구세주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신앙과 [행함에서]”¹² 우리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프 데이빗슨, “과로하는 미국인인가 혹은 압도되는 미국인인가?”, Business Horizons, 1994년 1~2월호, 62~66쪽.
2. 교리와 성약 101:22.
3. 디모데전서 4:12.
4. Deseret News, 1862년 4월 2일, 313쪽.
5.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7쪽.
6. 교리와 성약 109:13.
7. History of the Church, 4:194.
8. 스가랴 14:20~21.
9. 고린도후서 3:6.
10.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7쪽.
11. 교리와 성약 59:9 참조.
12. 힐라맨서 10:5.

한 사람만 더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들에게 손길을 뻗기 위해 확고한 간증을 지니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벨라드 자매와 함께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빛나는 진지한 얼굴을 보고 감격했으며,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훌륭한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보다 철저한 영적 준비를 하라는 예언자의 외침에 호응하여 주신 부모, 감독, 스테이크장,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봉사에 대해 그 “표준을 높이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과 육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적인 명철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앙, 소망, 그리

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이 요구됩니다.”(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표준을 높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합당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승낙할 수는 없습니다.”(“선교사 봉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17쪽)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선교사들, 즉 “자기 수양을 쌓고 세상의 낮은 표준보다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범법을 피하고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높은 표준을 택해라”는 예언자의 목표를 받아들임으로써 봉사할 준비를 좀 더 잘 갖춘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선교사 봉사”, 17쪽)

339개 선교부에서 주님의 사업은 확장되고 있으므로, 12세의 모든 청년은 집사, 14세 청년은 교사, 16세 청년은 제사에 합당하게 성임되고, 또 18세에서 19세의 모든 합당한 형제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의 마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이해와 감사, 그리고 회복의 경이로움에 대한 분명한 비전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복음이 회복된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

시고 그분은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두 분께서 요셉 스미스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여셨음을 스스로 알게 될 때, 그들은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회복의 메시지의 참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물문경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소망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교사 훈련원의 선교사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 경전 공부에 집중하여 교리를 좀 더 잘 배운다.
- 진지하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 더욱 훈련을 쌓고 열심히 일한다.
-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한다.
- 가르칠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
- 감독 및 부모와 함께 보다 면밀한 접견을 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결하고 힘있게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일하여 그들이 선교 사업과 일생의 봉사를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정도에 관계없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 하나하나를 돌보기 위해 나아갑시다. 패커 장로는 “그리스도의 빛은 태양 빛처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영혼은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 그것은 인류를 축복하고 유익을 가져다줄 모든 것에 관해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을 키워 줍니다.”(“그리스도의 빛”,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13쪽)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지도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청소년 안에 있는 그 빛을 점화시켜 간증의 불길에 마음과 영혼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한 다음 각 사람에게 그 불꽃을 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에 점화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마도 이 점을 알고 있어 일부 청소년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도록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지도자와 교사들이 함께 상의하고 모든 청남 청년을 개별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표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또한 부모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표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청남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또한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는 더 적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 지도자들에게 미리미리 청남들과 함께 일하여 선교 사업을 위해 그들을 더 잘 준비시키고, 그 봉사에 합당하도록 유지시켜 달라는 외침입니다. 합당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능력 있는 모든 청남들은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위해 봉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교회의 감독에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6월 19일, 27쪽)

마찬가지로 대관장님은 청년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독신 자매들에 관한 이전의 권고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서 얼마간의 젊은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장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자매들이 선

교사로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청남들과 비슷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느껴서는 안 되지만 몇몇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할 것입니다.”(“교회의 감독에게”, 27쪽)

형제 자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영이 세상의 많은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과거에 잠겨졌던 문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들에게 손길을 뻗기 위해 확고한 간증을 지니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리 형제요 자매이며,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봉사한 후에 명예롭게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그 뒤에 올 세대의 삶을 축복할 삶과 봉사의 귀감을 세웠

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조직에서 좀 더 강한 지도자와 교사가 될 준비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좀 더 의로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돌아옵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선교사 자신뿐 아니라 그들이 찾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계도 축복이 됩니다.

이제 감독님들과 지부장님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통과하여 올해 선교사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단위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부모와 상의하여, 이미 결심한 사람들 외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을 수 있는 젊은이를 최소한 한 명씩 찾기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26,000개가 넘는 와드와 지부에서 이미 선교 임지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한 명씩을 더 보낸다면 전임 선교사들의 대열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그만큼 더 빨리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교사들은 합당하고, 충실하고, 건강하고,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한 명이 당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 그리고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에 속한 분들에게 분별하는 성령의 권세에 의지하여 올해 부름을 받도록 준비시킬 사람을 찾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설 때 제 친구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 친구는 생전에 말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나 마침내 말을 사랑하는 훌륭한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새 신부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저녁에 망아지를 훈련시키는 목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망아지보다 몸집이 더 컸습니다. 망아지보다 아는 것도 더 많았습니다. 자신이 끈을 잡기만 하면 망아지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이 쉽고 간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삐에 끈을 매고는 망아지 앞으로 가서 당겼습니다. 망아지는 저항했습니다. 제 친구가 더 세계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망아지는



다리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 세계 잡아당기자 망아지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오 분 동안 그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그 친구는 결국 망아지에게 넘어지는 법만을 가르쳤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망아지 앞으로 가서 끈을 잡기만 하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아내는 결국 망아지 앞에서 잡아 끌지 말고 망아지 주위로 밧줄을 매고 그저 곁에서 걷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명령이나 강요 또는 압박을 받는 것에 저항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팔로 청남을 감싸고 그와 함께 걷는다면, 그는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따를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간증을 강화시킬 때 이 이야기를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스테이크, 와드나 지부에서 멋진 선교사 봉사의 전통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해시키십시오. 아주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를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들이 전세에서 용감한 선택을 했기 때

문에 세계 역사에서 충만한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은 의와 진리 위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봉사하려는 열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비전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활동과 사교 행사가 전체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개종하고 결심하게 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해하도록 부모와 교회 지도자와 교사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신이 그들 마음에 진리를 확인해 줄 것이며 그들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점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된 선교사 한 명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어제 스코트 장로님은 우리 선교사들이 현재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 중인 새로운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여러분을 돕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남 청년 중 어떤 사람에게 고되고 힘든 전임 선교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전임 선교사 봉사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전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갖춰 성전의 구원 의식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는 우리 충실한 청소년들을 도우면서 큰 사랑과 이해를 보이고 지원해 줄 것을 모든 회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간증을 더하며, 더 많은 청소년과 부부들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영감과 동기를 주려는 우리의 노력을 그분이 축복하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앙이 해답입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신앙과 순종이 해답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9 50년대 초에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징병 정책으로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대신 군대에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학군단에 등록했습니다. 제 목표는 저의 큰 형처럼 준장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집으로 갔을 때 번 프리먼 감독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고든 비 힝클리라는 이름을 지닌 한 젊은 지도자가 미국에 있는 각 와드에서 한 명씩 젊은이를 선교사로 부르는 안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상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

안 자동적으로 입대가 연기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리먼 감독님은 이 일에 관해 기도했으며 우리 와드를 대표하여 저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추천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차 장교가 될 계획으로 이미 학군단에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님은 이 특별한 시기에 저를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추천해야 한다는 속삭임이 있었다는 점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 결정을 하고 저번 때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감독님이 그런 영감을 받았다면 봉사하라는 주님의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장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실망할지를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¹는 성구를 인용하셨습니다.

그 날 밤 저는 감독실로 가서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감독님은 징병 사무실로 가서 제 결정을 통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징병 사무소장으로 있는 여성 공무원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

면, 학군단에 복귀하기 전에 징병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교가 아니라 사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제 선교 사업은 훌륭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다 그렇듯이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징병 사무소장의 말대로 정부는 제가 해임되기 약 한 달 전에 징병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기본 훈련과 헌병 학교를 마친 후에 저는 한 군부대에 배치되어 헌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야간에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수감자들을 호위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날 밤에 우리 일행은 휴식을 위해 중간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부대 지휘관은 우리에게 밤새 깨어 있으려면 식당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절했음을 알아차린 장교는 “사병, 계속 깨어 있으려면 커피를 좀 마셔야 할거야.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는 죄수가 하나라도 도망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교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물론이라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신경 쓰지 않고, 커피를 마시라고 다시 제게 권했습니다. 다시 저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손에 총을 들고 버스 뒷자리에 앉아 마음속으로 제가 계속 깨어 있고, 총을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임무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며칠 뒤 그 지휘관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그 날 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제가 깨어 있지 못할 것 같아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신념을 지킨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놀랍게도 자신의 부관이 전출을 가게 되어 저를 새로운 부관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이 년 동안 저는 지도력과 관리 업무를 배울 기회를 많이 접했습니다. 군복무 기간 중의 긍정적인 경험은 제가 꿈꾸었던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 고난에 대한 답은 신앙과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참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니파이가 권고한 것처럼,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야”²합니다. 제 모친께서 부드럽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신앙을 행사

하는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에 대한 축복을 풍성히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주님을 섬기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크나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결국 자녀를 잃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는 선교사로 나가 많은 것을 희생했으나 끔찍한 병을 앓게 되어 심각한 장애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려야 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하고 순종했지만 원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자매가 있습니다. 또는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에게 버림 받은 아내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커다란 신앙을 보인 후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또한 어려울 때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 헌신적인 사람들의 예도 있습니다. 아빈아다이는 화형을 당했고, 침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으며, 엘마와 앰올레크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평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신앙과 순종이 해답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의 일환으로 구세주께서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아십니다. 상실과 배반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순종이 참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세상적인 위안 이상의 것을 찾으라고 경고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⁴고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은 같든이나 고통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 여기지만, 예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그분의 삶에 같든이나 고통이 없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없었고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 시며”⁵라고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덕에 의지해야 합니 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한 후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신앙을 행사 하고, 그리스도의 공덕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 야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련의 시기에 우리를 강 하게 하시고 평안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이 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 지”⁶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신 뢰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는 법을 더 많 이 배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헝클리 대관장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렸 습니다. 저는 헝클리 대관장이 살아 계신 예언 자일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선견자임을 여러 분께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 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분별의 은사 를 갖고 계십니다. 낙관주의자이며 현실주의자 이십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의 생명을 지켜 주 시고, 그분과 그 보좌들이 지난 10년 동안 교 회를 인도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 사 드리고 싶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의 신성 한 인도를 통해 교회는 널리 파급되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권고와 인도를 더 잘 따를 것을 권고드 립니다. 이는 “주께서 한 선견자를 일으켜 백 성에게 주셨[기]”⁷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회복의 예언자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은 살 아 계신 예언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잠언 3:5~6.
2. 니파이일서 3:7.
3. 마태복음 5:4.
4. 요한복음 14:27.
5. 베드로전서 2:20~21, 23.
6. 고린도후서 5:7.
7. 모세서 6:36.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님은 우리 친구들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아시며 우리에게 서로 도우라고 속삭이시고 종종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몇 주 전에 남편과 저는 성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 어가면서, 성전 봉사자이자 같은 와드 소속인 소중한 친구의 영접을 받았습니 다. 그 영접을 시작으로 우리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다니던 와드의 친구들, 지역 사회의 친구들, 여러 부름에서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제가 기억하 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봉사를 받았습니 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젊은 여성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 다웠는데, 그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즉시 기 억이 떠올랐습니 다. 제가 처음으로 청녀 회장

을 맡았을 때 가르쳤던 월계반의 청녀 로빈이 었습니다. 우리가 담소와 추억을 나누며 그동 안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녀 는 청녀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말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 다.

저는 사람들의 큰 친절에 감동을 받고, 제 인생의 전반에 걸쳐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했는 지 깨달으며 성전을 나왔습니 다. 주님은 때때 로 제 영혼에 감화를 주셨는데, 종종 그분의 손길은 친구의 손을 통해 제게 왔습니 다.

38년 전 이 무렵, 단과 저는 신혼 부부였으 며, 우리는 저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뉴 맥시 코로 갔습니 다. 그 곳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주 북쪽에 있는 산으로 하루 코 스의 등산 여행을 가셨습니 다. 오후에, 우리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길가에 정차해 있는 차 한 대를 보았습니 다. 그 운전자는 아버지에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바람이 빠졌기 때문에 타이 어 수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갈 차편 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 타 고 있던 그 운전자의 가족을 보시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까지 갔다가 어두워 지기 전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 거요. 당신 타이어와 내 타이어의 사이즈가 똑같으니 내 것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다음에 앨버커키에 오거든, 타이어를 돌려 주시오.” 이 낯선 사람 은 그 제안에 매우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하 지만 당신은 저를 모르시잖아요?” 늘 그렇게

하시듯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यो. 그렇지 않소? 당신은 타이어를 다시 가져올 거요.”

몇 주 후에 저는 아버지에게 그 스페어 타이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타이어를 돌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90세가 되신 제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대부분 아버지 나이의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무료 식사 제공을 받지만, 제 부친은 “나이 드신 분들”께 음식을 갖다 드립니다. 아버지는 종종 아프거나 임종이 가까운 친구들의 침대맡을 지키십니다. 전기톱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로터리 클럽 회원들의 연례 미화 작업을 돕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의 삶과 행동들을 생각할 때, 저는 패커 회장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복음 안에서 활동적입니다.”(“인생의 황혼기”,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3쪽) 그분의 삶은 찬송가에서 말하듯이,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이며, 그 영향 속에서 우리 모두는 풍요로워졌습니다.(“선한 영향 주는 삶”, 찬송가, 173장 참조) 제 부친은 우정을 알고 계십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아본다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부나 와드 회원, 이웃, 심지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 어링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를 대표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음성은 그분의 음성과 동일한 것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여러분의 손길은 주님의 손길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6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킬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고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 복음 교사는 매달 충실하게 홀로 된 연로한 자매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단지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가



을이 되면 자매님의 냉난방기를 수리하고 난로의 필터를 점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일까요? 아니면 가정 복음 교사의 사랑일까요? 답은 물론 둘 다입니다.

우리의 신앙 키우며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님은 우리 친구들과
주께서 주신 큰 은사
(찬송가, 173장)

저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비롯해 우리가 다녔던 모든 와드에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준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헌신, 봉사, 현명하고 온화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 일부는 저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며 서로 화를 내기가

지 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은 그 차이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배경, 나이, 민족적 태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스테이크를 방문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파킨 자매님과 핑그리 자매님, 그리고 보조 조직 회장단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매우 특별한 우정과 자매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삼 년을 함께한 지금, 사랑하는 자매님들은 저를 잘 압니다. 그들은 저의 신앙과 간증을 알지만, 저의 불안과 걱정도 또한 잘 압니다. 그분들은 제가 오랜 훈련 여행으로 피곤할 때, 저의 모습이 최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사랑과 인내를 느끼며 그들이 여전히 저의 가장 좋은 면을 봐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간증과 기도는 저를 강화시켜 주고 그들의 웃음은 저의 하루를 밝혀 줍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매들입니다.



제 가족과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 중 한 명이 지난 몇 달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살지는 않지만 전화를 통해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어려운 시련을 겪는 동안 우리는 사랑, 기도, 추억과 감미로운 간증들을 나누었습니다. 제 자매들은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남자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손자들도(그들이 아무리 소란스럽더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회복된 초기에, 새로운 회원들은 “시온”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온은 장소인 동시에 목적, 즉 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같은 방식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부와 와드가 우리의 시온입니다. 그러나 와드와 지부는 회원들이 서로를 돌볼 때에만 시온의 영을 지닙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감정이 상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른 회원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상처를 준 쪽이든 받은 쪽이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교리와 성약 38:27)

저는 최근에 요셉 스미스에 관해 질문했던 한 여성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름과 임무에 대해 분명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하면서, 저는 주님

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게 [나의 종 요셉의 편이 되라.”(교리와 성약 6:18) 저는 그 날과 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녀는 요셉의 편이었다.” 저는 그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물몬이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을 개혁하고 교화하며, 전쟁과 분쟁을 그치게 하고, 인류가 친구와 형제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517) 또한, 그는 우정이 추상적 개념 이상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형제의 집이 적들에 의해 불타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그에게 안됐다고 말했다 때, 예언자는 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 대해 5달러만큼의 동정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동정심을 느끼십니까?”(Hyrum L. Andrus와 Helen Mae Andrus 편찬, *They Knew the Prophet*, [1974년], 150쪽)

우리는 우정에 대해 예언자 요셉이 느꼈던 것처럼 느낍니까? 우리는 우리의 호의를 실질적인 도움으로 전환시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아시며 우리에게 서로 도우라고 속삭이시고 종종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답하시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봉사할 기회를 허락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 요셉의 친구라면, 우리는 구세주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찬송가, 173장 참조) 요셉 스미스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안내자였던 요셉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인류에 대한 그의 우정을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의 우정과 헌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 제 운명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저는 위안을 찾을 것입니다.”(*The Personal Writings of Joseph Smith*, 편찬 Dean C. Jessee [1984년], 239쪽)

우리는 각자 자신의 궁극적인 우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리라 ...”(교리와 성약 93:45) 그분의 형제 자매인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특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일과 뜻을 행하십시오.

제가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영접 받은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사도 그렇게 축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처럼 보이는 일면을 느꼈으며,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 줍니다. 저는 또한 모든 연령대로 구성된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이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와드와 지부를 그려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항상 그분의 친구가 되길,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나로 묶인 마음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조상들은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 그들은 ... 후손 하나가 그들을 찾겠다는 성약을 맺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의 메시지는 교회 개종자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회원의 절반 이상이 8세 이후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소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의지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20세쯤 되는 한 젊은이를 침례의 물가로 데려왔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회복된 복

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의 간증으로 인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고 싶어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침례의 물 속에서 일으켰을 때, 그는 팔로 제 목을 감싸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귀에 대고 “저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라고 속삭여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빨기세탁 신권의 권능으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한 후에, 그 젊은이는 “축복을 주실 때 불 같은 것이 머리 위에서 내려와 제 몸을 거쳐 발끝까지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을 했겠지만 자신에게 온 축복의 크기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과 여러분이 맺은 약속이 실재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여러분은 침례 받을 때 온 깨끗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신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때 여러분은 마음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개종자라고 말하면 저는 “가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예”라는 대답 뒤에 부모나 형제 자매나 조부모의 인생에 일어난 행복한 기적에 대한 신나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가

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과 행복을 나누게 될 때 기쁨이 따릅니다. “없습니다, 아직은 저만 회원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들은 거의 항상 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아직 아닙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종자들의 음성을 통해 그들이 결코, 정말 결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는 성약을 받도록 주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느낌이 있을 것임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들어올 때 느낀 축복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느낄 것임을 아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신 약속의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그 소망이 커지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약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충실하다면 다가올 세상에서 가족으로서 영광 중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에 찬 친절로 그분은 여러분이 부모와 조부모와 영원히 결속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 사촌이 똑같이 느꼈다고 말할 때까지는 할아버지가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조부모들과 조상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중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하는 기회도 없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약속을 받을 기회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에 찬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전하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방법 역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래 전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전서의 마지막에는 예언자 말라기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달콤한 약속이며 강한 경고입니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¹

이 말씀 중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호와, 즉 메시야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행할 충분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를 지닌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를 지녔습니다. 그는 인봉의 권세,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복음이 회복된 이후로 처음 세워진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직후인 1836년 4월 3일에 엘리야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왔습니다. 요셉은 이 성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맞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 간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서 계심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 고 증거한 그 때니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²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가족, 즉 살아 있는 사람들과 영의 세계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돕기 위해 또 다른 시현을 주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이후에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다른 예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그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사망과 부활 사이에 영의 세계에 나타나셨을 때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³ 스미스 대관장님은 구세주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으며 또 속죄로 인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영들이 알았을 때 느낀 기쁨을 보았습니다. 모든 영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받고 또 조상들이 반기를 원하는 성약과 축복을 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들 사이에서 그분의 종들을 조직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있어야 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또한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세주께서 부르신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부를 거명했습니다. 시조 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에스겔, 엘리야, 우리가 몰몬경에서 알고 있는 예언자들, 그리고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을 포함하여 말일의 예언자들이 있었습

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들 선교사들의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일성도의 조상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임을 믿는다고 윌포드 우드럽이 살아 생전에 말씀했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⁴

돌아가신 여러분의 많은 조상들은 그 선교사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간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간증을 얻었을 때 선교사들에게 침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있는 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의식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생에 있는 누군가가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성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서 우리의 도움 없이는 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기에 기다리는 제 조상들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에게도 제 마음을 돌립니다. 저는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선교사들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고 가르쳤던 사람들, 즉 여러분의 조상들과 함께 그 곳에 있는 한 예언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개종시켰으나 여러분이 구조할 때까지는 침례를 주거나 가족에게 인봉시킬 수 없었던 여러분의 조상과 그 예언자에게 여러분이 다가설 때 그 선교사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그려 보십시오. 어떤 철차가 그런 곳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고 흘리는 그분들의 감사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그 선교사와 여러분 조상들의 미소를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구세주를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과 접견을 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모두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랑을 지니고 계시므로 인봉하고 축복하는 신권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생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여러분이 경험



한 소중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조상들에게 그것을 전할 책임을 받아들이기 기회를 주셨습니다. 조상들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 그들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제공하기 위해 행함과 신앙으로 그 값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 그분이 갖고 계신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그분의 제의를 조상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분은 사랑하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이미 돌렸기 때문에 그 값이 비싸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족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적으십시오. 부모와 조부모의 이름을 출생일이나 사망일이나 결혼일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일부는 기억을 더듬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친척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생, 결혼 또는 사망 증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사하여 정리하십시오. 그분들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적어서 보관하십시오. 그냥 이름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과 결합될 것입니다.

현재부터 몇 세대를 올라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조상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와드나 지부에는 여러분이 성전에 이름을 제출할 준비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자기들을 영육에서 자유롭게 하고 가족,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자기들을 영원히 묶어 놓아 줄 성약을 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는 기회와 책

임은 세계 역사상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과 그들의 조상의 생애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는 엘리야의 영을 느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조상을 찾기 위한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적처럼 보이던 기술을 통해 그 정보들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로 인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지키는 데 필요한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⁵ 처음 몇 세대를 찾고 나면 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록이 미약해집니다. 가족들 중 다른 사람들이 조상을 찾을 때처럼, 여러분은 자신이 찾은 조상이 이미 성전의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여러분은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탐구 사업을 그만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다음에 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일을 계속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찾기 힘든 그 이름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 주었고 영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실제 인물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조상들은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세기만에 후손 하나가 그들을 찾아 자유를 주겠다는 성약을 맺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은 그들의 눈에서 감사 아니면 처절한 실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과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수고하여 찾았다고 선택할 때 자신의 힘 이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르는 이름들과 조금밖에 읽을 수 없는 낱자가 적힌 흰 종이를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저의 가족 기록을 찾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마지막 이름은 이튼 브레이라는 곳에서 300년 전에 어머니의 가계로 들어온 가계도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림이 끝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의 가족을 구속하는 이 성스러운 사업, 곧 그분의 사업이요 영광이며 우리가 마음을 쏟아 행하는 이 사업에 도움을 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말라기 4:5~6.
2. 교리와 성약 110:13~16.
3.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4.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설교, *Le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1894년 5월 21일, 339~340쪽 참조.
5. 누가복음 12:48 참조.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과 그를 통해 온 하나님의 계시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처럼 이번 12월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이 의미 깊은 행사를 축하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서적들이 출판될 것이며, 여러 가지 심포지엄과 야외극과 새로운 영화 및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고대하면서 저는 요셉 스미스의 위대한 업적의 절정으로부터 이어온 15대 대관장으로서 그의 거룩한 부름에 대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손에는 귀중한 작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것은 152년 전인 1853년에 올슨 프렛에 의해 영국 리버풀에서 출판된 것으로, 루시 맥 스미스가 아들의 생애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요셉이 여러 번에 걸쳐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자세한 내용과 물문경의 출판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천사와 만났다는 요셉의 말을 듣고 그의 형 알빈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of Many Generations [1853], 84)을 설명하는 요셉에게 귀를 기울이자고 제언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을 통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와 구별되는 많은 교리와 의식 중 몇 가지와 젊은 예언자에게 계시된 모든 것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반복해서 반복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 중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장중한 신의 출현은 절정의 시대에 우리 주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 및 부활 이래 가장 큰 사건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에 버금가는 다른 사건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논쟁했습니다. 325년에 콘스탄틴이 니케아에서 여러 종파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두 달 동안 열띤 토론을 한 후에 그들은 하나의 정의에 타협을 보았고, 그것은 여러 세대 동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신화에 관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정의를 읽고 소년 요셉의 진술과 비교해 보시도록 권유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서서 그에게 이야기하셨다고 알기 쉽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지닌 실제의 존재이셨습니다. 그분 외에도 별도의 존재이시며 부활하신 주님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셉은 또한 그분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시현이 진행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요셉이 과거의 모든 학자와 성직자들보다 신화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거룩한 계시에서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재성이 의심 없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상에서 숨겨져 있던 신화에 대한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된 종에게 계시하신 첫 번째 것이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현의 실재성과 진실성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정당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유명한 학자가 쓴, 새로 출판된 책 한 권을 이제 막 다 읽었습니다. 그 학자가 말한 내용에서는 성경의 여러 책들이 비체계적인 순서로 짜여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



다. 어떤 때는 기술한 이후 오랜 동안까지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것인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참되다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작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귀중하고 중요한 진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경전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고린도후서 13:1)고 선포하였습니다.

물론경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책은 그분의 탄생, 성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부활 및 미대륙 바운티플 땅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짚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며, 읽을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 책에는 그것의 거룩한 기원에 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현재 그 약속을 시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참되고 거룩한 기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20권 중 한 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경이 구대륙의 성약인 것처럼 물문경은 신대륙의 성약입니다. 그 두 책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만 5천 백만 권이 배부되었습니다. 현재 그 책은 106개국의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계시로 나오게 된 이 성스러운 책은 실로 우리 주님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계가 손을 내밀어 그 책을 환영하며 생생한 간증으로 껴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책은 예언자에게 계시로 온, 또 하나의 위대한 기초적인 공헌입니다.

또 다른 것은 회복된 신권입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모든 종교의 종석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하나의 책을 읽었는데, 그것은 초기 교회의 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체되었겠습니까?

신권 권능은 그것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인 하늘에서만 옵니다. 그 권능은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것을 지녔던 자들의 손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첫째, 아론 신권, 즉 소신권을 부여한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의 방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주님의 손으로 친히 주



대회 모임 동안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 준비하는 한국의 한 독신 성인 자매

신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회복은 175년 전인 1830년의 이 주에 교회를 조직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계시를 통해 교회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교회였습니까? 요셉 스미스의 교회였습니까? 올리버 카우드리의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일의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예언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위대하고 독특한 계시는 영원한 가족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은 전능하신 분의 창작품입니다. 가족은 모든 관계 중 가장 신성한 관계입니다. 가족은 모든 기업 중 가장 중대한 기업입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조직입니다.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가족은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인봉된다는 교리와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한 가지 교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능력을 갖고 있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만 결혼이 유효한 수백만 남녀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이른바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 유아에게 침례를 줍니다. 회복된 교리 하에 침례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죄 사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약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

이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수행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및 부활을 상징하며 침수로 행해 집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계시된 진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중 어느 곳도 살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죽음의 장막 저편에 있는 자들이 받도록 준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교리는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 받았다”고 자랑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선조가 구원받지 못했으며 구원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속죄는 다른 사

람을 위한 위대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리자로서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이 본보기를 통해 인간은 주님의 집에서 의식을 행합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죽은 자들은 수행되는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과 동등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산자가 받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분이 그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일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까!

인간의 영원한 본질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살고 있었습니 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우리는 거룩한 계획 아래 이 생으로 태어났습니 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우리의 합당성을 시험 받기 위해 이 곳에 있습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전세, 둘째는 현세, 그리고 셋째는 내세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장막을 통해 각자 들어가기 합당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계시를 통해 오게 된, 이 교회의 독특하고 유일하며, 귀중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의 머리에 부어 주신 엄청난 지식과 권능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다른 많은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계시의 원리입니다. 예언자가 쓴 신앙 개조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 개조, 제9조)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땅에 퍼지며 발전하고 있는 교회는 인도 받고 앞으로 진전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지시 받고, 계시가 오며,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과 그를 통해 온 하나님의 계시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성취되어 왔습니 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요한계시록 14:6) 이 회복된 복음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올해 그를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신 예언자를 영광되게 합시다.

1805년, 버몬트 주의 추운 어느 날 요셉은 태어났습니 다. 1844년, 일리노이 주의 어느 무더운 오후에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38년 반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비길 데 없는 많은 지식과 은사와 교리가 그를 통해 왔습니 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 다. 주관적으로 그것은 온 세상에 있는 수백만의 말일성도들의 개인적인 간증의 요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소년 시절 저는 존 테일러가 쓴 가사를 노래하는 풍부한 성량을 가진 바리톤의 목소리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선견자, 선견자, 선견자 요셉이여!
나 사랑하는 그대를 생각하네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의 친구여,
신권이 다시 회복되었네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었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었네

(“The Seer, Joseph, the Seer”, *Hymns* [1948], no. 296)

그는 진실로 선견자였습니다. 그는 계시자였습니다. 자신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거룩한 그의 부름과 그의 생애의 미덕과 죽음과 함께 인봉된 그의 간증에 대한 저의 엄숙한 간증을 우리의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무엇을 구하느냐

엘 톰 페리
십이사도 정원회

정직하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 답을 발견하며 주님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 주님을 찾습니다.



훌륭한 합창에 뒤이어 말씀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합창단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요한복음 1:35~38)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무수한 방식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음

을 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혼을 키워 주지도 못할 열매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 회장단과 함께 기차를 타고 모임에 가는 동안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임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도쪽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개신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라고 물었으며 “우린 어느 쪽도 아니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나라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천주교와 개신교만을 인정합니다. 그 교회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도움 없이도 우리 교회는 잘 운영되고 있고 십일조라는 주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간증을 전했으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세상 곳곳에 우리가 짓고 있는 예배당과 성전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 없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믿게 할 수 없음을 알고 화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인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구 감소와 이민자 유입 증가로 인해 여러분은 결국 조국에서 소수 민족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자긍심으로 그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민자가 이 나라의 출생률을 앞지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응수했으며, 그는 이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국경을 폐쇄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현재 경향이 이러한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 나이 82세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난 저 세상에 가 있을 것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종교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전체적인 무관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은 자신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개발 도상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동에 있어 지나치게 세속적이 되어 인간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그리고 제한적 이나마 그들이 사는 사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또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 뿌리를 내리는 사회는 크나큰 영적 및 도덕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를 다스리시기 위해 세우신 율법에 관계없이 소위 개인의 자유를 좇을 때, 극단적인 세속주의와 이기심, 공중 및 개인 도덕의 타락,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저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세속적 사회가 교리와 성약 1편 16절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를 세

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

이런 이유로 주님의 교회에는 예언자를 따르고 세상이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구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 17~1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이 모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리와 성약 98:12)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몰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아론 신권이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되었으며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부 모두가 구세주와 복음을 찾을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여기 이 거대한 회중 가운데 계신 여러분과 전세계에서 이 대화를 시청하고 계시는 더 많은 성도들은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 모두가 회복된 교회를 찾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회복의 결과로 교회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중부 유럽에서의 제 경험은 개혁을 주장했던 앞서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저의 존경심을 분명히 키워 주었습니다. 개혁은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세우신 교회가 배도에 빠져 있던 오랜 기간 동안, 교리에 나타난 몇몇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요, 주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회복자였습니다. 그분에게 구할 때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구원 의식을 받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에게 현재의 제 임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에는 결코 상상도 못한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대체로는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 또 한편으로는 세상 곳곳에 있는 지도자, 회원,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희망의 새로운 표적을 봅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 답을 발견하며 주님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 주님을 찾습니다. 많은 예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생활에서 새로운 신앙과 희망을 찾은 한 아버지와, 한 젊은 독신 형제와, 독신 자매에 관한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가족은 네 식구로서 자매 선교사들이 처음 만났으며 처음부터 어머니와 자녀들은 몰몬경을 읽고 매일 기도했고 또 교회에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는데, 그는 아내와는 달리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며, 자신의 믿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

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영감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 첫 번째 시헌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가 배운 내용, 구세주에 대한 예언자의 간증 등을 가르쳤습니다. 몰몬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거나 가족으로서 읽어보도록 권한 모든 것은 그들에게 구속주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선물로 준 그리스도의 그림을 거실에 자랑스럽게 걸어 놓았습니다. ...”

아내가 침례 받고 싶다고 말하고 아들들이 침례를 받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몰몬경을 정기적으로 읽었으며 침례에 관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참된지를 알아보겠다는 그의 진지한 소망은 그를 변화시켰으며,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침례 받기 직전에 그 아버지는 십일조 명세서와 봉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계명 지키는 일을 단 일 초라도 늦추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저활동이었던 한 형제가 18



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독신성인들을 활동화시키겠다는 노력의 결과로 다시 활동화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첫날 밤에 이 형제는 유일하게 비회원을 데려 오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었지만, 몇 주 뒤에는 약 30 명을 가정의 밤과 다른 활동에 데려 왔습니다.

이 형제는 웹 디자이너이며, 한 동업자와 함께 웹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웹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비회원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담대하게 자신의 간증을 나눕니다. 동료 하나는 전에 기독교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형제는 그를 독신성인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 그의 동료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재활동화 된 형제는 선교사들이 토론할 때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전함으로써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 젊

은 여성으로서 인생의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과 많은 기도를 한 지 3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열쇠를 집에 놓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열쇠를 집어 들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그가 타야 할 버스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마음이 무척 심란했습니다.

그 무렵, 두 명의 선교사가 함부르크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가면서, 그들은 갑자기 버스에서 내린 다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장로는 버스에서 내리자 곧 이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교회에 관해 간략하게 말하고 토론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즉각 어찌면 이 장로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

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선한 회원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한 그녀가 워드의 일원이라는 특별한 느낌이 들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3주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워드 청년 프로그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주님은 교회 회원들의 마음 속에 신앙을 쌓고 또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족, 이 형제, 이 자매 모두는 그분의 교회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강화됨으로써 구세주를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지시할 중심이 되는 지도자 없이,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교회는 배도에 빠져들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이 특별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구세주의 지시 아래 움직이는 중앙 집중식 교회 관리 조직이 필요하고, 그것은 구원과 승영을 위해 필요한 교리와 의식을

제공합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합당한 관능과 조직을 가진 교회를 세우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11~15)

신앙개조 제6조는 이렇게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신권이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관리 조직이 지상에 있으며, 우리를 다시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세워졌음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건물이 세워질 때 한 번에 벽돌 한 장씩 올라가듯이, 구세주의 참된 교회도 한 번에 하나의 대화, 하나의 간증, 하나의 침례를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구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하여 그분의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겸손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외설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모두 개인의 품행을 향상시키고 외설물의 맹공격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합시다.



지난 여름 저는 옥스 자매와 함께 2년 간 머물렀던 필리핀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의 봉사를 좋아했으며, 집으로 돌아온 것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 있었을 때, 우리 주위가 새로운 빛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이 많았으며 때로는 새로운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멀리 나가 있는 동안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외설물의 침해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적 욕구를 부추기는 말과 영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 제작되어 보급되는 외설물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현재 악의 눈사태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우리 가운데의 비극적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1쪽)라는 가장 분명한 말로 경고하셨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감독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큰 우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펠기세텍 신권 소유자 여러분, 그리고 청남 여러분, 저는 오늘 외설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외설물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외설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 주제에 집중하면서 저는 예언자 야곱과 같은 심정을 느낍니다. 야곱은 그 시대의 남자들에게 감수성이 예민한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야곱서 2:7~11 참조) 저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서 2장에서 야곱은 “음행”(23, 28절)에 대해 남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들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그들의]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앙을 잃었”(35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음행”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의심할 여지없이 일부 남자들은 이미 악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위대한 설교의 주요 초점은 이미 저지른 악행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악행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왔으니”(야곱서 2:4)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된 죄를 짓기 시작하러”(5절)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마음에 지닌 죄를 너희 앞에 드러내어 증거”(6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또한 니파이삼서 12:28; 교리와 성약 59:6; 63:16 참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이 읽고 보는 것에서 “부적절한 성관계에 관한 선전 책자”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다음 비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외설적이거나 호색적인 이야기와 사진은 불결하거나 오염된 음식보다 더 나쁩니다. 신체는 불건전한 음식 자체를 거부하려는 방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치명적인 예외와 함께 나쁜 음식이 우리를 아프게는 하지만 영원한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불결한 이야기나 외설적이거나 호색적인 그림이나 문학을 즐기는 사람은 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재생 체계 속에 이것들을 기록합니다. 뇌는 불결한 것을 도로 토해 내지 않습니다. 일단 기록되면, 그것은 항상 주제를 상기하기 위해 남아 있으면서 그것의 왜곡된 이미지를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을 삶의 건전한

것들로부터 다른 길로 이끌어 냅니다.”¹

이 곳에 계신 형제 여러분, 저는 외설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감독과 전문 상담자들이 알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활동 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설물에 연루된 자들의 일부는 외관상으로 그것의 심각성을 경시하며 아무도 자기가 연루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외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추천서 접견 시에 외설물에 대해 별도로 질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접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영적인 민감성과 정직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 다른 질문들로 이 주제에 관한 고백과 토론을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물래 외설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구세주의 가르침 중의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길도 깨끗하리라”(마태복음 23:15~26; 또한 알마서 60:23 참조)

구세주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나 인간의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것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비난하셨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마태복음 23:27~28)

그러한 위선의 즉각적이고 영적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외설물을 구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권의 권세를 박탈당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교리와 성약 121:37)

외설물을 즐기는 자들은 또한 주님의 영의 동반을 잃게 됩니다. 외설물은 영성을 파괴하는 환상을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로마서 8:6; 니파이서 9:39) 곧 영적인 사망입니다.

경전은 반복해서 주님의 영이 불결한 처소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그의 영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교리와 성약 20:77)할 것이라고 우리는 성약합니다. 성적 자극을 위해 외설물을 구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부정하고 순결치 못한 행동을 삼가야 하는 성스러운 성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사도행전 8:22)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정신 건강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외설물의 영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영성에 대한 외설물의 영향력에 대해, 즉

주님의 영을 동반할 우리의 능력과 신권의 권세를 행사할 우리의 역량에 관한 외설물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설물은 또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인간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지난 10월에 신권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힝클리 대관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 사실을 경고해 달라고 부탁한 어느 여성의 편지를 인용하셨습니다. 외설물은 “마음과 영혼의 밑바닥까지 해를 입히며 관계를 벗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질식시키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0쪽)

최근에 있었던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여성이 비슷한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외설물에 탐닉한 채 수년 동안 교회의 중요한 부름에서 봉사했었습니다. 그녀는 신권 지도자들이 이 외설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과민 반응을 하거나 또는 저의 탓이라는 등의 온갖 대답들을 받았어요. 현재의 우리 감독님은 훌륭하신 분이예요. 남편은 15년이 넘도록 외설물에 중독되어 있어 그만 두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그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외설물은 정상적이며 낭만적인 감정을 누릴 능력을 망가뜨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것은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도덕적 장벽을 줍니다. 양심이 무디어짐에 따라 외설물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끼칠 영향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본 대로 행동하도록 이끌리게 됩니다.

외설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손상시키며 사용하는 자들을 “올가미를 씌워”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욱더 끌어당깁니다. 외설물과 마약에 탐닉해 온 한 남자가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적어 보냈습니다. “제 견해로는 코카인은 이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저는 둘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 가장 끊기 힘든 중독성 마약도 [외설물을 중단하려는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한, 2005년 3월 20일)

일부 사람들은 외설성이 “강렬”하지 않은 “가벼운” 것을 본다고 주장하면서 탐닉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어느 현명한 감독님은 이를 두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보는 것들을 “그다지 나쁘지 않아”라든지 “나쁜 장면은 하나밖에 없어”라고 비교하며 합리화시키려 하는 남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악마의 시험은 외설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이 물러날 정도로 사악한 생각을 오래 마음에 품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악한 것의 권세와 지시에 내맡겨집니

다. 이 감독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구에 눈을 뜨기”(서한, 2005년 3월 13일) 위해 인터넷이나 기타 외설물을 사용할 때 그들은 죄로 심히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의 위대한 설교는 이 끔찍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이 물러나면 우리는 의의 적이 되고, 명백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며 “주 앞에서 몸을 움츠리게”(모사이야서 2:36~38 참조)됩니다. 베냐민 왕은 “이 같은 자는 자비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다만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을 이 저의 마지막 심판이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윗 왕의 비극적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 말아야 했던 것을 보도록 자신을 내버려두었습니다.(사무엘하 11장 참조) 그가 본 것에 유혹 받아 그는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3)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중 두 가지를 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자였던 왕은 떨어져 승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고리와 성약 132:39 참조)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무도 악을 따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강 에스케레이터에 붙잡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엘마 이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 나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였고 ...

“...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힌 바 되었느니라.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 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6:13~14, 17~20)

이러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러한 유혹으로 괴로움을 겪는 형제 여러분, 길은 있습니다.

첫째, 악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옹호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4번



세기 동안을 우리의 지도자들은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자녀들에게까지 이 악을 피하려고 호소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잡지들은 이 주제에 관한 경고와 정보와 도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작년과 금년에 걸쳐 20 개가 넘는 관련 기사가 실렸고 또 실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주님과 그분의 종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핑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영혼을 다해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노예로 삼은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감독의 우정 어린 인도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2쪽)

셋째, 외설물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외설물을 보게 된다면—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 애굽의 요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그녀가 요셉을 잡으며 유혹할 때 그는 유혹을 물리치고 “밖으로 나갔”(창세기 39:12)습니다.

어떤 유혹도 뿌리치십시오. 죄를 예방하고 죄에 반드시 따라오는 파멸에 관련된 일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쫓아 버리십시오! 얼굴을 돌리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한 길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약을 기억하고, 충실히 성전에 다니십시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현명한 감독님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신권 소유자가 정규적으로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기간에

는 외설물에 빠질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성전 예배에 무심해졌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부모는 가족이 연기나 일산화 탄소로 위협을 받는다면 경고하기 위해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협에 대한 보호 장치, 즉 인터넷 접속에 관한 필터 장치와 다른 사람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곳에 컴퓨터를 두는 것과 같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설물을 즐기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타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구매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는 일부 남자들에게 외설물의 표적이 되어 이 문제를 확대시키게 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모두 개인의 품행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영성과 결혼과 자녀들을 위협하는 외설물의 맹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Challenges for the Year Ahead*(pamphlet, 1974), 4~5; reprinted in "Things They're Saying", *New Era*, 1974년 2월호, 18쪽.
2. 예, 고든 비 핑클리, "우리 가운데 있는 비극적인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9~62쪽; 데이비드 이 소렌슨, "방울뱀하고 놀 수는 없는 거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8~50쪽; 토마스 에스 몬슨,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성도의 빛*, 1979년 11월호, 66~67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개인적인 도덕성", *성도의 빛*, 1984년 11월호, 70~73쪽 참조.
3. 예, 로리 시 리드, "의의 길로 돌아옴:외설물을 버림", *리아호나*, 2005년 2월호, 28~33; Arianne B. Cope, "Internet Cafe", *New Era*, 2005년 3월호, 34~37쪽; 나이코울 에스 라슨, "The Decision", *Friend*, 2004년 3월호, 40~41쪽 참조.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제이 웨튼
철십인 정원회

여러분은 구세주와 그분의 예언자들이 늘 가르친 것들, 즉 봉사하고, 신앙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선 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¹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세대를 거쳐 오면서 과거와 현대의 예언자들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사랑을,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녀야 한다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성역이 끝날 시각에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²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영으로부터 받은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으며, 그의 지식은 계시에 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종 곧 생활 방식과 그 본성은 오순절 이후에 마음의 변화라는 은사와 성신의 증거를 받은 후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간증을 갖고 있지만 개종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 창조주의 손 안에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 줌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대답하시며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으며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³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 하나에게 적극적인 사랑과 자비를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기 ... 위험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 주린 자를 먹이고 ...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⁴ 여러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이거나 세상적인 도움을 주니까?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 주니까?

개종이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며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축복을 나누는 데 삶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편리할 때 양을 돌보며, 바쁘지 않을 때 양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어린양을 먹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너희 가까이 두라. 그들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안전하게 인도하라.”⁵

친절과 봉사가 갖든 모든 비이기적인 행동은 여러분의 영성을 높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영원한 발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남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대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개종의 잣대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신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은 완전이라는 목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가 복음과 승영의 삶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은 손을 내밀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⁶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인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⁷ 그의 가르침은 우리 곧 말일에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 주님의 백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끄는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최고의 법”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는 간중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복음은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⁹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 [하지 말라].”¹⁰ 야고보는 개종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이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¹¹ 그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마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가 그의 영혼을 ...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¹² 길을 잘못 든 형제를 돌아서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와 여러분 자신 모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숨겨져거나 사함 받습니다.

남미에서의 생활,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이 하신 다음과 같은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나의 백성들을 오래 흩어져 있던 곳에서 다시 모으며 저들 가운데 나의 시온을 일으켜 세우[며] ...

“내가 저들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요, 저들이 언약을 맺어 내가 이 땅을 상속의 땅으로 내어준 야곱의 잔류민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게 할 것이요.”¹³

문자 그대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서 실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러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성장은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커다란 과제인 동시에 커다란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했습니다.¹⁴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신들이 이방인이요 외인이며 길가에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 모로나이가 설명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 ... 도록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나니.”¹⁵

많은 활동 회원들은 길가에 떨어진 저활동 회원과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회의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조사는 인터뷰를 받은 거의 모든 저활동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교회가 참됨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와드와 지부에는 교회로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는 선하며 곧고 정직한 남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떠났

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으며 아무도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끔 방지됩니다. 신앙을 가진 형제나 자매가 이들을 방문하여 친구가 되어 주고, 강화시켜 주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들과 그 가족은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¹⁶ 누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아마도 주님은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 오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저활동의 그들 속에서 방황해 온 사람들이나 참된 우정의 손길을 내민다면 돌아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영혼을 위한 이 커다란 싸움에서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규칙은 우리 각자에게 보다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전임 선교사가 토론을 가르칠 때 함께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의 개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과 많은 공부와 기도로 쌓여진 말씀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¹⁷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개종 과정에서 선교사의 역할은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대관장단의 최근 서한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도와야 할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와드 내의 모든 사람들은 우정 증진을 해야 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가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회원에게는 와드를 강화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¹⁸

형제 자매 여러분, 개종과 변화의 과정이 새로운 회원이나 기존 회원 각자 안에서 지속 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성전의 축복을 포함하여 회복의 충만한 축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모든 성도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낌없



이 주어야 하며,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환란 속에서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¹⁹

우리의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 각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들어올려 교회의 품 안에 안기게 하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라며, 또 간구합니다. 그 곳에서 강한 팔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지지하며 그들이 행복하고 건설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²⁰

사랑은 그저 말이나 선포가 아니라, 크고 첫째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²¹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²²

여러분은 구세주와, 과거와 현재의 예언자들이 늘 가르쳐 온 것들, 즉 봉사하고, 신앙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라는 약속이 있습니다.²³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사랑으로 다가설 때, 여러분과 그들

모두는 주님의 영으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²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기하시느”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²⁵ 저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2:36~40.
2. 누가복음 22:32.
3. 누가복음 10:29, 36~37.
4. 모사이아서 4:26.
5. 요한복음 21:15~16 참조.
6. 마가복음 8:35.
7. 야고보서 1:1.
8. 야고보서 2:8.
9. 야고보서 2:18.
10. 야고보서 1:22.
11. 야고보서 1:27.
12. 야고보서 5:19~20.
13. 니파이삼서 21:1, 22.
14. 에베소서 2:19.
15. 모로나이서 6:4.
16. 마태복음 25:40.
17. 교리와 성약 50:14.
18. 대관장단 서한, 2004년 12월 22일과 2005년 2월 11일.
19. History of the Church, 2:229.
20. 고든 비 힝클리, “구조의 손길을 뻗치십시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86쪽.
21. 요한복음 14:15.
22. 요한복음 21:17.
23. 교리와 성약 84:88.
24. 교리와 성약 50:22.
25. 모로나이서 7:48.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테마 다미아니
철십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영원한 안목과 힘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주치는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¹

이 지상 생활의 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이 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며, 낙담하지 않으며 신앙을 잃지 아니하며 생을 기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² 그것은 자신감을 갖고 삶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영원한 안목과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위해 예언된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이 고난들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들 중에는 소망의 결여, 사랑의 부족, 평화의 결핍이 있습니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면 응당 절망할 것이다.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³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세월은 절망의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절망도 커질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⁴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늘어나면서 참된 사랑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공포와 불안과 절망이 자라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리라”⁵ 우리는 평화가 박탈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신권을 회복하신 시대, 곧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때를 위해 지상을 준비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생에서 시련들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앙과 순종심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로써 우리가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을 저들에게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선인과 죄인 ...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⁷ 복음의 반석 위에 삶의 집을 짓는 자의 인생에도 이 세상의 것에 삶의 집을 짓는 자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⁸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에 대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여정에서 꾸물거리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은 우리의 발전을 위한 기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모



일요일 오전 모임 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하버 스테이크 센터를 떠나려고 하는 독신 형제를 돕는 가족 회원들

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니, 이로써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저들이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니, 징계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느니라.”¹⁰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으니, 너는 저보다 크뇨?”¹¹ 우리는 모든 시련을 발전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라. 이는 징계함으로써 저들을 구조할 길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니”¹² 주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써, 우리의 진지하고 참

된 회개로써,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끝까지 견뎌으로써 오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거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가 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저들이 겪은 고난을 나 주가 겪게 하였느니라.

또 저들은 주 저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더디하였으니, 그러므로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들으시기를 더디하셨고 저희 환난의 날에 저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셨느니라.

“저들이 평화로운 날에는 나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더니, 환난의 날에는 부득이 나를 찾는 도다.”¹³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진지한 소망을 가질 때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짐이 가볍게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담대함과 소망을 무너뜨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사도들에게 우리 자신을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걱정”을 두려워하게 하고 부를 우선으로 구하게 하여 끝까지 견디기보다는 포기하게 하며, 거짓 예언자가 우리를 속이게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¹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에 대한 주님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¹⁵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실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예언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을 가질진대 마땅히 소망을 가져야 하리니,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함이라.

“... 또한 사람이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여 성신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려 하면 마땅히 사랑을 가져야 하리니.”¹⁶

우리가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속죄를 받아들이면서 신앙과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이 생의 시련과 고통에 맞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¹⁷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왕국은 너희 것이요, 그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¹⁸

예언자 이더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진대 더욱 아름다운 처소 곧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리라는 소망을 가지리라 하였으며, 이 소망이야말로 신앙에서 비롯하여 인간의 영육에 닿이 [되는] 것이다.”¹⁹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6:33.
2. 니파이서 2:25.
3. 모로나이서 10:22.
4. 마태복음 24:12.
5. 교리와 성약 1:35~36.
6. 아브라함서 3:25.
7. 전도서 9:2~3.
8. 마태복음 7:24~27 참조.
9. 누가복음 9:23.
10. 교리와 성약 136:31.
11. 교리와 성약 122:7~8.
12. 교리와 성약 95:1.
13. 교리와 성약 101:2, 7~8.
14. 마태복음 13:19~23 참조.
15. 마태복음 11:28.
16. 모로나이서 7:42, 44.
17. 교리와 성약 61:36.
18. 교리와 성약 78:18.
19. 이더서 12:4.

연로하여 허리가 굽은 분들의 권고에 감사함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
철십인

우리는 특별히 [연로하여 허리가 굽은] 분들이 전하는 간증의 힘을 인식하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예언자와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를 경우, 구세주께로 좀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지혜와 권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비록 많은 분들이 연로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왕국을 발전시키는 계시와 영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특별히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자신이 충실하고 순종적인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았습다. 그래서 저는 성장해 가면서 권고와 충고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부모님이 비록 연로하기는 했지만, 그분들에게 가서 지혜와 위안과 인도를 받았습다. 제 부친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습다만, 제 평생 동안 훌륭하고 모범적인 지혜의 근원이셨으며, 어머니는 지난 월요일에 101세를 일기로 영원한 동반자 곁에 누우셨습다. 어머니는 백 세가 되셨을 때, 평생 지켜온 확고한 간증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살아온 길이요, 비통함을 피하도록 도와 주는 계획의 일부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생도 좋지만 다음 세상이 더 훌륭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Growing Old Graciously: Lessons from a Centenarian”, *Religious Educator* 5, no.1 [2004]: 11)

모친께서는 종종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세가 점점 더 들어가시면서, 모친의 기도는 특별히 제게 강렬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과 제 양친은 모두 의로운 길에서 잘 견디셨거나 견디고 계시며, 모든 자손들이 따르도록 충실하게 헌신해 온 값진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1989년 11월호 엔사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 중에 나이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주님은 그의 가장 큰 책임 중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맡겨 오셨습니다. 여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노년기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복



음에 충실하여 온 사람들의 영감적인 인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연로한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4쪽)

이 말씀은 예언자와 사도들이 시대를 통해 남긴, 특히 자신들이 “나이 많아 늙거나” “진토 속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남긴 위대한 설교와, 축복과, 간증과 권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씀 가운데 몇 가지는 가장 가치 있고 자주 인용되는 경전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서 6장 57절에서 에녹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곧 어디서든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라.”

이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는 아담과 이브의 때부터 가르쳐졌으며, 경전에서 거듭 반복하듯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에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권고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창세기 50:24)

여러 세대가 지나고 요셉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려는 무렵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을 남기고 지도자의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전했으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의 날이 가까워오자 다음과 같은 불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여호수아 24:15)

나중에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와 같은 예언자들도 성역을 베푸는 동안 그와 비슷한 잊혀지지 않는 명언을 남기고, 메시아의 강림과 그분의 무한한 속죄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물론경 전체를 통해 니파이, 야곱 및 베냐민 왕이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한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의 힘찬 설교는 온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아빈 아다이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속이 영원하신 아버지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것임을 저들에게 가르치라.”(모사이아서 16:15)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엘마와 그의 아들 엘마, 또한 힐라맨과 힐라맨의 아들로 이어집니다. 힐라맨은 아들들에게 값진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히라맨서 5:12)

이들과 물론 자신을 포함하여 몰몬경의 다른 예언자들은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몰몬경은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의 견줄 데 없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모로나이서 10:32)

우리는 신약전서에서 이와 비슷한 “마지막 간증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견딘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7) 우리는 위대한 선임 사도인 베드로의 말씀에서 심오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베드로전서 5:5~6)

분명 온 시대를 통틀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인물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분은 사도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19~20)

이 모든 경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과 지식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는 그 각각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영감에 찬 개념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십니다.
- 그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그분의 성약의 백성이며 그분과 맺은 성약을 늘 지켜야 합니다.
-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 우리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을 받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 즉 회복의 시대인 현대의 예언자들은 거듭해서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가르침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웁니다. “인자로서 그분은 육신과 피가 감내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에 대해 승리를 거두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 43쪽)

다음은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이하신 말씀 중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주님을 위해 성역을 베푸는 우리 형제들인, 고대

의 이 위대한 사람들과 사도들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제 친구요, 구세주요, 저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성도들이 해의 영광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상속을 얻기를 바랍니다.”(“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소망”, 성도의 벗, 1979년 2월호, 112쪽)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 고든 비 항클리 대관장님은 강력한 확신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최근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진실함에 대해 실질적이고 타오르는, 절대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저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업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영적인 명상”, 리야호나, 2003년 10월호, 5쪽)

고대와 현대의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의 간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불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러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2~23)

저는 앞에 언급한 간증들이 참되다는 겸손한 확신을 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요, 주님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압니다.(요한복음 15:14 참조) 경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큰 지혜를 지니고 있는 연로한 분들이 전하는 간증의 힘을 인식하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6개월 전 저는 새로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처음 이 연단에 섰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합니다만, 봉사하라는 부름과 분명하게 가르치고 권능으로 간증을 전하는 일에 대해 중압감을 느꼈으며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동안 성신의 도움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일요일 오전 모임을 하는 중에, 이 단 앞에서 전에 잠깐 동안 받은 영적인 느낌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세주에 대해 강한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미리 예고하신 중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날 오전에 부른 중간 찬송은 “이스라엘의 구주”(찬송가, 27장)였습니다.

여러 대회 모임을 위한 음악은 수주 전에 결정됩니다. 분명히 저의 새로운 부름이 있기 전에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대회의 그 특정한 모임에서, 제 자신과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회중이 처음으로 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모두에게 교훈이 되고 영적으로 고양되게 하는 중간 찬송을 제게 선정하라고 했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 “이스라엘의 구주”를 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서 그 감동적인 회복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제 마음속에는 물론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강하게 하시어 마침내 스스로를 구할 수 있게 하셨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니파이일서

1:20)

제 마음은 즉시 니파이의 “주님께서 ... 자비를 베푸사”라는 말에 이끌렸으며,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께서는 여러 주 전에 선택된 찬송가를 통해 가장 개인적이고 시기 적절한 위안과 확신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기막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주님의 자비가 실제적인 것이며 그런 일이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종종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그 자비를 분별하고 인식하도록 도와 줍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 10월 이후 저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공부, 관찰, 명상 및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축복이고, 힘이며, 보호와 확신, 인도, 사랑이 담긴 친절, 위안, 지지 및 영적인 은사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은 “인간의 자녀의 상태에 알맞게 ... 자비를 베푸실(교리와 성약 46:15)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주께서는 성신인 “다른 보혜사”(요한복음 14:16)를 보내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8 참조) 구세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방법은 그분의 풍성하고 부드러운 자비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시험에 직면할 때, 신앙의 은사와 우리 능력 저편까지 미치는 개인적인 확신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두 가지 예입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 그리고 양심의 평안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입니

다. 상쾌한 마음으로 신체적인 한계와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끈기와 불굴의 정신은 구세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예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지난 2003년 12월 이라크에서 남편을 잃은 네 아이의 어머니가 한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충실한 자매님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떻게 그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와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삶에 변화가 일어난 뜻밖의 현실 속에서 이 훌륭한 자매님을 상기시켜 준 것으로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낙을 받아 성탄절 카드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에게! 함께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헤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으로 함께 있을거야.

“하나님이 너희 모두가 안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성탄절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빠와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성탄절 안부에서 언급한 헤어져 있다는 말은 군 복무로 인해 헤어져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에게는 떠나버린 영원한 동반자요 아버지로부터 티끌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가장 필요한 영적인 확신과 간증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자비는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충실함, 순종 및 겸손은 우리 삶에 자비를 불러들이며, 종종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이 중요한 축복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신권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스테이크 내에 있는 13세에서 21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름을 외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남 청년의 사진을 갖고, 독서 카드를 만들어 출장을 갈 때나 다른 때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권



지도자는 곧 모든 청소년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신권 지도자는 사진으로만 알게 된 한 청남에 대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그 청남이 흰 셔츠에 선교사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남은 옆에 앉아 있는 동반자와 함께 한 가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남은 손에 몰몬경을 들고 있었으며,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신권 지도자는 꿈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후에 있었던 신권 모임에서, 그 신권 지도자는 꿈에서 본 그 청남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인사를 나눈 뒤, 그 지도자는 그 청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몽상가는 아닙니다. 이 스테이크에 있는 어느 특정 회원에 관해서도 꿈을 꾸 적이 없는데, 처음 형제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대해 말할 테니 잘 들어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면 좋겠습니다.”

신권 지도자는 꿈에 대해 말해 준 뒤 그 청남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그 청남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가 누군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 청남과 신권 지도자간의 나머지 대화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 후 몇 달 동안 시간 나는 대로 만나 같이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남은 영감 받은 신권 지도자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자비는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충실과 순종만이 우리가 이 중요한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종종 주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도와 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담백함, 감미로움, 그리고 일관성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혼란스런 세상에서 우리를 강화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을 주지 못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저 쓸데없이 설명하려고 할 때, 논리와 이성으로는 인생의 불공평함과 불평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필멸의 경험과 평가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내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로 축복을 받게 되며 구원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만큼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니파이일서 1:20 참조)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받기 위해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니파이일서 1장 20절에서 “택하신”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사전에서 “택하신”이라는 말은 선별되고, 우선적으로 취하여지거나 뽑힌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혹은 택하신 사람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2판, [1989], “Chosen”)

이 메시지를 잘못 듣거나 읽는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활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며, “나는 확실히 선택되거나 선택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사가 좀더 의롭게 보이거나 높은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구속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선택되거나 선택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독점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의 여부는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결정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다음 구절에서 선택된이라는 말의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교리와 성약 121:34~35)

저는 이 구절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척 직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이 추가되리라

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택된 사람들”을 한정된 소수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염원과 순종입니다.

예녹은 이 교리의 요지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선택된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예녹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데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

“또 네 형제에게 내가 이르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나 저들의 하나님을 택하라는 계명을 주었도되”(모세서 7:32~33)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선택의지라는 은사의 근본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을 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고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초대하게 됩니다.

가장 잘 알려지고 자주 인용되는 성구는 모세서 1장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업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교리와 성약에서 찾을 수 있는 비슷한 구절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자주 인용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라, 네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네 일이니

라.”(교리와 성약 11:20)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은 그분의 자녀에게 불시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하여 택함을 받게 되고, 성신을 통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받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말에 참석하고 있는 바로 이 대회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영감에 찬 권고, 즉 우리 시대와 상황과 문제에 대해 시기 적절한 권고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고양되고, 교회되며, 회개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강화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영은 우리 신앙을 강화했으며 회개하고, 순종하고, 발전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증가시켰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이 대회 동안 우리가 받은 개인적인 영감과, 권고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들에 따라 행동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잠시 후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폐회사와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받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시편 145:9)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것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충실함, 그리고 순종은 우리 생활에서 그분의 자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도와줍니다. 저는 그분의 종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주며 구세주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말일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가 우리를 강화하고 도울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과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감미롭고 풍성한 자비에 대한 감사로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확실히 주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역시 어디서든 그분의 궁핍한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대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강화되고 신앙이 활력을 얻었습니다.

현대 기술은 분명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대회의 진행 상황 전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전세계 교회 회원의 95퍼센트가 우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위대하고도 영원한 진리들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 받은 행운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회원들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과 함께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결코 독선적이거나, 거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앞보거

나 멸시할 어떤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39)

우리의 피부색이나, 눈 모양이나, 말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다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회 회원이 아닌 자들의 자녀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적절히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악에 맞서 악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구적으로 주님의 집에 갈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전에 감으로써 외설물, 약물 남용 및 정신적인 퇴폐의 악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하도록 배워 왔습니다. 우리의 인도주의적 노력은 문자 그대로 우리와 믿음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왔습니다. 끔찍한 해



일 재난과 갈등, 질병, 굶주림으로 인한 그 밖의 재난들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올 2월에 미국 적십자사 총재께서 교회에 인도주의상(Circle of Humanitarians Award)을 주었습니다. 이 상은 미국 적십자사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혈액 예방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는 의미로 수여된 것입니다.

또한 국제 로타리 클럽은, 아직도 현존하는 제3세계 국가의 소아마비 퇴치에 쓰일 기금을 기부한 교회에 감사 표창을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생

명들을 구했으며 많은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관대함으로 마련된 자원들로 가능한 한 우리는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 하십니다. 우리 역시 어디서든 그분의 공평한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충실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축복과 사랑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한 개체로서 존재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응답하시리라는 저의 증언과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임을 증언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은 소년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며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로 안내하는 장막을 여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간증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수잔 더블류 테너
본부 청년 회장

우리 모두는 위험한 시대에 진리를 지키려 노력하면서 모로나이가
그랬듯이 그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살던 조그맣고 초라한 통나무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거룩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로나이 천사가 처음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 그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시작했던 곳에 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이 두 예언자, 즉 그의 시대에 마지막 예언자인 모로나이와 우리 시대의 최초의 예언자인 요셉의 만남을 깊이 생각해 보니 제게도 그들과 “비슷한” 순간들이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위대하고 기

이한 일”에 대한 간증을 드리면서 제 삶에 적용되었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모로나이를 만났을 때 요셉의 나이는 17세로 여러분 청년들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823년 9월 21일 밤 다섯 형제가 잠들어 있던 이층 침실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장과 처지”(요셉 스미스서 2:29)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떤 큰 죄나 증오할 만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여 젊은이로서의 약점”(요셉 스미스서 2:28)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재확인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요셉의 느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다는 느낌과 신성한 재확인의 필요성 때문에 얼마나 자주 무릎 꿇고 기도드릴까요?

요셉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요셉 스미스서 2:33)고 적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임무를 지닌 천사가 [그에게] 전해 주신 바

를”(요셉 스미스서 2:44) 정말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영적인 재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지상에서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 천사는 그 날 밤에 요셉에게 두 번 더 나타났으며, 다음날 들판과 언덕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사 년 동안 그는 매년마다 구모라 언덕으로 알려진 곳에 나타났습니다. 모로나이는 처음에 나타났을 때 같은 메시지를 거듭 반복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의 경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제 자녀들도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해 달라고 조릅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같은 것을 반복하는 일을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로나이에게 반복해서 어린 예언자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반복은 복음 원리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줍니다.

이런 규칙적인 천사의 방문을 통해 금판을 묻었던 고대의 예언자와 그것을 다시 빛으로 드러내도록 택함을 받은 현대의 예언자 사이에 영광스러운 유대가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 모두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키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로나이상이가 거의 모든 현대 성전의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 깊은 일입니까! 이것은 오늘 밤에 우리 합창단이 부르게 될 노래에 있듯이 모로나이가 “오랜 침묵”을 깨뜨린 “하늘에서 온 [영광스런] 천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찬송가, 28장)

요셉 스미스는 모로나이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모로나이가 나타났던 통나무 집의 안전하고 거룩한 곳에서 요셉은 자신이 배운 것을 그를 신뢰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때로부터 요셉은 줄곧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우리는 매일 저녁 자녀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것들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 우리 가족은 지상에 살았던 어느 가족보다도 가장 특별한 면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

합니다. ... 함께 둘러앉아 열여덟 살 된 소년 이 주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The Revised and Enhanced History of Joseph Smith by His Mother*, Scot Facer Proctor 및 Maurine Jensen Proctor 편집, 111쪽)

이런 매일매일의 가정의 밤의 결과로 루시 맥 스미스는 이 때야말로 가정에 사랑의 단합과 행복, 평안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서 어린 요셉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까! 그는 간증과 영적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모 형제들과 자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가족은 요셉과 그 가족에 대한 외부의 박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서로 단합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모로나이의 가르침과 모범은 예언자 요셉이 사악한 세상에서 증인이 되는 방법에 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그가 현대에 존재하리라고 예언했던 세상, 즉 “살인과 강탈과 거짓과 사기와 음행과 온갖 가증한 악행이 있을”(몰몬서 8:31) 시대와 비슷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모로나이라도 외로움과 실망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니파이 백성의 멸망을 가져왔던 레이먼 인들과의 대격전 이후에 그는 “나만 홀로 남은 지라 ... 나의 부친과 친척은 모두 싸움터에서 전사하였고 친구도 없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살려 두실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몰몬서 8:5)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로나이의 외로움과 낙담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때때로 사악한 세상에서 친구도 없이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에 직면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위험한 시대에 진리를 지키려 노력하면서 모로나이가 그러했듯이 그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적대적인 세상과 마주했을 때 모로나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부친의 지시에 충실히



순종하여 금판의 기록을 마쳤으며, 예언자들의 기록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자신의 낙담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성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모로나이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약속된 축

복을 믿는 신앙을 행사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모로나이를 비롯하여 과거 예언자들이 가졌던 기쁨에 넘치는 기대는 그들이 시현으로 우리 시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여러분과 같이 성약을 지키는 강한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홀런드 장

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성공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이 성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승리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여러분처럼 모인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테러, 승리, 결혼 잔치”,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4년 9월 12일; www.ldscoes.org 참조) 우리에게는 모로나이가 가졌던 “기쁨에 넘치는 기대”를 성취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우리는 주님의 성약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49:15~16, 니파이일서 21:15~16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친한 친구들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고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성약이 갖는 힘, 곧 결속시키고 강화시키는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과 김볼 해트, 그리고 9개월에서 일곱 살에 이르는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외할아버지 댁에서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속도로의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한 대형 트럭의 바퀴가 갑자기 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가족 승합차의 운전석 쪽에 부딪혔습니다. 운전전을 하고 있던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볼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캐서린은 가까스로 차를 갖길로 몰고 가서 응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응급 의료진이 남편과 두 자녀를 돌보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경찰차 안에 앉아 다 큰 어린 두 자녀를 무릎에 눕히고는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께서 원하시지만 한다면 남편을 치료할 권세를 갖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련을 헤쳐 나가도록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편은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자녀들이 베인 상처와 타박상, 그리고 그 밖의 사소한 부상을 병원에서 치료 받고 난 뒤 안전하게 집으로 와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캐서린은 지상에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같이 있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김볼(주: 남편의 이름)과 제가 성전 성약으로 인봉되어 있어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생에 닥친 가장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성약은 젊은 어머니를 지켜 주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괴로울 때나 슬플 때” 우리를 지켜 주는 성약의 권세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는 군중 속에서 다섯 살 된 아들 테일러가 소리 높여 “가족은 영원해”(찬송가, 189장)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그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묶어 주게 될 인봉의 성약에 관해 배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캐서린의 아버지가 드린 말씀에서 성약의 권세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는 모로나이가 묻었다가 예언자 요셉에게 전해 준 소중한 기록에서 성구 하나를 인용하면서, 복음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우산이 아니라 반석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낼 ... 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한 ... 저주의 구렁으로 끌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히라맨서 5:12)

그 가족이 보여 준 크나큰 힘은 그들이 가족으로서 서로가 영원히 결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 있어 떨어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모로나이, 요셉 스미스, 그리고 캐서린과 김볼처럼 우리도 시련, 악행, 박해를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신권 성약은 우리를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과 영원히 묶어 주며 또한 의와 권세로 우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복음이 회복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시대에 사는 것이 저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층의 침실에서 만나 힘을 합쳐 물문경을 가져다 준 두 예언자, 모로나이와 요셉 스미스에 대한 저의 간증과 감사를 전합니다. 회복된 복음에 관한 예언자 요셉의 기쁨에 찬 외침을 들려 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즐거움의 소리니 ... 이는 곧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 모로나이가 못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니 곧 계시될 책이로다 ...

형제 [자매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치자.”(교리와 성약 128:19, 20, 22, 24)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복음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내게 시키실 일

줄리 비 벡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한 천사 모로나이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일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진지한 기도를 드렸을 때, 천사가 그의 침대 곁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고, 그의 이름은 모로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33 참조)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오, 아녜요. 천사님, 저는 단지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단다.” 그러나 물론 요셉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한 일은 놀라운 것이었습니

다. 그는 수수한 시골 소년으로서 삶을 시작했으나 그를 통하여 몰몬경이 출현되고 번역되었습니다. 신권과 그 열쇠들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거룩한 성전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들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제 지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모로나이서에서 말한 기적의 날이었으며(모로나이서 7:35~37 참조) 수세기 전에 니파이에게 미리 알려진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의 날이었습니다.(니파이일서 14:7 참조)

요셉이 시작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의 초기 회원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이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교회의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단순한 자들의 신앙과 일을 통해 지상에서 그분의 성약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17(23 참조))

가족 중 최초로 교회 회원이 된 한 청년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녀는 낯은 개인 발전 기록부를 쥐고서 자신은 복음에 중심을 둔 가족을 갖기를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있는 한 청년 회장은 모국어

로 된 교회 지침서도 없지만 청년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회원들은 정규적으로 성전에 갑니다. 그들은 돈을 저축하여 버스나 기차나 배를 타고 스웨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전까지 여행합니다.

아홉 살 된 저의 조카 김벌리는 그녀의 친구에게 교회에 대해 매우 열정적으로 말했고, 그녀의 친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교회에 다니고 싶어. 어디서 내가 등록해야 하나?”

제가 속해 있는 와드의 청년 청년들은 지도력 기술과 재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말씀을 하고,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수많은 다른 일들을 하여 이 기이한 일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타에 있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의 청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합당하며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수가 적은 곳에도 가 보았고 많은 곳에도 가 보았으며, 교회가 새로이 세워진 곳과 교회가 잘 조직되어 있는 곳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책임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회복된 복음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간증은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적의 날의 일부입니다.

제 자신의 인생에서도, 저는 회복된 복음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브라질 선교부를 감리하시도록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가 제게는 매우 즐거웠으며, 그 곳은 어린 시절을 보내기에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제 형제들과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임은 정장을 하고 선교사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씩 직접 선교사 소책자를 만들고 온 마당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이동”도 했습니다. 5년 동안 밤마다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주제는 선교 사업이었고 저는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신앙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저는 제가 위대한 사업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브라질의 회원 수는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몇 명의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아주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에서 매주 똑같은 다섯 개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것은 그 노래들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노래는 “아 루스 디비나” 즉 “신성한 빛”(영문 찬송가, 305쪽)이라는 노래와 숲속 한가운데 토끼가 있다는 내용의 노래 (“The Little Rabbit”, *Children’s Friend*, 1955년 6월, 257쪽)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경험은 초기 개척자들의 것과 비슷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교회 본부에서 보내 주는 찬송가나 그림이나 공과책이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복음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선교부장 자택인 우리 집에서 인

쇄되었습니다. 어린이였던 우리들까지 모두 이 일에 동원되어 선교부 신문과 공과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교회 자료를 발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는 우리에게 스테이크장들이나 감독들을 보내지 않으셨으며, 상호부조회 회장들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브라질의 교회는 개척자들이 가지고 시작한 자료와 똑같은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료는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동안, 우리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이 말일성도가 되었고, 곧 선교부가 분리되었으며, 지방부와 지부들이 조직되고, 새로운 예배당들이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열성적이었고,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며, 복음의 방식으로 더욱 많은 경험을 쌓아 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작년에 저는 상파울루 성전 재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에 다시 갔습니다. 그 때 저는 브라질에 187개의 스테

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26개의 선교부와 네 개의 성전, 거의 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헌납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60,000명이 넘는 회원들로 꽉 찬 스타디움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쁨에 넘치는 축하 공연을 보면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그 날 밤 내내 경이로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성전 헌납식에서 제 초등학교 교사인 글로리아 실베이라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때, 저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았습니다. 전에 교회에 다녀 본 적이 없던 새로운 개종자 실베이라 자매님은 그녀의 단순한 간증을 나누고 제게 포르투갈어로 신앙개조를 가르칠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에 오셨었습니다. 자매님과 그

분의 남편인 움베르투는 여전히 충실하며 수년 동안 교회의 많은 부름에서 봉사하셨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베이라 자매님을 봤을 때, 저는 브라질의 교회가 그녀, 그리고 그녀와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인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베이라 형제님과 자매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진 도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발전했으며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88:80참조) 그들은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교리와 성약 30:5 참조) 그들은 성전에서 일했고(교리와 성약 138:48 참조), 다섯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교리와 성약 68:28 참조) 그들의 43명의 후손 중에, 열다섯 명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손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결혼하고 있으며, 그들의 증손자들은 요셉 스미스에 의해 시작되었던 기이한 일의 일부인 실베이라 부부의 네 번째 후세대입니다. 그들로 인해 신앙이 그 땅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전파되며(교리와 성약 1:23 참조) 작은[단순한] 일을 통하여 크신 사업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적을 보여주는 예입니다.(니파이일서 16:29 참조)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일은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에 의해 인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남자, 여자, 소년, 소녀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선교사 봉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21쪽)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된 간증, 권능 및 교리를 부여해 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1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나 그분은 여러분 각자를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열 네 살의 요셉 스미스가 숲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그]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본 것은 “1820년의 어느 이른 봄 아침 담고 맑게 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¹ 여러분은 열네 살의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성스러운 숲을 방문했을 때, 저는 요셉 스미스가 가졌을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영은 제가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임을 저의 고동치는 심장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우리가 그의 신앙과 용기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확고한 소망의 수혜자임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성스러운 숲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아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 위대하고 기이한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일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경전은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노스가 기도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 갔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니라 하시니라.”² 모세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

게 시킬 일이 한 가지 있느니라.”³ 주님은 아
굽의 이름을 아셨으며 지상에서 그의 사명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그 이름을 이스
라엘로 바꾸셨습니다.⁴ 마찬가지로 그분은 바
울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
습니다. 교리와 성약 25편에서 엠마 스미스는
인생에서 위안과 인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축복을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딸 엠마 스미스여, 내가 네게 말할 때에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⁵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
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모르나 그분은 여
러분 각자를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알
고 계십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교리와 성약 93:23 참
조) 그분은 여러분을 오래 전부터 사랑해 오셨
습니다. 그분은 단지 모든 별들의 이름만을 알
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시편 147:4; 이사야
40:26 참조) 여러분의 이름과 마음속의 고통
과 기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⁶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이름과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성
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 인내와 오래 참음
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⁷

그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는 딸들”⁸입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
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
구도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보다 덜 소중하거나
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자아
상,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 그분은
달리는 모든 사람을 응원하시며 그 경주가 서
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십니다.”⁹



**본부 청녀 회장단의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에게
그 당시 힘이 되었으며 지금껏 기억되고 있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 역할을 잘 수행하라”는
메시지**

요셉이 이 지식을 얻은 후에 그의 삶은 어
려워졌습니다. 사실 그는 포레들과 어른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역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면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포
레의 압력에 직면할 때, 유혹으로 둘러싸일
때, 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껴거나 혼자라
고 느낄 때 그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
지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위안과 인도와 지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랐던 적이 있습니까? 요셉 스미스는 “나
의 마음은 진지한 반성과 커다란 불안감에 사
로잡혔었습니다. ... 나는 종종 무엇을 할 것인

가 ... 하고 자문하여 보았습니다.”¹⁰

그는 어떻게 위안과 인도를 받았습니까? 그
는 경전을 공부했고, 거기에 있는 약속들을 상
고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
심했습니다.”¹¹ 그 아름다운 봄날에 그가 받은
응답으로 그의 삶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 그 간증으로 인해 인
내와 꾸준함으로 복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내
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¹²라고 그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포레의 압력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는 자신의 간증 때문에 확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포레의 압력에 유혹을 느꼈다
면, 기도하고, 신앙으로 간구하고, 성신에게 귀
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다음 복음대로 생활하십
시오. 요셉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통렬
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는 기도했습
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모로나이 천사
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록했습
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¹³고 말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할 바를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여
름에 BYU 국제 민속 무용단과 유럽을 순방하
는 동안 저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당시 몸이 아파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교
회 회원들과 구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공연
을 하려고 스코틀랜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선교 본부로 갔습니다. 본부
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앞뜰에 있는 돌 하나를
훑아 보았습니다. 그 돌에는 “네가 어떤 사람
이든 네 역할을 잘 수행하라”라는 글귀가 새겨
져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저의 마음 속에
전류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돌이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꾸
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무용 공연 동안 뿐

만 아니라 제 생애 동안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¹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 함께 살기에 합당함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합창단이 불렀던 찬송가의 이런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굽히지 않고 믿었네, 하나님 보호하심”¹⁵ *굽히지 않는*이란 말은 목적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굳은 용기를 지닌 것을 뜻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을 악마의 왕국의 “방해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악마의 왕국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졌다는 사실 [을] ... 악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¹⁶ 저는 제 경전의 여백에 “*방해자가 되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요셉 스미스에 의해 확립된 모범을 따르면, 우리 각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을 위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도 강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 거룩한 천사들까지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여러분은 천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들을 만큼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굽히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충만함이 주님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물몬경을 지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고, 지상에 신권의 권세,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어 주는 인봉의 권세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¹⁷ 시대입니다.

우리 각자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며, 간증을 얻기 위해 요셉 스미스가 확립한 모범을 따르



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구세주의 이름을 받들면서 그분을 대표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¹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제 간증은 저의 삶에서 길잡이와 닳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온 마음을 다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¹⁹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도했으며, 자신이 얻은 지식에 대해 충실했던 열네 살 소년의 고결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위대하고 기이한 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²⁰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

립니다. 아멘. ■

주

1. 요셉 스미스서 2:14, 17.
2. 이노스서 1:5.
3. 모세서 1:6.
4. Bible Dictionary, “Israel”, 708쪽 참조.
5. 교리와 성약 25:1.
6.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6쪽.
7.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1쪽.
8. 청년 주재 참조.
9. “또 다른 탕자”,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2쪽.
10. 요셉 스미스서 2:8, 10.
11. 요셉 스미스서 2:13.
12. 요셉 스미스서 2:25.
13. 요셉 스미스서 2:33.
14.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했을 때 이 똑같은 물에서 동기를 부여 받았다. 훗날 이 돌을 구입해서 선교부 앞뜰에 두었으며,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 지금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에 있다.
15.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24장.
16. 요셉 스미스서 2:20.
17. 요셉 스미스서 2:71, 각주.
18. 이사야 66:22.
19. 찬송가, 6장.
20. 교리와 성약 112:10; 아브라함서 1:18 참조.

모범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보이는 모범으로, 생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 있는 여러분과 전세계에서 위성을 통해 방송으로 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녀 회장단의 말씀,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이 모임에 가득 찬 영으로 우리는 고양되고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대관장단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를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과 힘이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모범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준 책임, 곧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¹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 방임과 부도덕, 외설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압력으로 인해 죄의 바다에서 흔들리고 있고 또 잃어버린 기회와 빼앗긴 축복과 깨져 버린 꿈이라는 울퉁불퉁한 암초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청녀들과 그들의 어머니, 청녀 지도자와 고문 여러분, 이 지상 생활을 거쳐 하나님 아버지의 해의 왕국까지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행동 규범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동 규범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 여러분이 가진 유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 여러분이 받게 될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 여러분이 아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증을 나누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가진 유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내 산에서 주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²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분들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인간은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³ 부모님께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결코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분들께 순종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심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큰 희생을 해 오셨으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정직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해 정직을 보이는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언의 시위를 피하십시오. 밤이 깊어지고, 시간이 늦었는데도 소중한 딸이 아직 집에 오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시계 소리는 커지고 1분이 몇 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귀가가 늦어지면 전화하십시오. “엄마, 아빠, 별일 없어요. 가다가 식사 좀 하고 있어요. 걱정마세요. 괜찮아요. 곧 집에 갈게요.”

오래 전에 저는 유타 클락스톤의 공동 묘지에서 있었던 청소년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물론명의 세 목격자 중 하나인 마틴 해리스의 묘지를 표시한 기념비를 보는 동안, 다른 한 기념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한 이름과 감명 깊은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온 빛은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하던 음성이 잠잠해졌네. 우리 마음의 한 곳이 비었으니 결코 채워질 수 없네.”

여러분의 집에서 나온 빛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기 전에 낮은 음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음 행동 규범은 ‘여러분이 받게 될 유혹을 이겨내십시오.’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유혹을 겪었습니다. 그가 본 시현을 전했을 때 그에게 산더미처럼 쏟아진 조롱과 비웃음, 놀림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임

니다. 그는 시현에 관한 자신의 말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쉽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⁴ 요셉 스미스는 모범으로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유혹을 겪었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카멜롯”이라는 연극을 알 것입니다. 이 연극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사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더 왕과 랜슬롯 경과 귀네비어 왕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아더 왕은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꿈을 파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오늘 밤 저는 이런 호소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꿈을 파괴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물몬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⁵

“조심해서 친구를 택하라”는 충고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들처럼 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세상적인 편의, 피상적인 목표나 작은 포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처럼 영원한 목적을 지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장래에 성전 결혼을 할 수 있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만큼 달콤한 사건이나 그 날만큼 성스러운 때는 없습니다. 그 날 그 곳에서 여러분은 찬란한 기쁨의 일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십시오. 유혹이 이 축복을 앗아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영향이 있지?



내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의 행동 규범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내 생각은 어떻게?”라는 질문이 돋보이게 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에 영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확인을 받을 때 권능을 지닌 사람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고 말했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는 특별한 음성의 울림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여십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약속했듯이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⁶

우리 시대의 경향은 자유 방임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닳고 싶어하는 인기 영화인과 뛰어난 운동 선수를 보는데 그들 중에는 아무런 나쁜 영향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별 받을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장부에 적힌 대로 셈을 하는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신데렐라에게는 반드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때를 심판의 날이라 부르며, 인생에서 정말 큰 시험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이 그 하나입니다. 그 축복에는 영원한 가능성이 담긴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문을 자주 읽어 보십시오.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십시오. 그 내용으로 인도 받으십시오. 그 약속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인생 여정에서 비틀거리는 청년이 있다면, 되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 불리는 과정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그런 축복된 은사를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길이 어렵긴 하지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⁷ “내가 ...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사실입니다.⁸ 여러분은 유혹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동 규범은 ‘여러분이 아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입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첫번째 시현이 있는 뒤에 요셉 스미스는 3년 동안 하늘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3년 동안이나 어떤 말씀이나 연락을 더 받지 못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인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은 의심하기 시작할까요? 의아해 하거나 왜라고 질문을 할까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의아해 하지도, 질문을 하지도, 주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이미 받았고 그 진리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된 이 특별한 시기에 태어나도록 예비되었습니다. 복음과 간증에 관해 언급하시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상의 어떤 힘에 못지 않게 실질적이고 강력합니다 ... 이 간증은 노소를 불문합니다. ... 간증은 인생에는 목적이 있으며,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리는 영원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⁹

여러분은 부모님과 교회의 교사들에게서 복음 진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경전에서,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오는 영감을 통해 여러분은 계속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의심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기 때문에 동시에 한 마음에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의심을 던져 버리십시오. 신앙을 발전시키십시오. 산을 움직이고 하늘을 마음과 가정에 가깝게 해 주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간직하려고 항상 노력하십시오.

신앙을 확고히 심게 되면 복음과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옷차림과 언어를 단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해에 일부 청년들의 옷차림에서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옷스타일은 변하고 유행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 스타일이 단정하지 않다면, 우리의 청년들

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단정히 입을 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 입는 방식이 인기 영화배우나 가수가 입는 천박한 맵시를 따르고 있는 요즘에는 옷가게에서 단정한 옷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¹⁰ 여러분이 아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결코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목 받지 않는 사람을 찾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느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몬스 자매가 넘어져 입원해 있었을 때 있었던 경험을 한 예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제게 식료품점에 가서 물건을 좀 사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전에 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 물건을 적었습니다. 거기에는 감자도 있었습니다. 재빨리 쇼핑카트를 찾아서 그 안에 감자를 잔뜩 넣었습니다. 야채를 담은 비닐 봉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쇼핑카트를 끌고 가면서 카트 뒤쪽에 난 두 개의 틈을 통해 감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원이 급히 달려오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쇼핑카트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모든 쇼핑카트에는 어린아이들이 다리를 넣을 수 있도록 뒤쪽에 두 개의 틈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점원은 제 목록을 가져다가 해당 물건을 찾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 때 그 점원이 “몬스 감독님 아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감독을 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제가 워드 구역 내의 게일 거리에 살았는데 비회원이었습니다. 감독



님께서 몇몇 청녀들에게 매주 저를 만나서 함께 상호 향상 모임과 다른 활동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훌륭한 청녀들이 베푼 우정과 친절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독님께서 저를 위해 주선해 주셨던 우정 증진으로 인해 저는 침례와 확신을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보이는 모범으로, 생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언자 요셉의 훌륭한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따라 사시고, 진리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증을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견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¹¹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전야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살아갈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행할 바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신 그분께 향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손짓하십니다.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 [는] 살아 계십니다!”¹² 그분의 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전서 4:12.
2. 출애굽기 20:12.
3. *The Two Gentlemen of Verona*, in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ed. William Aldis Wright, Cambridge edition(1936), act 1, scene 2, line 31.
4. 요셉 스미스서 2:25.
5. 앨마서 41:10.
6. 이사야 30:21.
7. 이사야 1:18.
8. 예레미야 31:34.
9. “간증”,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9~70쪽.
10. 고린도전서 3:16~17.
11. 교리와 성약 84:88.
12. Samuel Medley,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20 05년 4월 연차 대회의 말씀을 자신과 가족의 삶에 적용할 때, 개인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해 다음 제언들을 활용할 수 있거나 스스로 질문이나 활동 또는 토론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쪽 수는 말씀의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1. 물문경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가? 올해 말까지 얼마나 많은 성전이 운영될 예정인가?(4)

2. 올해는 한 중요한 사건의 175주년과 한 예언자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으며, 그 예언자는 누구였는가?(43)

3. 주님은 포커, 복권, 슬롯 머신,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도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

시는가?(58)

4.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 곳들은 어디인가? 그 곳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 곳들이 항상 거룩하게 남아 있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



는가?(62)

5. “열심히 일하고 강한 간증을 지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가?(69)

6.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위대한 것”으로 우리 교회를 다른 모든 교회와 구별 짓는 일곱 가지는 무엇인가? 이 밖에 추가하고 싶은 진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80)

7. 외설물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제언된 네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87)

8. 여러분은 낙담했던 적이 있는가? “외롭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낙담에 직면했을 때 모로나이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본다.(104) ■

읽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아래에 나와 있는 페이지의 대회 말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영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침례를 거의 기다릴 수 없는 사람, 10쪽.
- 역경을 만난 개척자 가족, 19쪽.
- 요셉 스미스가 어린이들에게 친절을 보여줌, 26쪽.
-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병든 가족을 도움, 26쪽.
- 어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가 오르간의 주름관을 펴뜨질 함, 36쪽.
- 세계 곳곳에서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 39쪽.
- 히버 시 김볼이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남, 43쪽.
- 사람은 위험을 경고 받음, 46쪽.
- 마리 퀴리가 인내심을 갖고 발견을 함, 51쪽.
- 훈즈밀에서 부상을 당한 젊은이가 선교사로 봉사함, 51쪽.
- 로렌조 스노우를 구한 장로들, 51쪽.
- 집에 감독을 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훗날 활동화 됨, 54쪽.
- 망야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던 사람, 69쪽.
- 젊은 데이비드 이 소렌슨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함, 72쪽.
- 커피를 마실 것을 거절한 병사, 72쪽.
- 낮선 사람에게 예비 타이어를 준 아버지, 74쪽.
- 버스를 놓치고서 선교사를 만난 여성, 84쪽.
- 남편의 사망 후에 성탄절 카드를 받은 아내, 99쪽.
- 신권 지도자가 스테이크의 한 젊은이에 관한 꿈을 꿈. 99쪽.
- 남편과 아버지를 차 사고로 잃음, 104쪽.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의 작곡자, 13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멜

기세택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대한 다음의 유의 사항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위한 교과 과정 유의 사항,

2005~2008년에 나오는 유의 사항을 대체합니다.

매달 멜기세택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는 가장 최근의 리아호나의 특집호에 실린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는 각각 5월과 11월에 발행됩니다. 또한 인터넷 www.lds.org에서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말씀을 사용하여 각 공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장 또는 지방부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거나,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 신권 지도자들은 멜기세택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당 일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분들이 가장 최근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공과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꼭 구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공과를 준비하는 데 도움될 제안 사항

-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자료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배운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들과 교리들을 찾으며 말씀(들)을 검토한다. 또한 말씀에 포함된 내용 중에 원리들과 교리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이야기, 경전 참조 및 문구들을 찾아본다.
- 원리들과 교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한 개요를 만든다. 개요에 포함될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반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가르칠 말씀(들)에 포함된 교리와 원리들을 찾는다.
 - 원리와 교리들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본다.
 - 반원들이 원리들과 교리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내용,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이러한 원리들과 교리들을

-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의 31~32장을 검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원들이 영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복음 원리를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복음대로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교수법 지도서 2001년, 12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또는 cur-development@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달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5년 5월~10월	2005년 5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말씀
2005년 11월~2006년 4월	2005년 11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말씀

*인터넷 www.lds.org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다 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제3과정과 청년 교재 3에 나와 있는 공과들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대체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원수 지도서를 말한다. 개인 발전은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책자를 말한다.

지도서에 열거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활동의 일부를 공과 시간에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월회 회원 또는 반원들을 격려한다. 공과 추가 제언들을 **리아호나**에 있는 “**리아호나 활용하기**”와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에서 찾을 수 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성탄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화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찬송가 사용을 고려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지도서를 인터넷에서 찾을 경우

www.lds.org로 가서 세계 지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언어를 선택한다. “**리아호나**”를 클릭한 후, 2005년 5월호를 클릭한다.

영문 참고 지도서들은 **www.lds.org** 상에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칼럼에는 대부분의 현재 참고 지도서가 연결되어 있다.

장래의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에 인쇄될 예정이다. 교회 잡지(일부 언어)를 인터넷 **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아론 신권 제3과정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26~49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과: 순결의 축복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9쪽.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를 활용해 공과를 보충하는 것을 고려한다.

리차드 지 스코트,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성도의 빛**, 1997년 9월호, 28쪽. 질의 응답 방식을 활용하여 공과에 언급된 도덕적 주제들을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5번.

제27과: 우리 몸은 성전임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깨끗하십시오” 편을 활용하여 공과를 소개할 수 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악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8쪽. 기사에 있는 비유와 이야기는 불순종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12번.

제28과: 유희를 이겨냄

고든 비 힝클리, “일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2쪽. 현대 예언자의 역할을 토론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를 덧붙이는 것을 고려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악마의 목구멍”,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1쪽. 기사에 있는 비유와 설명이 공과를 보충할 수 있다.

제29과: 안식일 준수

얼 시 텅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48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를 소개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2번.

제30과: 아론 신권 소유자는 여성을 존중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성: 가장 영예로운 자리”,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16쪽. “여성과 남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차이점이 있음” 편에 여성이 지닌 특별한 은사에 관한 개념을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2번.

제31과: 영원한 동반자를 택함

달린 에이치 옥스, “주님의 타이밍”,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10쪽. 기사에 있는 “우리 생활에의 적용” 부분을 공과의 “결혼의 시기” 편에 추가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4번.

제32과: 성전 엔다우먼트를 준비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40쪽. 기사에 있는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부분이 공과에 있는 “성전의 목적” 편을 토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10번.

제33과: 해의 왕국의 결혼-영생을 위한 준비

리차드 지 스코트, “성전 축복을 받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9쪽. 공과를 소개하면서 기사의 첫 단락을 사용하도록 고려한다.

에프 버튼 하워드, “영원한 결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2쪽. 기사에 언급된 세 가지 책임이 공과 소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2, 4번.

제34과: 순종

알 콘래드 솔즈, “신앙의 순종”,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신앙의 순종”에 있는 이야기와 개념이 공과에 있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됨” 편을 보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5번.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1번.

제35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0쪽. 기자의 비유를 사용하여 공과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엘 워트니 클레이튼, “나의 믿음을 잃는 것을 도와주소서”,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1쪽. 기사에 있는 한 두 가지 정경 이야기를 이용하여 공과의 이야기들을 대체하거나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가족 활동”, 1번.

제36과: 축복사의 축복

보이드 케이 패커, “스테이크 축복사”,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2쪽. 패커 장로의 말씀에 있는 인용문을 이용하여 “축복사의 축복이란 어떤 것인가?” 편을 보충한다.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18쪽. 이 기사를 개관으로 활용하여 공과의 결론을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제사), “가족 활동”, 3번.

제37과: 성령의 열매와 은사

조셉 비 워스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쪽. 성신의 은사에 대한 워스틴 장로의 설명이 공과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제38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윌리엄 더블류 팸리, “와서 나를 따르라”,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3쪽. 기사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택하여 기독교인다운 봉사를 설명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3번.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4번.

제39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킴

로버트 디 헤일즈, “영과 육신의 치유”,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4쪽. 묵상에 관한 헤일즈 장로의 권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됨” 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더블류 롤프 카, “그리스도의 말씀-우리의 영적인 **리아호나**”,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6쪽. 이



기사에 있는 개념을 “경전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됨” 편의 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제사), “가족 활동”, 1번.

제40과: 선교 사업을 행함

달린 에이지 옥스,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쪽. 옥스 장로의 세 가지 요점을 공과에 추가할 수 있다.

게리 제이 코울먼,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34쪽. 가르칠 사람을 찾는 예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정원회 활동”, 3번; “영적인 발전”, 11번.

제41과: 좀더 구세주와 같이 됨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듭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8쪽. 아티아티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에 관한 토론에 추가할 수 있다.

엘 라이오넬 켈드릭, “역경에 맞서는 힘”,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8쪽. 기사에 있는 “개인적인 구세주”편이 구세주에 관한 토론을 보충할 수 있다.

제42과: 겸손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됨

달린 케이 켄슨,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를 활용한 후에 이 기사에서 겸손에 관한 예를 몇 가지 활용한다.

에토스 엠 애모림, “예수님의 말씀: 겸손”,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38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겸손에 관해 언급된 구세주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43과: 생각과 언어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불경스런 욕설”, *성도의 빛*, 1996년 9월호, 28쪽. 이 기사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깨끗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 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12쪽.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제언과 인용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공과

내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5번.

제44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회복된 신권”,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30쪽. 신권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사에 나온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집사), 10번; (교사), 12번.

제45과: 간증을 전함으로써 간증을 강화시킴

아담 시 울슨, “시대의 시험을 견디어 냄”,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36쪽. 기사에 있는 청소년들의 말을 활용하여 개인의 간증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영적인 발전”, 5번.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정원회 활동”, 5번.

제46과: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

존 엘 하우어터, “후임 동반자”,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8쪽. 동반자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관한 토론에 이 이야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3번.

제47과: 정직

달린 에이지 옥스, “회개와 변화”,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7쪽. “정직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믿는 기반임” 편을 가르치기 위해 기사 중간에 있는 정직에 관한 옥스 장로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1번.

제48과: 교육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준비함

존 케이 카머,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리아호나*, 2004년 1월호, 32쪽. 교육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할 때 이 기사를 활용하도록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제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1번.

제49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임

러셀 엠 넬슨, “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27쪽. 기사에 있는 넬슨 장로의 간증을 활용하여 공과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영적인 발전”, 6번.

청녀 교재 3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26~47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6과: 회개

리처드 지 스코트,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5쪽. 회개의 절차에 관한 가르침을 공과에 있는 “회개는 우리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줌” 편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헨리 비 아이어링, “미루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38쪽. 아이어링 장로의 권고를 “매일 회개하여야 함” 편에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4번.

제27과: 자신을 용서함

닐 에이 맥스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6쪽. 자신을 용서할 때 따르는 어려움을 토론하면서 맥스웰 장로의 간증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가르침, 설교, 병 고침”,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12쪽. 기사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라는 편이 용서의 은사에 관해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5번.

제28과: 헌납과 희생

닐 에이 맥스웰, “네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9쪽. 공과에 있는 요셉 스미스의 인용문을 토론할 때 맥스웰 장로의 권고를 활용한다.

키스 비 맥멀린, “약속이 따르는 초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5쪽. 해의 왕국의 율법에 관한 교사의 설명 후에 세상적인 것을 피하는 것에 관한 권고를 활용하도록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7번.

제29과: 마음의 변화

에즈라 테프트 벤슨, “가장 값있는 일”, *성도의 빛*, 1990년 2월호, 2쪽. 공과 적용의 일환으로 간증이 어떻게 선교사를 더 잘 준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단락을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2번.

제30과: 경전 연구

러셀 엠 넬슨, “경전의 안내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9쪽. 기사에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경전은 우리가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고 도와 줌” 편을 보충한다.



줄리 비 벡,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7쪽. 벡 자매의 경전 공부 경험을 나누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활동”, 4번째 항목.

제31과: 교회에서의 봉사

헨리 비 아이어링, “주의 힘을 의지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6쪽. 자발적인 교회 봉사를 설명하기 위해 기사에 있는 경험들 가운데 하나를 나눈다.

수잔 더블류 태너,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4쪽. 기사에 있는 봉사의 예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1번.

제32과: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

제임스 이 파우스트,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9쪽. 기사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예를 설명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6번.

제33과: 모든 인간은 신성하고 영원함

고든 비 힝클리,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99쪽. 공과를 소개하기 위해 신성한 성품에 관한 권고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1번.

제34과: 부정직을 피함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기사의 “진실하십시오” 편이 공과 소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잠잠하라, 고요하라”,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3쪽. 부정직에 관한 두 질문을 활용하여 공과를 마무리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4번.

제35과: 데이트 결정

수잔 더블류 태너, “데이트를 잔잔한 향해처럼”,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2쪽. 기사에 있는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공과의 육체적 욕망에 관한 부분을 보충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2번.

제36과: 결혼의 표준

고든 비 힝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2쪽. 공과의 “우리는 의로운 표준을 충실히 지켜야 함” 편에 이 기사에 있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특별호: 데이트와 성전 결혼,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공과를 보충하는 개념을 얻기 위해 이 특별호를 살펴본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2번.

제37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고든 비 힝클리,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2쪽. 모든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토론한 후에 “확고한 진로를 추구함” 편을 활용한다.

젠 핀보로우,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14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정숙에 관한 표준을 토론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2번.

제38과: 건강을 지키는 습관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쪽. 이 기사에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과에 있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지침을 주셨음” 편을 보충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활동”, 3번째 항목.

제39과: 개인적인 가치를 인식함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6쪽. 기사에 있는 한 이야기를 시온의 진영 이야기에 덧붙이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1번.

제40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함

“질의 응답”, *리아호나*, 2004년 12월호, 40쪽. 기사에 있는 제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토론을 보충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3번.

제41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됨

“시간 관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33쪽. 이 목록을 활용하여 신뢰할 만하게 되는 것에 관해 가르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활동”, 1번.

제42과: 변화에 대비함

레니 하딩, “나만이 아니다”,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26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를 레니의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줄리 하우스홀더,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야”,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8쪽. “우리는 성공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음” 편을 시작할 때 이 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4번.

제43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성”,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2쪽.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관한 토론을 보충하기 위해 이 기사를 활용하도록 고려한다.

리처드 에이치 윈컬, “우정의 그물”,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32쪽.

레드우드의 비유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것에 관한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7번.

제44과: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함

리처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쪽. 기사에 있는 제언이 만사를 지혜롭고 순서에 따라 행하는 것을 토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폴러 제이 루이스,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24쪽. 이런 제언들을 “우리는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편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2번.

제45과: 직업 선택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관해 더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지식을 쌓으십시오” 편을 활용하도록 고려한다.

존 케이 카머,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리아호나*, 2004년 1월호, 32쪽. 기사에 있는 정보를 “직업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 편에 추가할 수 있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활동”, 2번째 항목.

제46과: 금전 관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18쪽. 기사에 있는 이야기를 십일조에 관한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경험”, 2번;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7번.

제47과: 말의 예언자들의 메시지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이 기사에서 적절한 권고를 선정하여 공과에 활용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1번.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주일학교



다니엘 케이 주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청남



딘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마이클 에이 네이더
제2보좌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즈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회장



앤 시 핑그리
제2보좌

청녀



줄리 비 벡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테너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트
제2보좌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쉐릴 시 란트
회장



비키 에프 미즈모리
제2보좌

교회 소식

벤하민 데이 오요스 장로

칠십인



을 7월, 칠십인 제일 정
원회의 벤하민 데이
오요스 에스트라다

장로와 일가 친척들은 모친의 가
계 쪽으로 그의 증조모 되시는 분
이 1905년에 교회에 들어온
10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회와의 오랜 역사가
그 가족의 유일한 유산은 아니다.
그 가족 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교사들
이 있다.

데이 오요스 장로의 어머니는
교사였으며, 오요스 장로의 삼촌
두 분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가
르쳤다. 여자 형제 세 명도 교사
이다. 딸 하나가 이 직업을 갖고
있어 교사라는 직업이 삼 대째 이
어오고 있다.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던 데이
오요스 장로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26년 동안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했다. 오요스 장로는 이렇게 말
한다. “공학에서 교육학으로 바꾸
는 결정에는 주님의 손길이 작용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
다 교사입니다. 제 직업은 제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데이 오요스 장로와 아내인 에
벨리아 헤네스타 멘디빌 데이 오
요스 자매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세미나리 교사, 코디네이터, 종교
교육원 책임자, 지역 부책임자, 국
가 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멕시코
의 거의 모든 주에서 살았다. 그
동안 네 곳의 스테이크장단에서
스테이크장 또는 보좌, 투스틀라
구트헤레스 선교부의 선교부장,
지역 관리 칠십인, 멕시코 남부 지
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다.

그와 에벨리아는 1975년 6월
4일에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과 여섯 자녀는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동안 가족 경전 공부
및 함께 하는 시간을 계획하여 단
합을 유지했다.

그는 전임으로 봉사하기 위해
직업을 포기하더라도,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할 것이다. 데이 오요
스 장로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
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라고
말한다.

데이 오요스 장로는 1953년
2월 20일에 멕시코 몬테레이에
서 알프레도 데이 오요스와 사라
에스트라다 데이 오요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멕시코 에르모시
오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칠십인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하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데이비드 후레윈 에번즈 장로는 부친의 생애가 끝나가는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께서 해 주신 이런 권고의 말씀을 늘 기억해왔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라고 에번즈 장로는 말한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영원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평안과 행복과 기회라는 멋진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일단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면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1970년대 초 일본에서의 선교 사업으로 시작하여 훗날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일본 나고야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선교 사업은 에번즈 장로의 생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와 아내인 매리 디 쉐퍼드 에번즈 자매, 그리고 여덟 자녀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후에도 선교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

선교사 봉사 이외에도 에번즈 장로는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을 당시에 스테이크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는 스테이크장단 보좌,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으로 봉사했다.

1951년 8월 11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데이비드 시 에번즈와 조이 에프 에번즈 사이에서 태어난 에번즈 장로는 곧바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신 부모님께 모든 공을 돌렸다. 1973년 1월 24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아내 매리 또한 큰 힘을 보태 준 근원이 되었다.

고등교육에 정진한 에번즈 장로는 공중 보건 교육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유타의 많은 법률 사무소에서 공동 경영자 및 개업 변호사였으며, 또한 투자 은행 사업체의 임원이다.

에번즈 장로는 인생에 닥칠 수도 있는 시련 뒤에는 축복이 따를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헝클리 대관장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가 행할 모든 것을 다한 연후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궁극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칠십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세실 스코트 그로우 장로는 자신의 간증이 일곱 살 때 주일학교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찬송가, 24장)를 노래하는 동안 그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간증을 얻었다.

그 이후로 복음 교리에 대한 그로우 장로의 이해는 더욱 발전하여 그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확고한 토대를 그에게 만들어주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의심해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라고 그로우 장로는 말한다.

그로우 장로와 아내인 룬다 리 패튼 그로우 자매는 1969년 10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비록 도시에서 성장하기는 했지만(당시 지역 대표였던) 엘 앨던 포터 장로가 준 권고를 따랐다. 그들은 일에 대한 자녀들의 이해와 발전을 돕기 위해 말, 소, 닭, 양을 키울 수 있도록 6,000평이 넘는 대지에 가정

을 꾸렸다.

훗날 그로우 장로와 자매는 여덟 자녀와 함께 우루과이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 곳에서 그로우 장로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낙천적인 생각과 열정의 은사를 받았습시다.”라고 그로우 자매는 말한다.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은 그것에 응합니다.”

그로우 장로는 1948년 5월 5일 아이다호주 모스크오에서 세실 우드 그로우와 엘리 메리 그로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성장하여 아이다호주 메리디언에서 거주했다. 그는 회계학을 전공으로 브리검영 대학교를 졸업하고 굴지의 회계 및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세웠다. 최근에 교회 봉사에 전념하는 부름을 받기 전에 그로우 장로는 지역 관리 칠십인과 아이다호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북미 북서 지역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장, 두 곳의 스테이크장단에서 보좌, 선교부장,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의 보좌, 멕시코 남동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

리차드 지 힝클리 장로

칠십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리차드 고든 힝클리 장로는 칠십인의 일원이라는 자신의 부름에 관한 느낌이 수줍은 집사로서 금식 헌금을 모을 때나 신임 선교부장으로 가졌던 느낌과 별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금식 헌금을 모으는 일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멋진 경험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선교부장이라는 부름은 완전히 준비를 갖출 수 없는 부름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배가 침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멋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름에 다가서면서 힝클리 장로는 압도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예전의 봉사에서 몇 가지를 배웠다. “이러한 부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라고 말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우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힝클리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계속 거주해왔다. 선교부장으로서는 그는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를 감리했다.

유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MBA를 받은 힝클리 장로는 수많은 지역과 전국 규모의 벤처기업 및 조직에서 임원 내지는 공동 경영자로 일하거나 자문 위원회에서 봉사해왔다. 그는 독일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많은 여행을 했다.

선교부장으로서는 그는 42개국과 미국의 46개 주에서 온 선교사들을 감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치 국제 선교부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장래에 대해 커다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힝클리 장로는 또한 솔트레이크 성전 인봉자, 스테이크장, 두 곳의 스테이크장단에서 보좌, 감독으로 두 번 봉사했다. 그는 1941년 5월 2일에 고든 비트너 힝클리와 마조리 페이 힝클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와 아내인 제인 프리드 힝클리와는 1967년 7월 28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다. ■

폴 브이 존슨

칠십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폴 베레 존슨 장로는 대학에서 치과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병원을 이어받을 계획이었다.

그는 또한 선교사 훈련원의 전신인 언어 훈련 선교부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존슨 장로는 치과의사가 더 이상 자신의 길이 아님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장래에 세미나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두 명의 중요한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였다.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교사가 되었을 거다.”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약혼자였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알았던 가족 때문에 세미나리 교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 있었다. 그녀는 늘 그 가정의 느낌을 좋아했다.

존슨 장로는 1954년 6월 24일에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서 베르 호지스 존슨과 윈프레드 아마처 존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타주 로건에서 성장하여 1976년 8월 18일 유타주 로건 성전에서 레슬리 질 워시번 자매와 결혼했다.

존슨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동물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상담 및 지도를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그리고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교육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존슨 장로는 애리조나와 유타에서 12년 동안 세미나리를 가르쳤다. 이후로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교육 기구에서 종교 교육 관리자 직책을 포함하여 교과과정 개발 및 관리직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해왔다.

청소년 및 젊은이들과 일했던 시절을 통해 그는 적어도 한 가지는 배웠다. 즉 교회의 장래는 밝다는 점이다. “예언자들은 이 세대에 관해 말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말은 참됩니다. 교회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강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존슨 장로는 지역 관리 칠십인, 스테이크장단 보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감독, 와드 청남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

폴 이 컬리커 장로

칠십인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폴 에드워드 컬리커 장로가 일곱 자녀의 아버지요 교회 성전부의 전직 책임자로서 가족을 전부로 생각하고, 성전이 가족을 양육하고 지원한다고 믿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인자하신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라고 컬리커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정구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고 있고, 성전을 방문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에게 해드릴 이야기 선물을 갖고 있고, 여러 시간 동안 계속 우리를 웃게 합니다.”

1943년 3월 12일에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컬리커 장로는 에드워드 시 컬리커와 로이스 비 올슨 컬리커 사이에서 다섯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그 가족은 1945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했다.

컬리커 장로는 미래의 아내인 프레다 앤 닐슨 자매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으나 1964년에 유타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야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 뒤 컬리커 장로는 베를린에서 선교 사업을 끝내고 돌아와 1966년 3월 18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선교 사업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베를린 장벽 건너편에 부모를 둔 가족을 가르쳤을 때 가족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스тей크장 및 감독으로 봉사했던 기회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컬리커 장로는 그런 경험들이 성전부에서 일하도록 그를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저는 성전부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컬리커 장로는 말한다. 그는 경영학 학위를 받고 1966년 이후로 다양한 직책에서 교회를 위해 일해왔다. “제가 이 직책에서 일한 후로 96개의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저는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의 마음과 열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성전 사업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런 거룩한 신뢰로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분은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며 진리의 보고입니다. 그분의 예언자적 부름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

폴 비 파이프

칠십인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폴 보웬 파이프 장로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발전 도상에 있는 교회 단위를 조직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왕국의 성장에 나타난 주님의 인도에 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주님은 그분의 왕국의 성장을 위해 누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길을 준비하십니다.”라고 파이프 장로는 말한다. “우리가 가져온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참여의 특권을 주십니다.”

파이퍼 장로가 지부장으로 봉사할 때, 저활동 형제를 보좌로 부르라는 속삭임을 느꼈다. 그 사람은 지금 스테이크장이며 니카라과에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파이프 장로는 자신이 봉사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지난 6년 동안 파이프 장로와 그 가족은 과거의 소련 공화국에서 살았다. 그들은 카자흐스탄과 중앙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교회

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다. 부름 받을 당시에 파이프 장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파이프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공으로 돌리는 동시에 파이프 장로는 아내인 멜리사 터틀 파이프 자매에게도 공을 돌린다. 두 사람은 1979년 11월 7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여섯 자녀는 그가 합당한 아버지와 신권 소유자로 발전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파이퍼 장로는 1957년 10월 7일에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에서 디 메이저즈 파이프와 노르마 보웬 파이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국제 관계를 공부한 다음, 유타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그곳에서 또한 법학 학위를 받았다. 파이프 장로는 변호사 및 국제 개발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는 스테이크장단, 고등평의원, 지부장단, 그리고 멕시코 몬테레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의 삶에서는 신앙과 순종, 이 두 가지 복음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태생인 소아레스 장로와 아내인 로사나 웨르난다 모르가도 소아레스 자매는 브라질 남 지역의 관리 실무 책임자로 훈련 받기 위해 때때로 미국 여행을 갔다. 어디로 여행을 가더라도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한 소아레스 부부는 예배 중에 그들에게 우정을 나누어 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어느 일요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귀중한 우정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소아레스 장로 부부는 그 날 밤 그 사람의 도움이 다시 필요했을 때 또 다른 축복을 깨달았다. 출산을 앞둔 소아레스 자매는 유산을 했다.

소아레스 장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회상한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친구가 기도에 대한 주님

의 응답이었으며,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소아레스 장로는 “우리가 그 날 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한다.

그는 선교부장, 스테이크장, 고등 평의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등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했다. 또한 그는 MBA와 두 개의 학사 학위, 즉 경영 회계학 및 경제학 학위를 갖고 있다.

1958년 10월 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아파레시도와 메르세데스 카레초 소아레스 사이에서 태어난 소아레스 장로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모로부터 배웠다. 그는 1982년 10월 30일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사랑하는 아내 로사나와 인봉되었으며, 세 자녀를 키우는 축복을 받았다. 소아레스 가족은 유타주 바운티폴에 거주하고 있다.

소아레스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순종을 통해 받았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속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적용한다면, 영원히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고원용 장로

칠십인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고원용 장로는 1962년에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항상 자신의 옷에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어려움은 이 세상의 옷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 부름이 항상 제 능력보다 더 컸습니다. 각 부름은 제가 입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옷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고 장로는 1945년 10월 15일에 한국의 부산에서 고장수와 이상순 사이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오해가 있었고 때로는 언론매체에 의해 조장되었다. 그러나 고 장로는 주님께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배웠다.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 삼년 간의 군복무 기간 내내 그리고 훗날 그가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사장과 최고 경영자로 승진을 하는 동안 도움을 주었다.

고 장로는 스테이크장, 지역대

표, 그리고 최근에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했으며, 2003년 이후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일해왔다.

고 장로와 아내 김 은희 자매는 1978년 4월 1일에 결혼하여 한국 서울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가 중요한 지원자가 되어 왔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부름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신 구세주께 영광을 돌렸다.

고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었으나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고 장로는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이고 너무도 크게 보이는 또 하나의 옷을 입으려 노력하면서 구세주께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이 부름을 구하지 않았 습니다”라고 고 장로는 말한다. “이 부름은 주님께에서 오는 것이기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여]’ (교리와 성약 4:5) 봉사한다면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지켜온 저의 간증입니다.” ■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칠십인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볼프강 하인즈 주르겐 폴 장로는 독일의 한 마을에서 유일한 회원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군복무를 하면서 폴 장로의 간증은 몰몬경에 대한 폭넓은 공부와 기도를 통해 강화되었다.

“간증을 얻은 후에 저는 주님을 먼저 찾겠다는 인생의 좌우명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폴 장로는 말한다. “제가 주님을 먼저 찾으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잘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폴 장로는 또한 이렇게 커진 간증은 그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 자매와 결혼을 하고 복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올바른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결심했다.

폴 장로는 그런 결심이 확고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헬가 클라페르트 자매와 1964년 4월 2일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결혼했으

며, 두 사람은 복음 안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계속되고 있다.

폴 장로는 유럽 중부 지역에서 지역 관리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그는 독일 연방 정부 경영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정부 관리로 일했다. 최근에 은퇴한 폴 장로는 유럽의 교회 직장에서 수 많은 관리 및 행정직에서 일했다.

그의 교회 경력으로 유럽 동부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지역 대표, 선교부장, 스테이크장단 보좌,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대체사 그룹 지도자, 지부장, 장로정원회 회장 등이다.

1988년 폴 장로는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1989년 3월에 그의 부름은 변경되어 베를린 장벽 너머에서 독일 드레스덴 선교부장으로 1991년까지 봉사했다. 그는 1940년 2월 28일 독일 뮌스터에서 요한 폴과 베르타 스타르바티 폴 사이에서 태어났다. ■

로웰 엠 스노우 장로

칠십인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로웰 밀러 스노우 장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던 거의 10년 동안, 속죄의 권세 및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발전시켰다.

“제가 인생에서 얻은 모든 선한 것은 속죄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스노우 장로는 말한다. “바로 그것이 제가 선교 사업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성장할 때, 제 가족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스노우 장로는 말한다. “아내는 훌륭한 간증을 지닌 교회 개종자입니다. 신권 지도자와 교사, 손위의 친형제자매, 감독, 선교부장, 스테이크장 등 이 모든 분들이 저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스노우 장로 역시 많은 부름에서 봉사를 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 남편, 그

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유일한 것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노우 장로는 1944년 1월 2일에 유타주 세인트조지에서 룰론 에이 스노우와 마리안 엠 스노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장래의 아내인 타마라 앤 민즈 스노우 자매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당시에 두 사람 다 학생이었다. 두 사람은 1966년 9월 8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다섯 자녀를 두었다.

스노우 장로는 전임으로 봉사하는 칠십인 정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유타 북부 지역에서 지역 관리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스노우 장로는 동물학 및 화학을 전공으로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지도 및 상담으로 웨인 주립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그리고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또한 그는 변호사 및 기업 컨설턴트로 일해 왔다.

스노우 장로의 다른 교회 봉사는 지역 집행서기, 교회 호스팅 책임자, 선교부장, 스테이크 및 와드 청남 회장, 스테이크장단 보좌, 감독, 감독의 보좌, 지부장, 독일 서선교부에서의 전임 선교사 등이 있다. ■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칠십인



칠십인 케이 정원회의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의 인생에서 선교 사업은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청년이었을 때, 시브로스키 장로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그레이트 캐나다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지난 해 그는 캐나다 토론토 서 선교부의 선교 부장에서 해임되었다. 이제 시브로스키 장로의 선교 사업에 대한 사랑은 자녀들의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시브로스키 장로와 아내인 린 프라이어 시브로스키 자매는 아홉 자녀의 부모이다. 두 자녀는 아직 집에 있지만, 일곱 자녀는 선교사로 이미 봉사했거나 봉사중이다.

“저는 청남 청년가 선교사 봉사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그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시브로스키 장로는 말한다. “제 첫번째 선교 사업은 제 인생에서 뜻이었습니다. 정말 기초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선교사로 봉사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자녀들의 소망이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저녁 식사, 가정의 밤을 함께 갖겠다는 아내의 결심 덕분이라고 말한다.

비록 시브로스키 장로가 저활동 가족 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회복된 복음에 대한 그의 간증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간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 간증은 많은 기적과 신앙을 키워주는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시브로스키 장로는 1944년 8월 22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폴 에이치 시브로스키와 베티 앤 시브로스키 사이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은 1968년 3월 15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러 다국적 기업의 정보 서비스 부서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해왔으며, 현재는 자영업업을 하고 있다. 시브로스키 장로는 스테이크장, 스테이크장단 보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감독으로 봉사했다. ■

쉐릴 시 램트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제 11대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쉐릴 클라크 램트 자매는 어린이들과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가족, 교육, 직업, 그리고 이전의 교회 부름들을 포함하여 “저의 온 인생이 저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인생 내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경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홉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램트 자매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동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자녀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에요?”라고 물곤 했다. 오래지 않아 램트 부부는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봅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동화 대신에 경전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자리에서 경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음 날 아이가 자기 결정대로 하고 부모의 권고를 따르

려 하지 않으면, ‘니파이, 레이맨, 레뮤엘 중에서 누구처럼 되고 싶지?’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잘 따릅니다.”

찰스 벌 클라크와 비비안 켈러 클라크 사이에서 1944년 1월 30일에 태어난 그녀는 유타주 프로보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브리감 영 대학교를 다녔으며 아동 발달을 공부했다. 1963년 9월 17일에 그녀는 고등학교 때의 남자 친구인 존 글렌 램트 이세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커다란 유치원을 세워, 발음 중심의 읽기 기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아이들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그들의 영은 강합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는 그들의 영에 이미 친숙한 진리를 단순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영을 느끼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어린이들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램트 자매는 본부 초등학교 임원, 스테이크 및 와드 초등학교 회장,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와드 청년회 회장,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그녀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조직에서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

마거릿 에스 리퍼스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일 곱 자녀의 어머니인 마거릿 스웬슨 리퍼스 자매는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에서 짧은 순간 동안이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녀는 한 자녀가 네 살 때 같이 놀던 친구들과 마음이 안 맞아 울면서 집으로 왔던 때를 기억한다. “저는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과자를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로써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순간도 진정한 가르침의 시간이 되고,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리퍼스 자매는 1947년 3월 30일에 수도 워싱턴에서 제니 롬니 스웬슨과 앨버트 스웬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유타주 프로보에서 성장했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여 학위를 받았다. 1968년 8월 16일에 그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데니스 리퍼스 형제와 결혼했다.

어릴 적부터 리퍼스 자매는 기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경험들로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그녀의 부모가 성전으로 갔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어린 마거릿은 날씨가 나빠 부모님의 안전이 크게 걱정되었다. 그녀는 날씨가 추워 기침을 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저는 침대 밖으로 빠져 나와 무릎을 꿇고 기침이 멈추게 해달라고 또한 부모님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기침이 그쳤고 그녀는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부모님이 정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라고 리퍼스 자매는 말한다.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계명을 지키고, 성약을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를 때 그런 이해를 얻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 줍니다.”

리퍼스 자매는 본부 초등학교 임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와드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

비키 에프 마주모리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비키 후지이 마주모리 자매는 교회 회원이 되기 전부터 초등학교에 참석했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에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셨고, 유타주 머레이에 있는 그들의 집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집회소 가까이 있었다.

“저는 항상 교회가 참된 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마주모리 자매는 말한다. 십일조에 관해 배웠을 때, 그녀는 십일조를 내고 싶었다. 금식에 관해 배웠을 때는 금식을 하고 싶었다. 여덟 살이 될 즈음에는 침례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침례를 받기 위한 허락을 구하였을 때 부모님이신 조지 야수유키 후지이와 요시에 마주모토 후지이는 그녀가 가입할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교회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으므로 감독과 침례 접견을 하기 전에 신앙개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감독은 신앙개조를 암송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마주모리 자매

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얻었던 복음 지식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부모님은 마주모리와 동생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으며, 마주모리 자매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두 분 모두 교회에 들어오셨다.

마주모리 자매는 1950년 12월 15일에 유타주 머레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그레나이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훗날 1973년에 언론학 및 영어 전공으로 문학사 학위를 받아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그녀는 교원 자격증을 받아 중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녀는 1973년 6월 6일에 제임스 마주모리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1남 2녀를 두고 있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부름이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라는 자신의 부름에 대해 자신을 가장 잘 준비시켜준 부름이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던 다른 부름에는 초등학교 교사, 와드 초등학교장, 컵 스카우트 지도자가 포함된다. 그녀는 또한 본부 초등학교 위원회에서 5년 이상을 봉사했다. ■